세계문화유산
통도사 기념메달
마하몰
www.mahamall.co.kr
에서 만나세요

현대불교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541호 HYUNBULNEWS.COM 2025년 7월 30일(음력 윤6월 6일) 수요일 / 불기 2569년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7월 24일 최근 극심한 호우 피해를 입은 산청 지역을 찾아 희생자들의 극락왕생과 조속한 피해 복구를 발원했다. 진우스님이 산사태로 밀려내려온 바위와 토사로 피해를 입은 산청 율곡사 경내를 살펴보고 있다.

조계종 "집중 호우 희생자 극락왕생 발원"

이도경 · 유재상 지사장

최근 집중호우로 전국 각지에서 큰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불교계가 수해 희생자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고 이재민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힘을 보태고 있다.

조계종(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7월 21일 긴급구호단을 현장에 파견해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복구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24일에는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직접 사찰을 방문해 희생자들의 극락왕생과 조속한 피해 복구를 발원했다. 태고종(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23일 담화문을 발표해 국민을 위로하고 불자들에게 성금 모금과 봉사 활동을 독려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7월 24일 오전, 경남 산청을 찾았다. 산청은 나흘간 평균 632mm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산사태 등으로 14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지역이다. 특히 제12교구본사 해인사 말사 10여 개 사찰이 크게 파손됐다. 율곡사는 보물로 지정된 대웅전 벽이 무너지고 토사가 법당 안까지 밀려든 상태다. 요사채 한 동도 바위가 밀려들며 완전히 붕괴되는 등 도량 전체가 피해를 입었다.

진우 스님은 현장 방문에 앞서 율곡사 대웅전에서 〈반야심경〉을 독송하며 호우로 유명을 달리한 주민들의 왕생극락을 발원하고 유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을 전했다. 이어 도량을 살펴보며 처참한 율곡사의 모습에 안타까움을 전했다. 스님은 자연 재해에 대한 대책마련을 언급하며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종단에서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율곡사 주지 수미 스님은 "단수로 생활이 어려웠는데 해인사 본사에서 많은 도움을 줘서 현재 부분적으로나마 생활이 가능하게 됐다"며 감사 인사를 전하고 마을 주민의 안전과 일상 회복에도 염려를 표했다. 수미 스님은 "주민들은 어릴 때부터 율곡사를 자주 찾던 신도들로, 실질적인 사찰의 주인"이라면서 "이웃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먼저 돕고 도량도 잘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진우 스님은 산청에 이어 오후에는 서산을 방문, 상황을 살폈다. 서산 지역은 나흘간 누적 강수량이 500mm가 넘어가 7월 22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됐다.

충청 지역 사찰들도 큰 피해를 입었다. 제7교구본사 수덕사는 나무가 전도되고 하천이 범람하면서 토사까지 유입된 상태다.

파손된 도량을 보고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한 진우 스님은 "정부의 빠른 조치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다행"이라면서 "행정지원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종단 차원에서도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불교계, 피해 주민 · 유족 일상 회복 염원
진우 스님, 7월 24일 산청 · 서산 방문
조계종긴급구호단, 복구 지원 · 물품 전달
태고종, 담화 발표 "모금 · 봉사 동참"

불교계는 모연과 현장구호, 긴급키트 지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해복구 활동에 나서고 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소임자 스님들과 해인사 주지 혜일 스님, 수덕사 주지 도신 스님, 종회의원 진각·경암·향록·학암·정범 스님 등이 함께했다.

태고종은 총무원장 상진 스님 명의로 7월 23일 '집중 호우 피해에 따른 위로 담화문'을 발표하고 희생자와 피해를 입은 국민을 위로했다.

상진 스님은 "태고종 전국 사찰과 종도들이 중심이 되어 피해지역 복구를 위한 성금 모금과 자원봉사 활동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며 "모든 국민이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조계종긴급구호단(단장 묘장 스님)은 7월 21일부터 산청과 서산 지역에서 복구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산청 율곡사와 인근 마을 피해 현황을 점검한 구호단은 화장지와 비누, 치약, 칫솔 등이 담긴 긴급구호 키트 100개를 전달했다. 또 10명으로 구성된 구호단을 서산에 파견, 산사태로 큰 피해를 입은 천장사 복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편 조계종 총무원이 7월 17~21일 집계한 전국 사찰 피해현황에 따르면 충남과 경북, 전남, 경남, 세종, 울산 지역 사찰 50여 곳이 토사유입, 축대 붕괴, 침수, 산사태 등의 피해를 입었다.

▶3면에 계속

본각·계호·광용 스님, 조계종 최초 비구니 법계위원됐다

진우 스님 7월 23일 위촉장 수여
"책임감 갖고 소임 다할 것"

조계종 사상 첫 비구니 법계위원이 탄생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7월 23일 서울 조계사 템플스테이관 3층 담소에서 '법계위원회 비구니 위원 위촉식'을 갖고 본각·계호·광용 스님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날 전달식에서 진우 스님은 조계종 최초로 비구니 법계위원으로 위촉된 본각·계호·광용 스님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고 앞으로의 활동에 기대를 표했다. 스님은 "중앙종회의원 스님들이 공감한 덕분에 '법계법' 개정이 가능했다"면서 "총무원장 재임 기간에 비구니 스님들의 권리와 권익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게 돼 뿌듯하다"고 말했다.

비구니 법계위원 스님들은 감사의 뜻을 전하고 조계종 청사 화재 복구기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비구니 스님들은 이번 법계위원 위촉을 계기로 불교 승가 공동체의 진정한 평등과 전문성이 확보되길 기대했다. 본각 스님은 "법계를 심사할 수 있게 됨으로써 비구니들이 비로소 조계종단에서 동등하게 대접받게 됐다는 마음이 든다"고 소감을 전했다.

계호 스님도 "승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광용 스님은 "비구니회장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소임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임은호 기자

▶4면에 계속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7월 23일 최초의 비구니 법계위원인 본각 · 계호 · 광용 스님(사진 왼쪽부터)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현대불교신문 AI 그림 공모전 개최

AI로 그리는 '21세기 부처님'
8월 4~29일, 이메일로 접수

현대불교신문(대표 한명우)이 불교계 최초로 AI 그림 공모전을 개최한다. '2025 현대불교신문 AI 그림 공모전'의 주제는 '21세기에 부처님이 계신다면?'이다. 이 시대에 부처님이 계신다면 어떤 모습으로 어떤 삶을 살고 있을지를 생성형 AI를 이용해 그림으로 표현하면 된다.

공모 기간은 8월 4~29일이며 응모는 1인 1작품으로 한정된다. 현대불교신문 홈페이지에서 공모지원서를 내려받아 이메일(hbnewmedia@naver.com)로 보내면 된다. 02-2004-8252

AI로 되살린 스님 독립운동가-② 비구니 스님들의 독립운동 11면



2025년 광복 80주년을 맞아 일제 폭압에 맞서 독립운동에 나섰던 스님들의 활동을 조명하며 비구 스님에 이어 두 번째 순서로 비구니 스님들의 항일운동을 담았다. AI(인공지능)로 복원한 비구니 스님들의 모습은 암울한 현실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모습을 표현하고자 밝은 표정으로 구현됐다.

여름휴가 관계로 다음 호는 휴간합니다.

한국관광학회
The Tourism Sciences Society of Korea
대한불교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
Cultural Corps of Korean Buddhism

2025년 템플스테이·사찰음식
논문공모전 9.1-10.31

참가기준
참가 자격 일반인, 대학(원)생, 연구자(내국인, 외국인), 템플스테이와 사찰음식에 관심있는 자
공모 부문 템플스테이·사찰음식
논문 주제 템플스테이와 사찰음식을 중심으로 한 불교문화의 현대적 가치와 정신·관광 자원으로서의 지속가능성 탐색 관련 자유 주제
참가 형태 개인 또는 팀(공동연구는 최대 4인까지 허용)
참가 방법 논문 및 관련 양식 작성해서 이메일(tosok.kbc@gmail.com)제출
진행 방법 논문 제출 후 (1차) 서면심사 (2차) 발표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

추진일정
사전접수 8월 31일까지 → 논문접수 9월 1일~10월 31일 → 1차심사 결과발표 11월 2주(11/9) → 본선 발표 및 우수논문 시상식 11월 3주(11/21)

논문시상

구 분	주제 부문별 시상 수		시상금	시상금 합계
	템플스테이	사찰음식		
대상	1팀	1팀	300만원	600만원
최우수상	1팀	1팀	150만원	300만원
우수상	3팀	3팀	80만원	480만원

※ 수상 기준 미달 시 수상자가 없을 수 있으며, 시상 내역이 달라질 수 있음
※ 공모한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 시 논문게재 확인서를 한국불교문화사업단에 제출해야 함
한국불교문화사업단 기획팀 : 02-2031-2026

접수·문의 한국관광학회, 2025템플스테이·사찰음식 논문공모전 운영팀
이메일 : tosok.kbc@gmail.com
한국관광학회 한국불교문화사업단

백중 입재…진우 스님 "마음 비워야 극락"

7월 20일, 조계사 백중 입재서 법문
백중 의미·불제자로서 삶 설명
"인연 따라 오고 감이 세상 이치"
"보시는 집착 내려놓는 것" 강조도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7월 20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백중 기도 입재식 초청법사로 법상에 올라 백중의 진정한 의미와 불제자로서 수행의 삶에 대해 법문했다.

"태어났으니 죽고, 건강했으니 아프고, 즐거운만큼 괴로움도 커지는 것이 세상 이치입니다. 욕심을 줄이면 성냄도 줄어들고 어리석음도 사라집니다."

불기 2569년 백중(우란분절)을 앞두고 전국 사찰에서 백중 기도 입재식이 열린 가운데,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7월 20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백중 기도 입재식 초청법사로 법상에 올라 백중의 진정한 의미와 불제자로서 수행의 삶에 대해 법문했다.

"백중은 특별한 날"이라고 법문을 시작한 스님은 "부처님은 7월 보름날 백중에 수많은 스님을 초청해 재를 올리면 지옥문이 열려 죄를 면한다고 말씀하셨다"면서 "각종 공양과 가르침을 통해 지옥중생들이 이를 알아채면 지옥문을 나올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이고, 그 재를 백중이라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중생이 지옥에서 빠져나와야 나도 편안해지는 경지 '이고득락' 정토에 이른다"고 백중의 의미를 설명했다.

백중에 우리가 공양을 올리는 이유가 바로 '보시를 실천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한 진우 스님은 육바라밀의 첫 번째인 보시에 대해 "가진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집착을 놓는 것"이라고 말했다. 내가 가진 것은 본래 내 것이 아니고, 인연 따라 스쳐가는 것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내 것'이라 여기면서 집착하고, 계산하고, 지키려 애쓰는 동안 괴로워진다는 것이다.

스님은 "즐거운만큼 괴로움도 커지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며 탐진치 삼독심을 없앨 것을 강조했다. "우리가 삼악도 육도윤회를 벗어나지 못하고 근심 걱정으로 괴로워하는 이유가 삼독심에 있다"고 강조한 스님은 "삼독심이 업을 키우고, 업대로 고통이 따라온다. 인과업에 따라 욕심을 줄이면 화도 줄어들고, 어리석음도 사라지고 지혜가 생길 것"이라고 했다.

진우 스님은 업장을 청정히 하기 위해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육바라밀행을 할 것을 권했다. "아상을 내려놓고 무주상보시를 실천하며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이 인연 따라 왔으니 감사히 받고 또 사라지면 인연 따라 담담히 보내는 것이 세상의 이치"임을 설명한 진우 스님은 "좋은 곳에 태어나더라도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면 극락은 무너진다. 마음을 비워야 진짜 극락"이라고 했다.

이날 스님은 방생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스님은 "방생은 생명을 살리는 일과 함께 내 욕심을 줄이는 일"이라면서 "내 입에 들어갈 것을 참고, 다른 생명을 살리는 순간 삼독심을 놓고 업장도 덜어내게 된다. 진정한 방생은 나를 살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진우 스님은 대웅전을 가득 채운 불자들에게 "삶에서 불공평해 보이는 일이 많지 않냐?"고 질문했다. 스님은 "어떤 이는 노력해도 가난한 것 같은데 어떤 이는 앉아서도 부를 얻는 것 같다. 이는 복과 업의 차이"라면서 "업이 많으면 가만히 있어도 괴로움이 온다. 그렇기 때문에 보시하고, 법문 듣고, 수행하며 복을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 마음을 관찰하고 분별심을 내려놓고, 육바라밀을 실천하면 결국 괴로움이 줄어든다"면서 "나와 가족, 이웃이 모두 평안해지고 사회와 세상도 불국정토로 향하게 된다. 백중은 그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영축총림 통도사도 7월 20일 경내 설법전에서 '불기 2569년 백중(우란분절) 49일 천도기도' 입재식을 봉행했다. 통도사 백중기도 법회는 오는 9월 6일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의 법문을 끝으로 회향한다.

영규대사특위, 조헌 선생 탄신제 참석

7월 22일, 우저서원서 붕우유신 정신 기려



조계종 중앙종회 영규대사800의승명예회복을위한특별위원회(위원장 태진 스님, 이하 영규대사특위)가 7월 22일 김포 우저서원(牛渚書院)에서 열린 조헌 선생 탄신제에 참석해 붕우유신(朋友有信)의 뜻을 되새겼다.〈사진〉

이날 영규대사특위 대표로 참석한 종회의원 지인 스님은 임진왜란 당시 금산전투에서 함께 순국한 영규대사와 조헌 선생의 역사적 인연을 기리고 종교를 초월한 연대와 희생의 의미를 새겼다.

지인 스님은 "두 분은 종교를 달리했지만 국난 앞에서 하나가 돼 싸운 대표적 역사 인물"이라며 "그 정신을 기리는 이 자리에 불교계를 대표해 함께하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밝혔다.

이날 전달된 축하 화환에는 좌측 '대한불교조계종 영규대사 후손 일동' 우측 '붕우유신 중봉 조헌 선생 탄신제 감축'이라는 문구를 담아 불교계의 예우와 존경의 뜻을 담았다.

영규대사특위는 금산전투에서 순국한 영규대사와 800 의승군의 명예회복과 역사 복원을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펼쳐왔다. 최근 전규호 씨가 정리한 전승업 선생의 유고는 칠백의총에서 그동안 누락돼 온 의승군의 역할을 복원할 수 있는 핵심 사료로 평가된다.

영규대사특위는 "그동안 국가유산청과 일부 유림의 미온적이거나 배타적인 태도 속에서도 역사 자료에 기반한 설득을 통해 인식 개선의 토대를 마련해 왔다"며 "이번 탄신제 참석은 그 흐름 속에서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 유림 사회의 부정적 시선을 완화하고 나아가 붕우유신이라는 유교적 가치 아래 종교 간 역사적 연대를 재조명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임은호 기자

"국가유산관람료 지원 아닌 보전을"

진우 스님, 정부·정치권에 강조


진우 스님은 7월 22일 허민 신임 국가유산청장의 예방을 받았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정부와 정치권 관계자들에게 유·무형 불교문화유산에 대한 국가 정책 방향이 지원 아닌 '보전'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우 스님은 7월 18일 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의 예방을 받고 전통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제도 개선에 대한 고견을 나눴다. 스님은 한국불교 1700년 역사에서 사찰과 스님들의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전하고 "국가 지정 문화유산 가운데 불교 유산이 50%에 달한다"면서 "사찰 내 산림도 스님들이 목숨 걸고 지켜온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유산관람료 면제로 인한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 "지원 명목의 예산으로 행정적 불편이 잇따르고 있다"고 설명한 스님은 "지원에서 보존 관점으로 전환한다면 사찰이 더욱 안정적으로 문화유산을 관리하고 대국민 서비스도 더욱 원활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우 스님은 7월 22일 허민 신임 국가유산청장의 예방자리에서도 같은 의견을 표했다. 스님은 "한국불교는 민족문화유산의 가치로 봐야지 종교적으로 분류할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대국민 서비스 차원에서 사찰 국가유산관람료는 지원이 아닌 보전 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 불교전통문화를 통해 국민들이 마음의 안녕과 평화를 가질 수 있도록 국가유산청에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허 청장은 "불교계 입장이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중일·임은호 기자

선명상 프로그램, 전국 31개 사찰·기관서 만난다

미래본부, 조계사·서고사 등서
선명상 대중화 거점 역할 기대

국민 정신건강 증진과 선명상 문화 확산을 위해 실시한 '선명상 프로그램 운영사찰(기관) 모집'에 서울 조계사와 세종 광제사, 전주 서고사 등 31곳이 선정됐다. 전국 곳곳에서 선정된 사찰 및 기관은 선명상 대중화 거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조계종 미래본부(사무총장 성원 스님)는 7월 21일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미래본부에 따르면 이번 공개모집에는 전국 사찰들이 참여해 선명상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미래본부 사무총장 성원 스님은 "선명상 프로그램 운영 여건과 공간, 그리고 선명상을 체험하거나 시작하고 싶은 일반인들의 접근성 등을 고려해 31곳을 선정했고 현재 7곳 이상의 사찰이 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해 프로그램 운영 사찰은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선정 사찰과 기관 지도자스님과 실무자들은 7월 17일 조계사 불교대학 교육관에서 진행한 '선명상 프로그램 운영 지도자 교육'을 받았다. 이후 종단의 지원을 통해 선명상 체험 프로그램(1시간 과정), 선명상 입문 프로그램(4주 입문 과정, 집중 2박3일 과정) 등을 여름휴가가 시작되는 7월 말부터 직접 운영하게 된다. 선명상 1박 2일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은 한국불교문화사업단에서 선명상 템플스테이 특화사찰 지정을 통해 별도로 진행될 예정이다.

미래본부는 선정 사찰(기관) 프로그램 홍보, 운영매뉴얼 제공 등을 지원하며 요청이 있을 경우 전문지도자도 파견할 계획이다. 향후 미래본부는 운영 사찰과 기관 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선명상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확대를 통해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과 접근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성원 스님은 "선정된 사찰들이 선명상 대중화의 거점으로서 선명상이 현대인들의 생활 속에 자리잡을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많은 국민들이 선명상 프로그램에 참여해 마음의 평화를 얻고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길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선명상 프로그램 운영 사찰의 세부 프로그램과 일정 등은 미래본부 선명상 홈페이지(www.seonmeditation.kr)에서 확인 가능하다. 02-2011-1690 임은호 기자



태고종, 39명 구족계…“행동하는 수행자 되길”

7월 23일, ‘24차 구족계 수계산림’
비구 28명 · 비구니 11명 홍가사
“상구보리 하화중생 실천할 것”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태고종이 7월 23일 제24차 구족계 수계산림을 통해 총 39명의 스님을 배출했다. 사진은 연비의식을 하는 모습.

태고종의 사미·사미니 39명이 구족계를 받고 홍가사를 수했다. 정식 스님으로 첫발을 내디딘 스님들은 “분골쇄신의 마음으로 상구보리 하화중생 실천하겠다”고 다짐했다.

태고종(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7월 23일 서울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에서 ‘제24차 구족계 수계산림’을 봉행하고, 비구 스님 28명과 비구니 스님 11명을 배출했다. 수계자들은 사미·사미니계를 수지하고 4년간 선암사 전통강원, 동방불교대학 등에서 종단 교육을 이수했다.

이날 구족계 수계산림은 오전 입재식과 율장강의, 오후 구족계 수계법회로 나눠 진행됐다.

입재식에는 총무원장 상진 스님과 율원장 수진 스님, 호법원장 구산 스님, 교육원장 재홍 스님, 포교원장 능해 스님, 고시위원장 휴완 스님, 한국불교신문사장 청호 스님, 교육부원장 지관 스님, 행정부원장 도성 스님 등이 참석해 구족계를 수지하는 스님들을 격려했다.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수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상진 스님은 “진정한 수행자는 자신이 내뱉은 말에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한다”며 “말만 앞서고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실천할 수 있는 불심과 신심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스님은 “구족계를 통해 한 단계 성장한 만큼, 지금까지의 정진이 헛되지 않도록 후배 스님들에게 모범이 되길 바란다”며 “태고종의 정통성과 종단 발전의 초석이 되는 데 있어 스님 한 분 한 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상진 스님은 이날 수계를 받은 스님 한 명 한 명과 악수하며 부단한 수행 정진을 당부했다.

교육원장 재홍 스님도 “구족계를 받고 가사를 수한 스님들은 더욱 정진하겠다는 서원을 세운 것”이라며 “내면을 단단히 다져 종단의 위상을 높이는 데도 함께해 달라”고 말했다.

해동율맥 전수조교 대진 스님의 ‘비나야장의 요체’ 율장 강의에 이어 법륜사 대불보전에서 수계법회가 열렸다. 수계의식은 전계아사리 중앙율원장 수진 스님, 교수아사리 중앙종회의장 시각 스님, 갈마아사리 호법원장 구산 스님이 삼화상으로, 재홍·능해·금담·휴완·청호·지허·지관 스님이 칠증사로 나섰다.

교수아사리 시각 스님은 구족계를 받지 못하는 법 13가지와 수계 가능한 법 16가지를 구족계 수계 대상자들에게 확인했으며, 호궤합장한 수계자들은 질문에 답하며 스스로 구족계를 수계할 수 있음을 증명했다. 연비의식에 이어 홍가사를 정대한 수계자들은 불법(佛法)의 전승과 실천을 약속했다.

전계아사리 수진 스님은 “계란 곧 행위이며, 모든 행위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온전한 마음이 곧 계요, 온전한 계가 곧 마음이다. 구족계는 수행자가 굳건히 지켜야 할 기본 덕목”이라며 계율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스님은 또 △대중을 거두기 위해 △대중을 기쁘게 하기 위해 △대중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 △믿음이 없는 자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 △이미 믿는 자로 하여금 더욱 믿게 하기 위해 △조복하기 어려운 자로 하여금 조순케 하기 위해 △뉘우치는 자를 편안케 하기 위해 △현재의 잘못을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 △미래의 잘못을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 △정법을 오래 머물게 하기 위해 등 율장을 제정한 10가지 목적을 설명하며 “계율을 잘 지키면 마음이 불안할 일이 없고, 어느 자리에 있든 편안하다”고 말했다.

한편 태고종은 11월 8일 서울 광화문에서 ‘국제대승보살계 수계법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법회에는 태고종 스님들과 동남아·유럽 등에서 초청한 스님들이 동참해 대규모 법석이 열릴 전망이다.

집중 호우로 사찰 피해 잇따라

7월 17~21일, 50여 사찰 피해
침수 · 붕괴…석굴암 관람 제한

7월 16일부터 시작된 집중호우가 닷새 넘게 이어지며 지역 사찰들에서 피해가 속출했다. 특히 제6·7교구 본말사와 제12교구 본말사 피해가 이어지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조계종 총무원이 7월 17~21일 집계한 전국 사찰 피해현황에 따르면 충남과 경북, 전남, 경남, 세종, 울산 지역 사찰 50여 곳이 토사 유입, 축대 붕괴, 침수, 산사태 등의 피해를 입었다.

제6교구본사 마곡사는 하천이 범람했고 공주 동혈사와 아산 봉곡사, 천안 광덕사는 토사가 유입되는 피해를 입었다. 공주 동학사도 사면 일부에 토사가 유실됐고 부여 금자암은 화장실 외벽 지붕이 파손됐다.

제7교구본사 수덕사는 나무가 전도되고 하천이 범람하면서 토사까지 유입된 상태다. 특히 초반 호우가 중부지역에 집중되면서 충남 예산과 서산 지역 제7교구 말사들에 피해가 큰 상태다. 서산 개심사와 홍성 용봉사엔 토사가 유입됐고 용봉암은 축대가 붕괴됐다. 문수사는 토사가 유입되면서 진입로가 붕괴됐다. 또 천장사는 경내 토사가 유입되면서 건물 피해까지 입었다. 죽사는 토사 유입과 공양간이 침수됐다. 일락사는 진입로 유실 피해를, 서광사는 경내 토사 유입 피해를 입은 상태다. 예산 견성암은 사면이 붕괴되며 공양간과 요사채가 침수됐다. 보덕사 경내에는 자갈이 유입됐고 향천사는 천불선원 지붕이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다.

산청군에는 평균 632mm의 폭우가 내리면서 조계종 제12교구본사와 말사들에서도 피해가 속출했다. 산청 심적사는 산사태와 전봇대 전도로 진입로가 완전히 막힌 상태다. 선방 지붕 기와도 일부 탈락됐으며 토사가 유입됐다. 정취암과 황매사, 고운사는 산사태로 진입로가 차단됐다. 문수암은 공양간 뒤편 산사태로 일부 파묻힘과 침수가 발생했다. 경내와 진입로에 토사가 유입돼 템플스테이를 온 방문각 차량 포함 총 6대가 파손됐다. 지곡사는 법당 뒤 축대가 4~5m 붕괴됐다. 요사채 뒤편 축대도 붕괴돼 주의를 요한다. 송덕사는 칠성각 전각 축대가 파손돼 비닐로 덮어 임시 조치했다. 전기, 인터넷, 전화기가 단절된 상태며 지자체와 진입로를 정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천 백련사의 경우 마당에 물구덩이가 생겨 복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 진입로 나무 등 토사물 잔해로 진입 불가하다. 용흥사는 산신각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토사가 유입되고 나무 잔재로 진입이 어려운 상태다. 봉두사는 사찰 담장 일부가 파손됐다.

7월 18일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이번 역대급 호우에 피해를 입은 불교 관련 유산은 2곳이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경주 석굴암은 호우로 인해 진입로 사면 일부가 유실됐으며 서산 개심사 대웅전은 경내로 토사가 유출되는 피해를 입었다. 국가유산청은 경주 석굴암 진입로에 출입제한 경고문과 안전선 설치했으며, 서산 개심사 경내로 유출된 토사에 대해서는 출입 방지를 위한 우장막 설치 등의 임시 조치를 완료했다.

국가유산청은 7월 17일 오후 5시를 기해 국가유산 위기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하고 재난안전상황실 설치·운영에 들어갔다. 또 각 지자체에 산사태 위험지역 인근 국가유산 관람을 제한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임은호 기자


최근 집중 호우로 산청 율곡사 대웅전(보물)의 벽체 일부가 무너지고 토사가 법당 안까지 밀려드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진각종, 조계종 화재 피해 복구 기금

능원 정사, ‘빠른 복구’ 염원
마곡사 주지 원경 스님 1억원



진각종(통리원장 능원 정사)이 조계종 총무원 청사 화재 피해 복구를 위해 1000만원을 지원했다.

통리원장 능원 정사는 7월 18일 서울 조계사 템플스테이관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만나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복구 기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사진〉

진우 스님은 감사의 뜻을 전하고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고마움을 표했다.

능원정사는 “복구에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들었다”면서 “진각종도 조속한 복구를 위해 마음을 모으겠다”고 했다. 이어 진각문화전승원 강당을 소개하며 “행사 시 필요하다면 언제든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진각종 총무부장 법운 정사, 포교부장 원영 정사, 사서국장 도원 정사도 함께했다.

7월 25일 조계종 제6교구본사 마곡사 주지로 임명된 원경 스님도 당일, 원활한 화재 복구 염원을 담아 진우 스님에게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복구 기금 1억원을 전달했다.

임은호 기자

한국불교 세계로…불교영어교육 성료

조계종 사회부, 7월 19~20일
‘2025 YES! DHARMA101’



조계종 사회부 국제팀은 7월 19~20일 수원 봉녕사에서 한국불교 해외 홍보 인력 양성을 위한 ‘2025 YES! DHARMA101’ 불교영어교육을 진행했다.〈사진〉

‘영어로 배우는 한국불교’를 주제로 한 이번 ‘YES! DHARMA101’은 2024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됐다. 행사에는 불교 영어를 활용한 번역 활동에 관심 있거나 종단해외포교 및 홍보 활동에 함께 하고자 하는 청년불자 16명이 함께했다.

프로그램 첫째 날에는 통번역가로 활동 중인 민우 스님(중앙대 한영 통번역학과 석사)이 사찰 및 교리에 대한 불교용어교육을 진행했다. 이어 사찰예절습의, 붓다볼명상, 타종체험 등을 익히는 시간을 가졌다. 둘째 날에는 선명상에 이어 게임형식의 퀴즈를 통해 첫째 날 배운 영어들을 복습하고 불교영어와 보다 친숙해지는 시간을 보냈다. 조별 활동으로 절하는 방법을 외국인에게 재미있게 알릴 수 있도록 영어 쇼츠를 제작해 보는 등 강의와 실습이 결합된 형태 수업이 눈길을 끌었다.

임은호 기자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
인도/네팔 불교성지순례 8박10일
▶일 정 : 인천-델리-바라나시-보드가야-라즈기르-바이샬리-쿠시나가르-룸비니-쉬라바스티-아그라-델리-인천
▶동참금 : 280만원부터~
인도 보드가야
인도 마하보디 대탑

인도양의 진주
스리랑카 6박8일
▶일 정 : 인천-콜롬보-아누라다푸라-미힌탈레-담불라-시기리야-폴론나루와-알루비하라-캔디-누와라엘리야-아홍갈라-콜롬보-인천
▶동참금 : 문의
담불라 석굴 사원
스리랑카 시기리야

관세음보살의 상주처
보타낙가산+미륵도량 설두산+상해 4박5일
▶일 정 : 인천-상해-보타낙가산-설두산-상해-인천
▶동참금 : 문의
중국 4대불산
-구화산+항주 4박5일
-오대산+북경 4박5일
-아미산+낙산대불 4박5일

성지순례자의 도반 마하연투어
예약·상담 02-365-7747 마하연투어
www.mahayeon.com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39(우정에쉐르) 1401호

“비구니 승가 참종권 확대 기대”

▶1면에서 이어짐

비구니 최초 법계위원 의미

2013년 비구니 호계위원 ‘좌절’

비구니 스님들 2014년 제안서 공개

7월 22일 위촉식은 12년만의 결과

정운 스님 “시대 흐름 따른 공감”

조계종 비구니 법계위원 위촉은 2013년부터 시작된 비구니 승가의 참종권 확대 노력에 대한 제도적 결실이다. 이번 법계위원 위촉을 계기로 앞으로 불교 승가 공동체의 진정한 평등과 전문성 확보는 물론 비구니 스님들의 참종권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비구니 법계위원 위촉은 조계종 중앙종회가 지난 3월 제233회 임시회에서 “명망 있는 원로 비구니 스님이 명사 법계를 품수해야 하는데 현재 9인의 비구 법계위원 스님만으로 심사할 경우 해당 비구니 스님들에 대한 충분한 심사가 이뤄질 수 없다”며 명사 특별 전형에 한해 비구니 법계위원 3인이 참여하도록 ‘법계법’을 개정하면서 이뤄졌다. 최근 비구니 법계 특별 전형이 늘고 있는 만큼 전문성을 갖춘 비구니 스님이 심사해야 한다는 대중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이어 6월 10일 제234회 임시회에서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제출한 본각·계호·광용 스님에 대한 ‘법계위원 위촉 동의의 건’을 만장일치 가결했다. ‘법계법’ 제5조 2항은 비구니 법계위원은 ‘명덕 이상 비구니 3인’을 중앙종회의 동의를 거쳐 총무원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비구니 스님들의 참정권 확대는 2013년부터 제기돼 왔다. 그해 중앙종회 제194회 임시회에서 호계위원과 법규위원의 자격을 ‘비구’에서 ‘승려’로 바꾸는 종헌 개정안이 처음 상정됐으나 부결되자 전국비구니회와 비구니 종회의원들은 2014년 3월 기자간담회를 열고 ‘비구니 승가의 호계·법규위원 참여를 위한 제안서’를 공개하며 비구니계의 염원을 세상에 알렸다.

같은 해 6월 열린 중앙종회 제198회 임시회에서 비구니 스님의 법규위원과 초심호계위원 참여를 허용하는 종헌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지만, 7월 원로회의에서 절차상 문제 제기로 다시 부결됐다. 이후 8월 제199회 임시회에서의 무기명 비밀투표 역시 가결정족수에 미치지 못했다.

지난 7월 22일 열린 법계위원 위촉식은 ‘법계법’ 개정 요구 12년 만의 성과다. 전체 승려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비구니 위상을 높이는 것과 더불어 향후 그에 합당한 참종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법계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정운 스님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공감을 얻었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면서 “비구니 종회의원 스님들이 한 명도 흐트러짐 없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왔기 때문에 얻은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준비하고 있는 제도 개선안을 언급하며 “종헌종법이 시대에 맞게 계승돼야 하고, 비구 스님뿐 아니라 비구니 스님도 함께 해야만 종단을 건강하게 이끌 수 있다는 것에 중점을 둬 활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청춘남녀, 연꽃 명소서 커플 매칭

연꽃 명소 남양주 봉선사에서 청춘들은 자연 속에서 소통하고 교감하며 새로운 인연을 만들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묘장 스님)은 7월 19~20일 봉선사에서 특별한 만남 템플스테이 ‘나는 절로, 봉선사’를 개최했다. 청춘남녀들은 로테이션 차담, 선재 스님과 함께하는 사찰음식 만들기 체험, MC 심목민의 레크리에이션, 야간 자유데이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나는 절로, 봉선사’에는 남자 250명, 여자 298명 등 548명이 지원했으며 남녀 각 12명을 선발해 총 4커플이 매칭됐다.

임은호 기자

불교환경연대, 수락노인복지관·굴암사 녹색도량 협약

7월 16~17일, 협약식 개최

“기후위기 대응 지속가능 실천”

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법만 스님)가 구립 수락노인종합복지관(관장 장지연), 안성 굴암사(주지 해성 스님)와 ‘녹색도량 협약식’을 진행하며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실천을 위한 뜻을 함께하기로 했다.

7월 16일 수락노인종합복지관에서 진행된 협약식에서 불교환경연대 공동대표 원경 스님은 “연기설이 말하듯 모든 생명은 서로 연결돼 있어 그 소중함을 깨닫고 실천으로 옮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불교환경연대는 녹색도량 협약을 통해 불교계와 지역사회가 함께 기후위기 대응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약식 이후에는 불교환경연대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주제로 환경 강의를 진행했다. 강의에서는 음식물 쓰레기가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과 일상과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장보기 계획, 남김 없는 식사, 잔반 줄이기, 적정량 조리법, 올바른 분리배출 등 실질적인 방법이 소개됐다. 특히 이날은 수락노인종합복지관의 잔반 없는날이 진행된 날로, 기후위기 대응의 공감대를 넓히는 의미있는 시간이 됐다.

7월 17일에는 안성 굴암사가 협약식을 통해 68번째 녹색도량이 됐다.

굴암사 주지 해성 스님은 “굴암사는 오래전부터 자연과 함께하는 수행처로서의 전통을 지켜 왔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비닐·플라스틱 사용을 최소화하며 신도들과 함께 환경 보살의 삶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불교환경연대와 안성 굴암사의 녹색사찰 협약식 모습.

임은호 기자

교불련 ‘대학생전법교재’ 편찬 추진

7월 17일 진우 스님 예방서 밝혀

진우 스님 “시대 맞는 전법” 당부

8월 11일 대불련과 워크숍 논의



한국교수불자연합회(회장 이상훈, 이하 교불련)가 대학생 전법을 위한 교재 편찬에 나선다.

이상훈 교불련 회장은 7월 17일 서울 조계사 담소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대학생 전법 교재’ 편찬 방향과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사진〉

이날 이 회장은 “〈인문학과 윤리〉 〈윤리와 사상〉 등의 고등학교 교과서에 불교 교리 내용이 어느 정도 실려 있어 대학생들에게 관심을 끌 수 있는 초기불교이론을 비롯해 〈금강경〉, 〈수심결〉 등을 담아내려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회장은 “미국 동부지역 공립학교를 중심으로 2023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명상 및 마음챙김 호흡(mindful breathing)’ 프로그램에 한국의 죽비를 지원해 선명상 확산의 기폭제로 삼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이에 진우 스님은 “AI시대를 맞은 현대 사회에서 시대에 맞는 방편으로 전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대기설법을 하신 부처님의 지혜와도 부합하는 것”이라면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당부했다.

한편, ‘대학생전법교재 편찬위원회’는 8월 11일 오후 4시 동국대 영상문화센터에서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집행부를 초청해 발제를 듣고, 전법교재의 수요자인 대학생들의 니즈를 분석하고 집필방향에 대해 토론하는 ‘제1차 편찬위원회 워크숍’을 개최한다.

신중일 기자

진각종, 광복 80주년…국토 수호 염원

7월 21~23일, 22회 회당문화축제

2000여 명 참석…콘서트·순례 등



광복 80주년을 맞아 울릉도에서 열린 회당문화축제에서 국토 수호와 평화를 염원하는 ‘독도아리랑’이 울려 퍼졌다.〈사진〉

진각종(통리원장 능원 정사)은 7월 21~23일 울릉도 일원에서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2회 회당문화축제를 개최했다.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독도아리랑 콘서트’는 23일 빌드업, 태평, 희망과 도약, 독도아리랑, 어울림 등 5가지 주제로 펼쳐졌다.

청년 예술가들은 음악과 댄스 공연을 선보였고 울릉도 꿈나무어린이집 원아들의 귀여운 율동과 진각종립 위덕대학교 태권도부의 퍼포먼스가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임철호 테너와 가수 안치환 씨의 열창도 관객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광복 80년을 기념하고 다가오는 진각 80년을 기대하며 마련된 80인의 ‘독도는 우리땅’ 플래시몹도 화려한 불꽃놀이와 함께 펼쳐졌다.

통리원장 능원 정사는 “올해 회당문화축제는 광복 80주년에 맞춘 특별기획으로 우리 땅 독도를 사랑하고 지키려는 의지를 더한 ‘독도아리랑 찬가’”라며 “앞으로 더욱 새롭고 알찬 회당문화축제를 만들어 가겠다”고 인사했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22회째 회당문화축제를 마련해 주시는 진각종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회당문화축제 본행사에 앞서 순례문화 조성을 위해 처음 기획된 ‘회당의 발걸음을 따라’ 도보순례가 진행됐다. 순례단 40여 명은 7월 23일 여래심인당을 출발해 총지심인당까지 8.1km를 3시간 동안 걸었다.

해단불사에서 능원 정사는 “창교 80주년을 맞아 순례가 종단의 새로운 문화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수령 기자

백두산, 고구려유적, 화엄사-수월정사 순례
9월12일~9월16일(5일간)
■ 일정: 인천-심양-집안(고구려 옛수도-광개토대왕비등)-백두산 천지(북파)-연길-두만강(화엄사,수월정사)-인천
▶동참금 : 159만원

인도 다람살라 달라이라마 친견 6일
11월02일 출발~11월07일 도착(6일 일정)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순례 일정입니다.
■ 일정: 인천-델리-암리차르-다람살라-달라이라마 친견(법왕궁)-남걀사원,네충사원-암리차르-델리-인천
▶동참금 : 문의

티베트 카일라스(수미산) 순례 16일
9월13일~9월28일(16일간)
카일라스(수미산)는 불교 경전상의 수미산의 모델로 지칭되는 성산입니다.
■ 일정: 인천-성도-라싸-간체-시가체-사캬-라체-사가-파양-다르첸-수미산코라-구게왕국-마나사로바호수-사가-라싸-인천
▶동참금 : 570만원

중국 구화산, 보타산 6일
지장보살의 도량 구화산과 관세음보살의 도량 보타산 순례
9월10일 출발~9월15일 도착
■ 일정: 인천-남경-지장보살 구화산-항주-관음보살 보타산-상해-인천
▶동참금 : 159만원



부탄, 네팔 성지순례 8일
히말라야의 불교왕국 부탄, 아름다운 부탄과 네팔 카트만두 불교성지 순례입니다.
출발일 : 9월23일~30일(6박8일)
■ 일정: 인천-카트만두-부탄 파로-팀푸-푸나카-파로-카트만두-인천
▶동참금 : 429만원

중국 운강석굴, 문수보살의 성지
오대산 성지순례 5일
9월10일 출발~9월14일 도착
■ 일정: 인천-북경-대동-운강석굴,화엄사-현공사-오대산 5대 순례-북경-인천
▶동참금 : 159만원

중국 실크로드 성지순례 10일
중국 실크로드 코스는 서안에서 돈황석굴을 지나서 투루판과 우루무치까지 현장법사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최고의 순례 길입니다.
10월10일~10월19일(9박10일)
■ 일정: 인천-서안 - 법문사 - 천수(맥적산석굴)-난주(병령사석굴)-장액(대불사)-칠채산-가욕관(만리장성의 서쪽끝) - 돈황석굴-투루판(베제크릭천불동)-우루무치(천산천지)-인천
▶동참금 : 349만원

예약 · 상담 02)720-9600
마음여행 실크로드여행사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8, 에스앤에스빌딩 901호
https://maumtour.com/



한마음선원 부설 대행선연구원은 7월 19일 안양 한마음선원 본원 3층에서 '지구위기와 환경'을 주제로 제23회 계절발표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종합토론을 하고 있는 패널들. 사진 왼쪽부터 줄리안 퀸타르트, 홍다경, 박정훈, 유정길.

쓰레기 먹는 코끼리·녹는 빙하…인간 욕망이 만든 위기들

대행선연구원 제23회 계절발표회
줄리안, 홍다경, 박정훈, 유정길 등
환경운동가, 인플루언서 발표 진행

청소년 · 청년들 '기후우울증' 경험
미래세대 자원 가져다 쓰는 현 시대
분리 · 인간 아닌 연기 · 생명 중심
"3%가 바뀌면 세상 바꿀 수 있다"
혜솔 스님 "사찰 내 비닐 사용 지양"

안양=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대행선연구원 제23회 계절발표회에 참석한 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 스님(사진 아래 가운데), 안양본원 주지 혜솔 스님(사진 아래 오른쪽에서 두 번째) 등 내빈과 발제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 세계 농지 중 70%가 소·양·염소를 키우기 위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중의 절반만 줄이면 정말 많은 토지를 지구와 생명에게 돌려줄 수 있어요." – 줄리안 퀸타르트 노노샵 대표

"기후위기로 인해 가장 피해를 보는 건 청소년·청년 등 미래세대입니다. 적지 않은 청년들이 기후우울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 홍다경 지구를 지키는 배움터 대표

"불교국가인 스리랑카에서 신성한 동물로 여겨지는 코끼리가 쓰레기 매립지에서 음식을 주워 먹다가 죽어가고 있어요." – 박정훈 KBS PD

"현재 기후위기는 20%의 부유한 사람들의 소비가 만들어 낸 것들입니다. 물질의 시대에서 마음의 시대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 유정길 불교환경연대 공동대표


줄리안 퀸타르트 노노샵 대표


홍다경 지구를 지키는 배움터 공동대표


박정훈 KBS PD


유정길 불교환경연대 공동대표

기후위기 시대 극복을 위한 인식 전환과 불교적 실천 방안을 살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마음선원(이사장 혜수 스님) 부설 대행선연구원(원장 혜선 스님)은 7월 19일 안양 한마음선원 본원 3층에서 '지구위기와 환경'을 주제로 제23회 계절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계절발표회는 학술 연구 논문 발표 형식이 아닌 기후 및 환경 전문가들의 특별 강연을 듣는 심포지엄으로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육식 줄이면 달라지는 것들

방송인이자 환경운동가로 잘 알려진 줄리안 퀸타르트 제로웨이스트샵 노노샵 대표는 '기후위기 극복의 열쇠 :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결정적 변화들과 세계가 보내는 긍정적인 신호'를 통해 육식 줄이기 등 세계적인 기후위기 극복의 움직임을 소개했다.

"벨기에 시골 마을에서 살았고, 어릴 때 부모님이 유기농 가게를 운영해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현재는 비건을 한 지 5년 정도 됐다"고 밝힌 줄리안 대표는 "우리가 먹는 음식들이 결국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면서 육식 소비의 축소를 제안했다.

줄리안 대표에 따르면 전 세계 농지 중 소·양·염소 등을 방목하는 토지가 70%, 사료 생산을 위한 농지가 13%에 달한다. 인간이 채소를 섭취하기 위해 활용되는 농지는 17%에 불과하다. 줄리안은 "육식을 위해 방목되는 가축들이 줄고, 이를 위한 토지가 준다면 해당 토지를 지구와 생명들에게 환원할 수 있다. 식물과 동물들이 함께 사는 환경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전 세계적으로는 육식 섭취가 줄고 있다. 독일, 프랑스, 벨기에에 있는 버거킹의 경우 비건 와퍼를 판매하고 있다"며 "채식을 하면 힘이 없다는 것도 편견이다. 노박 조코비치와 닉 키리오스 등 유명 테니스 선수들도 채식을 실천하고 있으며, 보디빌더 패트릭 바부미안도 고기를 끊고 채식 중"이라고 밝혔다.

전력 생산에 있어서도 "우루과이나 브라질 등에서는 90% 이상을 무탄소로 전력을 생산한다. 유럽도 신재생 에너지를 통한 전력 생산률이 점차 증가 중"이라며 "중국과 미국 역시 신재생 에너지를 통한 전력 생산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기후위기, 미래세대에 피해 집중

환경인플루언서 홍다경 지구를 지키는 배움터 공동대표는 '청년이 보는 지구위기와 샛별'을 통해 청년의 시점으로 기후위기 문제를 살폈다.

홍 대표는 "청년세대들이 겪고 있는 병이 있다"면서 기후위기가 자신과 주위 사람들을 비롯해 국가와 인류에게 위기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울감을 호소하는 '기후우울증'을 소개했다. '기후우울증'은 2017년 미국심리학회에서 우울장애의 일종으로 규정했고 WHO에서는 기후우울증의 심각성을 경고했다.

홍 대표는 관련 설문 조사 결과를 소개하기도 했다. 실제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청소년 500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기후위기가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걱정된다'는 청소년이 88%에 달했고, '기후위기 때문에 자녀를 갖는 것을 고민한다'는 응답도 58%에 달했다.

유네스코가 발표한 2021년 '청년이 생각하는 2030년의 세계'에서는 세계 청년들의 61%가 '기후 변화와 생물 다양성 손실'을 가장 우려하는 문제로 꼽았다.

홍 대표는 "기후위기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청소년, 청년 등 미래세대에 집중된다. 그럼에도 청년들은 지구의 미래에 대해서 위기와 희망을 동시에 본다"면서 "1992년 채택된 UN기후변화협약에는 '기후 시스템을 현재와 미래세대를 위해 형평성과 차별화를 바탕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미래세대를 위해 모두가 변화의 주체가 돼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쓰레기 먹는 코끼리를 아시나요

박정훈 KBS 교양다큐2국 책임PD는 '자연 다큐멘터리 PD가 바라본 지구 생태계 위기 : '플라스틱 코끼리'와 대기획 '빙하'를 중심으로'에서 생태계 위기의 참혹한 현실을 영상과 함께 전했다.

박 PD는 2023년 방영한 '플라스틱 코끼리'에서 불교국가 스리랑카 암파라 팔라카두 매립지에서 쓰레기를 주워 먹고 죽어가는 코끼리의 실태를 고발했다. 그는 "쓰레기 매립지에 수거 차량이 오는 시간에 맞춰 코끼리들이 찾아와 쓰레기 음식들을 먹는다"면서 "코끼리가 아무리 영민해도 매립된 음식을 찾아 먹다가 비닐을 같이 먹게 된다. 먹은 비닐이 코끼리의 장을 막아 굶어 죽게 만든다. 1년에 1~2마리의 코끼리가 이렇게 죽어간다"고 밝혔다.

'환경스페셜-불편한 질문'을 통해서는 인도 델리의 쓰레기산의 폐해를 전했다. 1984년 설치된 델리 발스와 매립지는 이미 2002년 용량을 초과했고, 메탄가스로 인해 대기오염·우기 산사태와 대형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쓰레기 매립지 문제가 자국의 쓰레기만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박 PD는 "스리랑카의 경우 자국 내 재활용 처리 시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외국에서 쓰레기를 수입하는 형국이었다"면서 "미국을 비롯해 한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자국에서 처리하지 못한 쓰레기를 약소국에 수출해 떠넘기고 있다. 가난한 국가일수록 인간도 동물도 더욱 환경적 고통을 받는다는 것은 실로 아이러니한 일"이라고 '쓰레기 식민주의'의 현실을 지적했다.

이어 "기후위기 등으로 인해 빙하기, 간빙기의 반복 시스템이 고장난 상황이다. 빠른 기후변화에 인간이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이 사라지고 있다"며 "기후위기여도 지구는 지속된다. 인류만 사라질 뿐"이라고 변화를 촉구했다.

"변화는 3%가 주도한다"

유정길 불교환경연대 공동대표는 '생태위기와 불교적 깨달음'을 주제로 기후위기 시대 불자들의 실천 방안을 소개했다.

유 대표는 현재 기후위기가 20%의 잘사는 사람으로 인해 초래됐음을 분명히 했다. 유 대표에 따르면 세계 인구 중 4.4%(3억5000명)에 해당하는 미국인이 세계 에너지 중 23%를 소비하고 있다. 그는 "부유한 20%가 세계 에너지의 82%를 소비하고 있다. 지구는 가난한 80%로 인해 유지되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는 가난한 이와 미래세대를 담보로 현재의 번영을 누리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사회가 △분리적 사고 △자연무한주의 △피해의 외부화 △인간중심주의 △직선적 시간관 △공공재 소유의식을 가지고 있어 기후위기를 야기했음을 비판하며 이에 대한 전환을 주장했다. 유 대표는 "인간과 자연이 나눠져 있다고 보는 분리적 사고는 모든 것이 연결돼 있는 연기적 사고로, 편익은 자신이 누리고 피해는 가난한 국가와 사람에게 전가하는 '피해의 외부화'는 스스로 책임지는 '책임의 내부화'로 바뀌어야 한다"며 "토지와 자원은 지구의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것을 알고 이를 소유하는 것이 아닌 공유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대표는 '3%의 변화'를 주장했다. 그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실천은 편리한 실천이겠는가 불편한 실천이겠는가"라고 반문하며 "편하게 쌓는 공덕은 없다. 비닐과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으며 스스로 불편해지는 것이 지구를 지키는 행동"이라고 밝혔다.

이어 "바닷물의 소금은 3% 정도다. 사회를 변화하는 데에도 3%의 인구만 있으면 된다. 3%만 바뀌면 세상은 뒤집어진다"면서 "모든 사회적 변화는 한 사람이 시작한다. 한마음선원 대중 스님과 신도들이 변화하면 세상은 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계절발표회에서 이뤄지는 한마음선원 지원 소개는 발표회 주제에 맞춰 '지구를 위한 한마음선원 공생 실천: EM 지구사랑 작은실천'을 주제로 혜눌 스님(지구사랑 작은실천 환경교육사)이 발표했다. 이날 혜눌 스님은 한마음선원 제주지원에서 시작된 EM 활용 과정과 활성화 및 대중화 사업 등을 자세하게 소개했다.

안양본원 주지 혜솔 스님은 마무리 인사말을 통해 사찰 내 비닐 사용과 의류 소비를 줄일 것을 대중들에게 제안했다.

혜솔 스님은 "한마음선원이 불교환경연대가 지정한 녹색사찰이지만 정작 떡 등 공양물을 전하는 과정에서 비닐을 사용하고 있다. 오늘 박 PD님의 발표를 통해 비닐 사용의 문제점을 너무 적나라하게 알게 됐고, 저의 업보를 인식하게 됐다"면서 "한마음선원부터 비닐 사용을 제로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신도들께는 불필요한 의류 구입을 삼가실 것을 제안드린다. 선원에 올 때 좋은 옷을 입고 단정하게 오고 싶은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구입한 옷들만으로도 충분히 단정히 입을 수 있으니 불필요한 구입은 자제해 달라"며 "한마음선원의 대중 스님과 신도들이 다 합쳐도 기후위기를 극복하기는 힘들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변화가 이웃과 국민들에게 전해진다면 세상은 변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끝나지 않은 고통…평화 향해 160km 행진

부산종교인평화회의, 7월 19일 평화순례 첫발

종교계, 피폭 · 해방 80년 맞아
부산시청 출발해 경남 합천까지
불교 · 원불교 등 6대 종단 연대
정산 스님 "전쟁 고통 기억해야"
25일까지 7일간 160km 행진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hasm77@hanmail.net



부산종교인평화회의는 부산시청에서 출발해 경남 합천까지 150km를 걸으며 원폭 피해자의 아픔을 기억하고 생명존중의 가치를 되새겼다.

피폭 80년, 해방 80년을 맞아 종교계가 원폭 피해자의 아픔을 기억하고 생명존중의 가치를 되새기기 위한 평화 도보 순례에 나섰다.

부산종교인평화회의(대표회장 정산 스님)는 7월 19일 부산시청에서 출발해 경남 합천까지 160㎞를 걷는 '2025 생명존중 평화순례'를 진행했다. 순례에는 불교·천주교·개신교·원불교·유교·천도교 등 6대 종교를 비롯해 일본 유키 스님, 미국 청년들, 한국 종교 청년들이 국제 연대로 동참한 가운데 7일간 진행됐다.

출발에 앞서 대표회장 정산 스님은 "전쟁의 상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2세대, 3세대에게까지 이어진 고통에 이제는 우리가 응답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또 "이번 순례는 고통을 기억하고, 잊힌 이들과 함께 걷겠다는 다짐의 발걸음"이라고 그 의미를 전했다.

박동신 주교(성공회 NCCB 공동회장)는 "과거를 기억하는 일이야말로 오늘의 평화를 만드는 길"이라며 "이번 순례가 우리 마음속 평화를 회복하고 나아가 세계 평화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발언을 마친 뒤, 참가자들은 정산 스님을 선두로 본격적인 순례를 시작했다. 길게 늘어선 행렬은 조용한 묵념과 염불 속에서 출발했으며, 각 종교 대표자들과 시민 참가자들은 생명과 평화의 메시지를 품은 첫걸음을 함께 내디뎠다.

1945년 8월,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은 수십만 명의 생명을 앗아갔고, 그 가운데에는 강제 동원된 조선인들도 다수 포함돼 있었다. 이번 평화순례는 단지 전쟁의 희생을 추모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 2세대와 3세대의 고통에 대한 공감과 회복을 중심 주제로 삼았다. 8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원인을 알 수 없는 유전 질환과 차별, 사회적 고립 속에 살아가는 이들 있기 때문이다.

정산 스님은 "전쟁의 상처는 1세대에서 끝나지 않았다"며 "태어날 때부터 고통을 짊어진 채 살아가는 2세대와 3세대의 존재를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외면해 왔다. 이들은 과거의 희생자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 이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는 그 고통에 응답해야 할 때이며, 이번 순례는 침묵과 망각에 대한 참회이자, 연대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평화순례단이 향한 합천은 원폭 피해자 1세대가 가장 많이 거주했던 지역이다. 히로시마에 폭탄이 투하된 당시 조선인 노동자들이 군수공장에서 일하고 있었고, 많은 생존자가 귀국 후 합천에 정착했다. 현재 원폭 피해자복지회관에는 60여 명의 생존자가 머물고 있으며, 160위가 넘는 위패가 안치돼 있다.

순례단은 7월 25일 경남 합천 원폭 피해자복지회관에 도착해 추모공연과 회향의식을 끝으로 평화순례를 마무리했다. 회향 현장에서는 원폭 희생자와 유족들을 위한 위로의 메시지를 담은 공연이 열렸고, 종단 대표자들이 순례의 뜻을 되새기며 평화와 생명존중의 실천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불심과 효심으로 왕실 원찰 의미 되새겨"

용주사, 정조대왕 225주기 기신재

성효 스님 "'효심이 불심'임 실천"

조계종 제2교구본사 효찰대본산 용주사(주지 성효 스님)가 7월 22일 경내 호성전에서 '정조대왕 225주기 기신재(忌晨齋)'를 봉행하며 불심과 효심이 깃든 왕실 원찰의 의미를 되새겼다.〈사진〉

용주사는 신라시대에 창건됐으나 병자호란 등 전란을 거치며 폐사됐다가 조선 제22대 임금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이곳 화산에 능을 이장하고 다시 창건한 사찰이다. 정조는 아버지에 대한 효심으로 절 옆에 '호성전(護聖殿)'을 건립하고, 사도세자의 위패를 모셔 매일 여섯 번의 재를 올릴 만큼 극진한 효심을 실천했다. 이후 호성전에는 정조대왕 본인과 혜경궁 홍씨(경의황후), 정조의 왕비 효의왕후 김씨의 위패도 함께 봉안돼 오늘날까지도 왕실의 효 정신을 잇는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식전 공연으로 전통음악 연주와 살풀이가 펼쳐진 데 이어 주지 성효 스님의 추모사, 주요 내빈의 격려사, 그리고 헌향·헌다와 불교의례에 따른 시식(施食)이 진행됐다. 행사에는 용주사 본말사 스님들과 조승문 화성특례시 부시장, 배정수 시의장, 고민정·문정복·정을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원희 한경대 총장, 조태균 용주사 신도회장 등 사부대중 100여 명이 동참했다.


의례에 따른 시식(施食)이 진행됐다.

주지 성효 스님은 추모사에서 "정조대왕의 정신을 이어받은 우리 또한 이 세상 모든 관계 안에서 효의 덕을 심고, 자비의 물을 길어 올려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행사를 통해 한국불교 속에 내재된 '효'의 가치를 다시 조명하고, '효심이 곧 불심'임을 실천으로 보여주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용주사는 사도세자 추모재와 정조대왕 기신재를 별도로 봉행해 왔으나 내년부터는 두 행사를 통합해 효의 정신을 기리는 문화제로 격을 높일 예정이다.

홍승도 경기남부지사장

범어사성보박물관, 예술로 즐기는 시원한 여름

8월 3일, 작가와의 만남

부채 만들기 체험도 마련

금정총림 범어사 성보박물관(관장 정오 스님)이 여름방학을 맞아 현대미술과 불교문화가 어우러지는 특별한 예술 체험의 장을 마련한다. 오는 8월 3일 오후 1시, 기획특별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大慈大悲'와 연계한 체험프로그램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어사'가 성보박물관 1층 상설전시관 및 교육실에서 열린다.

이번 프로그램은 2025년 박물관·미술관 주간 사업 '뮤지엄×즐기다'의 일환으로 기획된 전시 연계 프로젝트다. 참가자들은 약 90분간 김정주·우징 작가와의 만남을 통해 현대미술의 감각을 체험하고, 예술의 메시지를 직접 느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

특히 시아노타입이라는 고전적 인화 기법을 활용해 '나만의 부채'를 제작하는 예술 체험이 포함돼 있어, 자연광과 재료의 우연한 조합이 만들어내는 예술의 매력을 경험할 수 있다.

시아노타입은 햇빛에 감광되는 종이나 천에 특정 이미지를 인화하는 고전적 방식으로, 이번 체험에서는 이를 통해 부채를 직접 제작해 보는 활동이 진행된다. 뜨거운 태양 아래서 완성되는 부채는 단순한 공예품을 넘어 탄소중립과 환경의 의미를 담은 예술작품으로 재해석된다.


김정주 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프로그램은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범어사 성보박물관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이 가능하다.

올해 5월 개막한 특별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大慈大悲'는 조선 후기부터 근대에 이르는 범어사의 현판을 중심으로 그 안에 담긴 예술성과 역사성을 조명하는 전시다.

관장 정오 스님은 "이번 전시와 프로그램은 범어사의 전통성과 현대 예술의 접점을 통해 깊은 감동과 성찰을 전하고자 마련됐다"며 "폭염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어사를 찾아 역사와 예술, 환경의 가치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세종 물들인 '선명상' 열기…"일상에 쉼표를"

'2025 세종 선명상 축제'

7월 20일, 세 번째 열려

조계종 핵심 종책사업이자 국민행복 프로젝트인 '선명상 대중화' 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2025 세종 선명상 축제'가 7월 한 달간 세종시에서 지역민의 큰 호응 속에 진행되고 있다.

7월 20일, 세 번째 일요일을 맞아 세종 광제사와 세종전통문화체험관에서는 '광제사 마당에 핀 연꽃! 마음을 물들이다'를 주제로 다채로운 명상체험이 이어졌다.〈사진〉

이날 첫 번째 프로그램은 방송 리포터 출신이자 선명상 앰버서더인 조정민 강사의 진행으로 '아로마테라피 명상'이 열렸다. 참가자들은 자신이 선호하는 향을 선택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감정 상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각자가 고른 아로마 오일로 나만의 룸스프레이를 만들어 보면서 일상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명상 습관을 배웠다. 이외에도 '심주 만들기', '핸드팬 소리명상' 등 다채로운 체험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이동익 세종전통문화체험관 차장은 "명상은 누구나 쉽게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마음 관리 도구"라며 "선명상이 세종시민들에게 조금 더 친숙하게 다가가고, 스스로의 내면을 돌아보며 삶의 여유를 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행사의 의미를 밝혔다.

오는 7월 27일 '2025 세종 선명상 축제' 마지막 회차에는 선명상 운영을 총괄하는 금강 스님이 직접 지도하는 '심주명상'이 강연과 명상체험을 겸해 진행될 예정이며, 김현경 앰버서더가 이끄는 '싱잉볼 명상'으로 4주간의 축제가 마무리된다.

홍승도 경기남부지사장

부산시민 소원등 정성으로 취약계층 지원

부산불교연합회, 집수리 위해

한울타리 봉사단에 자재 전달



부산연등문화제에서 시민들이 소원을 담아 연등을 달며 낸 성금이 어려운 이웃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실질적 나눔으로 이어졌다.

부산불교연합회(회장 정오 스님)는 7월 19일 범어사 선문화관에서 '2569 부산연등회 자비나눔 전달식'을 개최했다.〈사진〉

연합회는 이날 주거환경이 열악한 이웃을 위한 집수리 봉사단체 '한울타리 집수리 봉사단'에 1000만원 상당의 자재를 전달했다. 이 기금은 올해 5월 열린 부산연등문화제 소원등 체험에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모은 성금 전액이다.

전달식에는 부산불교연합회장 정오 스님과 사무총장 석산 스님, 사무부총장 동암 스님을 비롯해 연합회 관계자들과 한울타리 봉사단의 권경일 회장, 오성호 사무팀장, 김태훈 현장팀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한울타리 집수리 봉사단은 2004년부터 활동을 시작해 현재까지 450가구 이상을 대상으로 무상 집수리 봉사를 해왔다. 현업 종사자 10명 내외가 기술을 기부하고, 동아대 봉사동아리 '등불' 학생 20여 명이 매월 둘째 주 일요일마다 현장에 함께한다.

정오 스님은 "시민들의 작은 정성이 모여 어려운 이웃을 돕는 자비실천으로 이어진 것은 불교의 공덕 회향을 가장 아름답게 구현한 예"라며 "20년 가까이 현장에서 봉사를 이어온 봉사단의 헌신이 있기에 이 나눔이 더욱 빛을 발한다"고 격려했다.

봉사단을 이끄는 권경일 회장은 "오랜 시간 이어온 봉사지만 때로는 자재나 인력, 체력의 한계로 어려움이 많았다"며 "이처럼 꼭 필요한 시기에 소중한 후원을 받게 되어 정말 감사드린다. 시민들과 불자들의 마음을 담아 더욱 정성껏 봉사하겠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통도사, 백중기도 입재…"욕망 내려놔야"

7월 20일 입재, 매주 법문 이어져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문 스님)는 7월 20일 경내 설법전에서 '불기 2569년 백중(우란분절) 49일 천도기도' 입재식을 봉행했다.〈사진〉

이날 입재식 법사로는 반야암 감원 지안 스님이 법석에 올라, 조상 영가와 무연고 영령의 왕생극락을 발원하며 백중기도의 의미를 되새겼다.

지안 스님은 법문을 통해 "백중은 내 안의 헛된 집착과 분별을 돌아보는 수행의 길"이라며 "마음속 욕망의 온도를 낮추고, 그 마음을 다시 나와 남을 위한 공덕으로 회향하는 시간이 돼야 한다"고 설했다.

통도사 백중기도는 회향일인 오는 9월 6일까지 매주 일요일 오전 9시 30분 설법전에서 봉행된다. 동화사 율주 현진 스님, 통도사 강주 인해 스님, 전 통도사 강주 우진 스님, 구룡사 회주 정우 스님이 차례로 법문을 전하며, 마지막 회향 법석에는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가 법문을 설한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사상경찰서 경승실, 경찰직원에게 보양식

7월 21일, 구내식당에 200인분



부산 사상경찰서 경승실(경승실장 성문 스님)이 초복을 맞아 7월 21일 경찰서 구내식당에서 직원들을 위한 영양식 공양을 마련했다.〈사진〉 이번 공양은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애쓰는 경찰관들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고자 마련됐다.

경승실장 성문 스님은 "오늘 이 공양을 통해 우리 경찰관들의 마음과 몸이 건강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경승실은 경찰조직 안에서 자비와 화합을 실천하는 불자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찰서 직원들은 "요즘같은 폭염에 지치고 힘든데 영양가 있는 공양을 마련해 주는 경승실 덕분에 무더위를 이겨낼 힘을 얻는다"며 깊은 감사를 전했다.

임영섭 사상경찰서장도 "경찰서 구성원들을 위해 늘 따뜻한 관심과 정성을 보내 주시는 경승실에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용호종합사회복지관, 한탑과 '효도DAY'

7월 19일, 500세대에 보양식



용호종합사회복지관(관장 서은해)이 7월 19일 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초복맞이 '효도보양식DAY'를 개최했다.〈사진〉 나눔은 주식회사 한탑(회장 류원기)의 후원으로 이뤄졌다.

이날 복지관은 지역 내 독거노인, 장애인 가정, 소년소녀가장, 한부모 가정 등 500세대를 대상으로 보양식과 국수세트, 빵, 수박, 바나나, 떡 등 여름철 원기 회복을 위한 풍성한 식품 꾸러미를 제공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200세대에는 음식이 식기 전에 전달될 수 있도록 포장해 직접 가정으로 배달했다.

서은해 관장은 "중복과 말복에도 어르신들을 위한 보양식 나눔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태허 대조사 열반 46주기 다례재 봉행

"포교·교육 헌신 근대불교 선각자"
관음종 창종 60주년도 함께 기려
조계산 선암사서 7월 18일 엄수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관음종은 7월 18일 선암사 만세루에서 개산조 태허 대조사 열반 46주기 추모 다례재를 봉행했다.

관음종(총무원장 법명 스님)은 개산조이자 한국 근대불교의 대표적인 선각자인 태허(太虛) 대조사의 열반 46주기를 맞아 추모 다례재를 봉행했다.

이번 다례재는 관음종 창종 60주년을 함께 기념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돼 의미를 더했다.

7월 18일 조계산 태고총림 선암사 만세루에서 봉행된 법회에는 종정 홍파 스님과 총무원장 법명 스님을 비롯한 종단 스님들, 선암사 방장 지암 스님, 전 태고종 총무원장 호명 스님, 선암사 주지 승범 스님과 신도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동참했다.

태허 스님(1904~1979)은 포교와 교육, 사회참여를 실천한 선각자로, 근대 한국불교의 토대를 마련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충청도 출신인 스님은 1919년 경성예비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일본 경동전문학교에서 근대 학문을 수학했으며, 1928년 낙산 묘각사에서 수행을 시작, 중국 상해 법정사에서 구법행을 이어갔다. 귀국 후 묘각사 주지로 활동하며 교육과 포교에 정진했다. 1950년대에는 승려 교육제도 개선과 어린이 백일장 개최 등 대중 포교에 앞장섰으며, 1958년부터는 종로 탑골공원 등지에서 거리설법을 이어가며 '대중 속의 불교'를 실천했다. 또한 초대 선시(禪詩) 강사로 위촉돼 수행과 문학의 접목에도 힘썼다.

종정 홍파 스님은 법어에서 "부처님 인연법으로 만난 오늘의 자리가 얼마나 숭고하고 고귀한지 깊이 새겨야 한다"고 설했다. 이어 "태허 스님의 인연법이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살아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총무원장 법명 스님은 추도사에서 "스님은 전란 속에서도 결코 편한 길을 택하지 않으셨으며, 거리에서 대중을 향해 법을 설하며 시대의 고통에 응답하셨다"며 "그 뜻을 잇는 것은 단순한 전통의 계승이 아니라 오늘의 실천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선암사 방장 지암 스님은 "다례재에 많은 대중이 동참해 감사드리며, 이 인연공덕으로 자비광명이 널리 퍼지기를 바란다"고 인사했다.

전 태고종 총무원장 호명 스님은 "태허 스님은 조선불교에서 종정을 역임한 큰 어른으로, 법화사상과 대중친화적 전법정신을 관음종 후학들이 깊이 새겨 계승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선암사 주지 승범 스님은 "근현대 불교 쇠퇴기에 샛별처럼 등장한 태허 큰스님은 경전 속 진리를 현실로 이끈 개산조로서, 오늘날 관음종의 정신적 뿌리가 되셨다"며 "이번 다례재를 통해 스님의 종지종풍이 더욱 깊이 뿌리내리길 바란다"고 밝혔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광주 동·남구불교協, 팥빙수 나눔

7월 22~23일, 자비신행회와



광주동구불교협의회(회장 중현 스님, 증심사 주지)와 광주남구불교협의회(회장 동진 스님, 광덕사 주지)는 각각 7월 22일과 23일 광주 동구청과 남구청을 찾아 직원들에게 정성껏 만든 팥빙수를 전달했다.〈사진〉 양일간 두 단체는 사단법인 자비신행회와 함께 총 1800인분의 팥빙수를 마련해 공직자들을 격려했다.

22일 동구청을 방문한 동구불교협의회는 회장 중현 스님을 비롯해 명신 스님(연화사 주지), 시공 스님(만경사 주지), 법공 스님(문빈정사 주지), 지장 스님(동원사 주지) 등 회원사찰 스님 및 자원봉사자들과 직원 800여 명에게 팥빙수를 제공했다.

23일에는 남구청에서 팥빙수 나눔이 이어졌다. 남구불교협의회는 회장 동진 스님과 도계 스님(소원정사), 법담 스님(금당사), 상운 스님(흥룡사), 현오 스님(봉덕사) 등 회원 사찰 스님 및 자원봉사자들과 직원 1000여 명에게 팥빙수를 제공했다.

중현 스님은 "폭염과 장마로 지친 공무원들을 잠시나마 위로하고 응원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더운 여름 더욱 힘내어 지역을 위해 애써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동진 스님은 "불교계가 할 수 있는 작은 역할이지만, 앞으로도 이웃과 공직자를 위한 나눔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천안 각원사, 지역 어르신에 보양식 나눔

7월 18일, 아우내은빛복지관서



천안 각원사(주지 지산 대원 스님)가 설립한 아우내은빛복지관(관장 이수경)이 초복을 앞두고 7월 18일 복지관 이용 어르신과 주민 900여 명에게 여름철 보양식을 제공하는 나눔 행사를 열었다.〈사진〉

'더위는 날리고 행복은 한가득'이란 주제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사단법인 천안흑성회(회장 권광희)와 함께 마련됐다. 이날 흑성회 소속 성기만 각원사 신도회장을 비롯한 회원들은 정성껏 준비한 삼계탕과 떡, 수박 등 여름 보양식이 어르신들에게 제공됐다. 각원사 도솔봉사단도 조리와 배식에 직접 참여하며 행사에 온기를 더했다.

각원사 주지 지산 대원 스님은 "어르신들이 보양식으로 기력을 보충해 건강하고 평안하게 여름을 보내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각원사는 지역사회 어르신들을 위한 나눔과 자비 실천에 꾸준히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흑성회 회원들과 도솔봉사단원들은 배식은 물론 음식을 직접 손질하며 어르신들의 식사도 도왔다. 이에 행사에 참석한 어르신들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한마음과학원 '현대사회 마음공부와 치유'

7월 17~19일, 경주 황룡원서



한마음과학원(원장 혜수 스님)은 7월 17일부터 19일까지 2박 3일간 경북 경주시 황룡원에서 '현대사회에서의 마음공부와 치유'를 주제로 조계종 승려연수프로그램을 진행했다.〈사진〉

이번 연수에는 24명의 스님이 참가해 전 과정을 수료했다. 연수는 '현대인을 위한 생활수행과 포교'라는 주제로 현대사회에 맞는 불교의 역할과 포교 방식을 유연하게 대응하고 법회 운영과 생활수행을 현대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스님들의 지도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특히 세대별 신도의 특성에 맞춘 다양한 접근 방법을 통해 불교가 현대인들의 삶 속에서 실천 가능한 수행법을 제시하고, 신도들과의 유기적인 소통과 관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연수과정은 총 5개 강의로 구성됐으며 △제1강 '여는 문&윤회담'(혜찬 스님) △제2강 '대승기신론과 한마음'(청동 스님) △제3강 '커뮤니케이션과 포교'(이화행 교수) △제4강 '화엄세계 I·II'(혜근·혜자·청동·혜벽·혜찬 스님) △제5강 '생활 속의 마음공부: 치유와 성장'(황수경 교수) 등이 진행됐다.

특히 이날에는 시대적 흐름에 맞춘 AI를 활용한 법회 운영 방안이 제시돼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신중일 기자

송광사, 제42주기 취봉 창섭 스님 다례재

7월 22일, 경내 지장전서



조계총림 송광사(주지 무자 스님)는 7월 22일 경내 지장전에서 제42주기 취봉 창섭 스님(翠峰 昌燮, 1898~1983) 추모 다례재를 봉행하고, 송광사 대가람의 기반을 닦은 선지식의 원력을 기렸다.〈사진〉

이날 다례재는 방장 현묵 스님과 주지 무자 스님을 비롯해 사중 스님들과 재가불자, 유가족 등 100여 명이 동참해 스님의 덕화와 가풍을 되새겼다.

취봉 창섭 스님은 1939년 만 42세에 일본 교토 임제대학을 졸업, 교학연찬에 큰 발자취를 남겼다. 귀국 후 송광사 강원 강사로서 후학을 지도하고 교학과 함께 참선 수행에도 전념했다.

스님은 1949년, 1963년, 1970년 세 차례에 걸쳐 송광사 주지를 맡았으며, 특히 한국전쟁으로 송광사가 전소된 후 사찰 복원불사에 헌신하며 현재의 대가람 기틀을 세우는 데 평생을 바쳤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현진 스님, 청주불교방송 사장 취임

7월 18일, 취임 법회 봉행



BBS청주불교방송 제10대 사장에 현진 스님(청주 마야사 주지)이 공식 취임했다.〈사진〉

BBS청주불교방송은 7월 18일 청주 S컨벤션 본관 4층에서 운영위원장 정덕 스님(조계종 제5교구본사 법주사 주지), 충북불교연합회장 도성 스님(태고종 충북교구 종무원장, 자재암 주지)을 비롯해 지역 스님들과 서진영 BBS불교방송 사장, 김영환 충북도지사 등 지역 단체장, 불자와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 법회를 봉행했다.

현진 스님은 취임사에서 "정보화 시대에 불교의 입체적 포교를 위해 설립된 청주불교방송이 올해로 28주년을 맞이했다"며 "앞으로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을 지역사회와 함께 실천하는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창원 안국사, 양산직업재활센터 자비나눔

7월 10일, 후원금 100만원 전달



창원 안국사(주지 영산 스님)가 복날을 앞두고 양산시직업재활센터(원장 홍성표)에 100만원 상당의 후원금을 전달하며 따뜻한 자비나눔을 실천했다.〈사진〉

후원금은 7월 10일 센터에서 근무하는 근로장애인들이 무더운 여름철 건강하고 시원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삼계탕과 아이스크림을 제공하는 데 사용됐다.

홍성표 원장은 "영산 스님의 후원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안국사의 자비로운 나눔 덕분에 근로장애인들이 활력을 되찾고 무더위를 이겨낼 힘을 얻었다"고 감사의 뜻을 밝혔다.

영산 스님은 "지역사회에서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하는 자리가 많아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세계불교 마하 평화상' 시상식

9월 17일, 하림각서 개최



세계불교법왕청 중앙정부(총재 목탁 스님)가 9월 1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HW컨벤션센터 하림각에서 '2025 세계불교 마하 평화상 시상식'을 개최한다.

'세계불교 마하 평화상'은 전세계 불자 중 지구촌 빈곤 타파, 중생 구제, 의료 복지활동 등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실천한 이들에게 수여하는 국제적 불교상이다.

수상자에게는 세계불교법왕청 중앙정부의 인증이 부여되며, 향후 세계 불교계 지도자로서의 길을 함께하게 된다.

세계불교법왕청 중앙정부는 "이상은 매우 성스러운 성자 중에서도 '첫 번째로 승려로서의 의미와 자격을 갖춘 인물'에게 수여된다"며 "특히 봉사와 인류애 실천, 불교 이념 구현 등에 공로가 있는 인물을 발굴해 그 공덕을 기리고자 제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상자는 단순한 공로자가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삶으로 옮긴 이들로, 세계 불교의 모범"이라고 강조했다.

세계불교법왕청 중앙정부는 그동안 세계불교 마하 평화상 수상자 시상을 비롯해 세계불교국제포럼, 캄보디아 왕실 방문과 고승 접견, 세계평화대법회, 장학금 수여, 자선공연 등 다양한 국제 불교활동을 펼쳤다. 또 의료구호활동을 비롯해 라오스와 캄보디아, 베트남 등 아시아 각국의 포교 활동도 활발히 전개해 왔다.

이러한 활약은 단순한 시상식을 넘어, 세계불교법왕청이 추구하는 평화와 자비의 이상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계기가 되고 있다.

시상식은 사전에 초청된 인원만 참석 가능하며, 불자 추천 및 접수는 전화(010-3618-6061) 또는 이메일(moktak1@naver.com)을 통해 가능하다. 행사 후에는 세계불교법왕청 중앙정부에서 주관하는 다양한 포교 및 평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노덕현 기자

완주 송광사, 도예 템플스테이 개최

7월 19~20일, 송광사·봉강요서



완주 송광사(주지 법진 스님)는 7월 19일과 20일 송광사와 도자복합문화공간 봉강요에서 '명장 진정욱 작가와 함께하는 여름 특별 템플스테이'를 개최했다.〈사진〉

'흙과 어우러지는 시간'을 주제로 열린 이번 템플스테이는 송광사가 지역사회와 연계해 마련한 것으로, 도자 명장 진정욱 작가의 참여로 그 의미를 더했다.

19일 14명의 참가자들은 송광사에서 사찰 예절을 배우고 가람 배치와 성보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불교문화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저녁예불과 사찰음식 공양, 걷기 명상 등을 체험했다.

이어 20일 완주 소양면에 위치한 봉강요에서 진정욱 작가 도자 작품을 감상한 후 직접 흙을 만지고 도자기를 빚는 체험을 했다.

한편, 완주 송광사는 오는 8월 23~24일, 9월 27~29일에도 도예 템플스테이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안성시노인福, 초복 맞아 특식 나눔

7월 18일, 950명 어르신 대상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직영 안성시노인복지관(관장 가섭 스님)은 7월 18일 초복을 맞아 관내 어르신을 대상으로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특식 나눔행사'를 마련했다.〈사진〉

복지관 본관(안성시)과 분관(공도읍)에서 동시에 진행된 이번 행사는 공간 여건상 인원을 제한했음에도 총 950명의 어르신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복지관은 이날 정성껏 준비한 영양식을 나누며 어르신들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했다.

복지관은 특식인 해신탕을 비롯해 떡, 수박, 식혜, 팝콘 등 간식류도 제공해 어르신들의 기력을 북돋았다. 특히 자원봉사자와 어르신 일자리 참여자들도 나눔 활동에 동참해 '함께하는 돌봄'의 의미를 더했다.

관장 가섭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어르신 한 분 한 분을 부처님처럼 여기며 섬기는 것은 수행의 일환"이라며 "복지의 현장에서 불교의 자비정신이 살아 숨 쉬도록 최선을 다하고, 어르신이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소외되지 않도록 우리 복지관이 불교복지의 모범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안성시노인복지관은 올해부터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직영 운영을 맡은 후 현재 약 8800명의 어르신이 등록돼 있다.

안성=홍승도 경기남부지사장

“우리 스스로 ‘복밭’이 됩시다”

〈福田〉

특별인터뷰

자비를 나르는 수레꾼
박세동 회장 · 오시환 대표

2008년부터 캄보디아 국경村
‘뽀디봉’ 주민들 자립 일궈내
학교 · 우물 등 기반시설 구축

16년 동안 한 곳만 집중 지원
‘强小’ 국제구호NGO 선 사례
제40회 불이상 실천분야 수상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현대불교신문에서 만난 오시환(사진 왼쪽) 대표와 박세동(사진 오른쪽) 회장. 두 사람은 자비를 나르는 수레꾼을 반석 위에 올렸다.

캄보디아는 공산당 무장 군사조직 크메르 루주가 1975~1979년 약 4년간 통치하며 170만 명의 국민을 학살한 아픈 역사를 갖고 있다. 크메르 루주의 통치기간 동안 가족은 해체되고 이어진 정책 실패로 국가 산업 전반이 붕괴됐다. 우여곡절 끝에 국가운영이 정상화되자 캄보디아 승왕 뗍봉 스님은 전국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는 화전민과 항복한 군인들이 가족과 함께 정착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주려 했다.

정부와의 협상 끝에 뗍봉 스님은 태국과의 국경지대에 토지를 100년간 임차조건으로 불하받았고 이곳에 화전민과 항복 군인들을 정착시켰다. 주민들은 자신들의 마을 이름을 뗍봉 승왕 이름 사이에 ‘보디(깨달음)’를 넣어 ‘뗍-보디-봉’이라고 지었고, 현재는 이를 줄여 ‘뽀디봉’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시작된 뽀디봉 마을에는 처음에 아무 것도 없었다. 물도 전기도 학교도 병원도. 승왕의 자비는 하해와 같았지만, 이를 담아 움직일 수레가 없었다. 2008년 수레가 찾아온다. 저 멀리 동쪽 나라 한국에서. 이는 ‘자비를 나르는 수레꾼(이하 수레꾼)’이 자비행을 펼치고 있는 캄보디아 뽀디봉 마을의 소사(小史)다.

수레꾼은 2008년 뽀띠봉 초등학교 건립을 시작으로 16년 동안 오직 뽀디봉 마을 한 곳에서 주민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했다. 이 같은 공로가 인정돼 수레꾼은 7월 20일 제40회 불이상 실천 분야를 수상했다. 사무국장으로 시작해 현재 3대 대표로 수레꾼을 이끌고 있는 오시환 대표는 시상식에서 “지난 16년간의 활동을 통해 캄보디아 뽀디봉 마을에는 이제 판잣집이 없고, 주민들이 자립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며 “최근에는 전기가 들어와 공예학교를 지었고, 앞으로 생산과 유통을 통해 마을의 산업 수준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카피라이터→요리사→수레꾼

오 대표는 원래 잘나가는 카피라이터였다. IMF로 인해 회사를 그만두고 요리사로 전업해 서울 종로에 한식음식점을 개업했다. 이 역시 입소문을 타고 성황을 이뤘다. 하지만 오 대표는 음식점도 정리하고 봉화로 내려가 농사를 지으며 수레꾼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수레꾼의 국제구호사업은 2010년부터 시작했다.

“수레꾼 1대 대표인 남지심 작가에게 활동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2008년 뽀디봉 마을에 초등학교를 세웠지만 이후 여러 부침이 있었더군요. 당시 니르바나필하모닉오케스트라 후원회장으로 활동하던 때라 고사를 했는데, 캄보디아 여행 당시 봤던 아이들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학교에 가지 못하고 합장하고 구걸하던 모습의 아이들이요. 그래서 수레를 함께 끌어보자 마음먹었죠.”

수레꾼 사무국장으로 활동하면서 시작한 것이 학교를 비롯해 마을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그중 가장 시급한 것은 물이었다. 마실 물을 구하기 위해 4시간을 걸어가고, 이렇게 구한 물도 침전시켜야 하는 상황이었다. 수레꾼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뽀디봉 마을 곳곳에 37개의 우물을 파서 식수와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문맹 탈출을 위해 초등학교를 지었지만 이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쓰고 읽을 수 있게 됐으니 이제는 상급학교 진학이 필요했다. 캄보디아에서도 초등학교 졸업장으로는 양질의 일자리를 얻기는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래서 수레꾼은 2012년 ‘수레꾼 뽀디봉 중학교’를 세웠고, 직업기술교육을 위해 2024년 ‘수레꾼 뽀디봉 공예학교’를 건립했다. 매년 15명의 장학생을 선발해 지원하고 이들이 뽀디봉으로 와서 봉사활동을 하는 장학사업도 2012년부터 이어지고 있다.

“초등학교에 이어 중학교-공예학교를 세운 것은 자립을 위해서입니다. 배움을 통해 스스로 나아갈 방향을 찾는 것이죠. 지난해 개교한 수레꾼 공예학교의 경우 올해 목공예반 5명, 봉제반 10명으로 총 15명이 관련 전문 기술을 배우고 있어요.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다들 솜씨가 일취월장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부인과 동행길이 수레꾼 회장으로

오 대표가 사무국장을 맡아 열심히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최고의 조력자는 2대 대표를 맡았던 박세동 현 수레꾼 회장이다. 한국 주물업의 대가인 박 회장은 부인 서필교 보살을 따라 수레꾼 자비행 현장을 찾았다가 인연이 됐다. 박 회장은 2011년 대표로 취임한 뒤 지난해까지 사업을 진두지휘하며 수레꾼을 반석 위에 올려놓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

“부인이 사실상 스님과 같은 생활을 해요. 집에서 멸치도 먹지 않아요. 그런 부인이 캄보디아에서 자원봉사를 한다니까 걱정돼 보디가드를 자처하고 현장에 갔죠. 거기서 오 대표를 만났어요. 봉사자 대부분이 여자 회원이어서 적적했는데 곡차를 함께 하면서 친해졌죠.”

직업기술학교를 세우려고 했던 것도 기술인으로서 박 회장이 가진 신념이 작용했다.

“처음에는 공예학교는 아니었고, 한국의 공업·상업고등학교 같은 교육기관을 만들려고 했는데 살펴보니 여러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공예학교를 시작했는데, 아주 잘 결정한 것 같아요.”

박 회장과 오 대표는 공예학교 학생들의 작품이 한국에 소개될 수 있도록 내년 전시회를 기획 중이다. 불이상 시상식 후에도 인사동 화랑들을 돌며 전시장을 알아봤다. 이렇게 캄보디아 오지 학생들의 자립 기반을 수레꾼은 만들어가고 있었다.

“한국의 국제구호NGO들은 여러 사업을 동시다발적으로 전개하려 합니다. 수레꾼은 뽀디봉 한 곳의 자립 기반이 완전히 구축될 수 있도록 사업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규모가 작은 NGO가 사업을 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해요.”(오시환 대표)

박 회장과 오 대표 모두 인생의 후반부에서 자비를 담아낸 수레를 밀고 끌며, 캄보디아 오지에 부처님 자비를 전하고 있다.

해외불교는 지금

1500년 전 中 불상에 낙서 ‘복원불가’

SNS에 공개돼 보호 논란
불상 2차 훼손 방지에 중점



사문탑에 봉안된 불상의 상호에서 발견된 낙서. 사진 출처=차이나 레코드

최근 중국 산둥성 제남시의 7세기 불탑 내에 봉안된 불상의 상호에서 낙서가 발견돼 논란이 일고 있다. 7월 20일 중국의 소식을 전하는 ‘레코드 차이나’는 의도적으로 낙서가 된 불상의 소식을 상세보도했다.

산둥성 제남시에 소재한 사문탑(四門塔)은 중국에서 최초로 건립된 누각식 석탑으로 알려져 있다. 동서남북의 4면 벽에 입구가 있고 각각 내부에 불상이 안치되어 있어 사문탑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조성시기에 다양한 설이 있었으나 학술 조사를 통해서 수나라 때인 611년에 조성됐다는 비문이 발견됐다. 그러나 봉안된 불상은 그보다 더 오래된 544년에 조성했다는 기록이 나오면서 1961년 불상과 탑 모두 중국의 국보에 해당되는 전국중점문물보호단위로 지정됐다.

그러나 최근 사문탑을 방문한 사람들이 불상의 상호에 칼로 새긴듯 한 낙서가 있다고 SNS 등에 게재하면서 문화유산 보호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SNS에 공개된 사진 속 불상 상호에는 ‘산둥성 측회국(측량국) 15인’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다.

현지 관리처는 “해당 낙서는 간자체로 쓰여졌고, 측회국이라는 조직 역시 과거에 존재했던 부서인 점에서 오래전에 새겨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불상의 복원을 위한 작업이 오히려 2차적으로 불상을 손상시킬 수 있다는 중론에 따라 현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현재는 부지를 둘러싸고 감시카메라를 설치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티베트 불교학자, 프랑스 최고훈장 수훈

닥포 린포체, ‘레지옹 도뇌르’ 받아
“문화 간 대화로 프랑스 풍요롭게”



티베트인 최초로 레지옹 도뇌르 훈장을 받는 닥포 린포체와 레지옹 도뇌르 훈장 기사장. 사진 출처=파율

프랑스에 거주하는 저명한 티베트 불교학자인 닥포 린포체가 프랑스의 최고 국가 공로 훈장인 ‘레지옹 도뇌르’ 훈장을 수훈한다. 인도의 티베트 전문매체 ‘파율’은 지난 7월 16일 프랑스 정부의 발표를 인용해 수훈 소식을 보도했다. 이로써 닥포 린포체는 티베트인으로서는 최초로 ‘레지옹 도뇌르’ 훈장 수훈자가 됐다.

7월 13일 프랑스 정부 공보에 발표된 공식 칙령에 따르면 닥포 린포체는 ‘레지옹 도뇌르’ 훈장의 제5위인 기사장(Chevalier)을 수여받는다. ‘레지옹 도뇌르’ 훈장은 1802년 나폴레옹이 제정한 이래 프랑스의 각 분야에 뚜렷한 공로가 인정된 프랑스인 혹은 외국인에게 수여된다.

총 5등급으로 나뉘는 이 훈장의 수훈자는 윈스턴 처칠, 넬슨 만델라 등이 있으며 한국인 가운데는 조중훈 한진그룹 초대회장, 이건희 전 삼성회장 등이 있다.

프랑스 정부는 닥포 린포체에게 훈장을 수여하는 이유로 “티베트 불교 철학을 보존 및 증진하며 문화 간 대화를 진작하고 학문적, 정신적 노력을 통해 프랑스 사회를 풍요롭게 하는 데 수십 년간 헌신해 온 그의 공로를 기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서양 철학자와 동양 승려의 만남
피터 싱어, 불교와 만나다
서로 다른 전통과 언어, 문화적 배경을 가진 두 사상가가 세계가 당면한 다양한 사회문제와 윤리문제에 대해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한 비전을 공유한다.
피터 싱어 · 스자오후이 지음, 정환희 옮김/신국판/284쪽/값 20,000원

생전예수재 여법하게 지내기!
예수재의범
『예수시왕생칠재의찬요』, 『석문의범』, 『요집』, 『수생경』, 『시왕경』, 『영산대회작법절차』, 『오종범음집』 등 각종 의식문을 참고하여 정리한 생전예수재 의식 절차 및 의식문!
편집 해사/사륙배판/양장/276쪽/값 25,000원

간단하고 직접적인 불교명상 안내서
통찰의 체험
현대 명상 지침서 가운데 가장 쉽게 읽을 수 있는 최고의 책이다. 수십 년 전에 출간되었지만 명상을 배우는 사람에게 여전히 신선하고 살아 있는 안내서 역할을 한다.
조셉 골드스타인 지음, 이재석 옮김/신국판/248쪽/값 18,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한류·K팝의 뿌리는 불교 악가무”

〈樂歌舞〉

윤소희 대우교수, ‘한국불교사연구’서 주장

범어 등 ‘소리글자’ 전래되며
한반도 음악 등 역동성 영향
‘강강수월래’ 장엄염불 원형
조선代 사찰 불교 악가무들
유랑예인 연희돼 K팝 밑거름



넷플릭스 애니메이션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 등장하는 보이그룹 ‘사자보이즈’.
사진 출처=넷플릭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현재 세계 음악시장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장르는 단연 ‘K팝’이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주인공 걸그룹 ‘헌트릭스’의 노래 ‘골든’은 빌보드 핫100에서 4위를 기록하는 기염을 보였다. 이처럼 전 세계인이 열광하는 ‘K팝’의 뿌리가 불교 악가무(樂歌舞)에 있음을 조명하는 연구논문이 발표됐다.

윤소희 동국대 한국음악과 대우교수는 한국불교사학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 〈한국불교사연구〉제27호에 게재한 ‘한류와 K팝의 뿌리 불교 악가무’를 통해 한국불교의 악가무가 한류의 뿌리가 됐음을 불교음악사를 통해 고찰했다.

윤 대우교수에 따르면 불교와 함께 서역음악이 중국에 전래되며 중국문화 전반에 유연성을 더했다면, 한반도에 도래한 불교는 범어와 같은 소리글자를 전하며 음악과 춤이 지닌 역동성의 기폭제가 됐다.

삼국시대에 들어온 불교는 고구려, 백제, 신라의 음악에 영향을 미쳤다. 특히 통일신라 고승 원효 스님의 ‘무애가’는 귀족부터 밭가는 노인까지 유행했을 정도(〈파한집〉)로, 이는 한국 민요에도 영향을 줬다.

윤 대우교수는 “세계 민요는 주로 독창이나 합창으로 불리는 데 반해 한국 민요는 메기고 받는 형식을 가진다. 이 같은 한국인의 기질은 세계 유명 뮤지션이 감동하는 ‘코리아 떼창’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고려 국가 제례에 활용되던 불교 악가무는 숭유억불시대인 조선에 와서 세속화되며 민간으로 스며들었다. 윤 교수에 따르면 보렴이나 상여소리 등 민간의 축원과 발원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보렴은 탁발염불 중 보시염불을 원형으로 하며, 상여소리도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등이 후렴으로 메기고 받는다.

민요 ‘강강술래’도 불교를 원형으로 한다. 윤 대우교수는 “강강술래는 고려시대 수월관음도와 연결되는 장엄염불이 시원”이라며 “이는 관음보살의 현현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불교를 원형으로 하는 판소리 역시 존재한다. 대표적인 것이 판소리 ‘심청가’로, 그 원형은 전남 곡성 관음사 창건설화 ‘원홍장 이야기’다.

또한 불교의 사물의식과 사물놀이의 연결성도 주목했다. 윤 교수는 “세계적 사물놀이패를 이끈 김덕수는 사당패 일원이었던 아버지를 따라 5살 때 ‘새미’라는 무동(舞童)으로 데뷔했는데, 자신이 만든 사물놀이의 원류가 사찰의 사물이라고 한 바 있다”면서 “불교의례에 수반되던 제반의 악기무가 걸립패, 사당패와 같은 유랑예인들에 의해 민중화 돼 오늘날 한국 대중문화의 토양이 됐다”고 밝혔다.

고운사 연수전·가운루 정밀수습 완료

국가유산청 지정유산 3건
목부재 등 고운사에 인계
경각심 일깨울 자료 활용



정밀수습조사가 진행된 후의 고운사 연수전(보물) 모습.

지난 3월 발생한 대형 산불로 전소된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 고운사 연수전·가운루에 대한 정밀수습이 완료됐다.

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경북지역 산불 재난으로 인한 국가유산 피해 조사와 전소된 국가지정문화유산 3건(보물 2건, 국가민속문화유산 1건)에 대한 정밀수습조사를 최근 완료했다”고 7월 21일 밝혔다.

이번에 조사된 지정유산은 보물 고운사 연수전·가운루와 민속유산 청송 사남고택으로 각각 6월 9일부터 20일까지, 5월 6일부터 9일까지 정밀수습조사가 이뤄졌다.

이번 정밀수습조사를 거쳐, ‘의성 고운사 연수전’의 부재 283점(목부재 2점·철물 206점·기와 75점), ‘의성 고운사 가운루’의 부재 269점(목부재 113점·철물 151점·기와 5점)을 의성군과 고운사에 인계했다. ‘청송 사남고택’의 부재 72점(목부재 13점·철물 43점·기와 14점·기타 2점)은 청송군에 인계했다.

국가유산청은 “이번에 수습된 부재는 향후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전시와 교육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정밀수습조사는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경상북도, 청송군, 의성군이 사전조사부터 수습(현장)조사까지 협력해 진행됐다. 수습한 부재와 조사결과를 청송군, 의성군과 고운사에 인계한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은 지난 산불로 피해를 본 다른 시도지정문화유산에 대한 수습조사도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수행기관들을 대상으로 현장 교육도 실시했다.

국가유산청은 “산불 피해로 인한 잔해물 정리와 문화유산 복구를 위한 긴급보수비 27억원을 해당 지자체에 지원하고 ‘의성 고운사 연수전’ 등 산불 피해 문화유산의 복구를 위한 설계를 시행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소유자, 지자체,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고증절차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세부 복구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산불로 전소된 국가지정문화유산 3건에 대해서는 관계 전문가의 현장 조사 및 논의를 거쳐 문화유산위원회에서 지정 해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신중일 기자



법인 스님의 **문자반야**

④ 일체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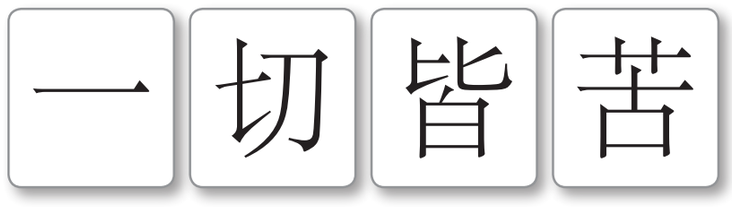
억지로 삶을 긍정하려 하지 마라

‘인간이 모두가 팔십을 산다고 해도 / 병든 날과 잠든 날 걱정 근심 다 제하면, 단 사십도 못 산 인생 / 아차 한 번 죽어지면, 북망산천의 흙이로구나.’

이는 단가 ‘사철가’의 한 대목으로, 생로병사 인생의 덧없음과 고통을 노래한다. 삶의 허무와 고통을 깊이 통찰한 붓다는 이를 제행무상(諸行無常), 일체개고(一切皆苦)라 정의했다.

모든 종교는 공통적으로 괴로움에서의 해방을 말한다. 예를 들어 마르코복음은 이렇게 말한다.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여기서 ‘하느님의 나라’는 억압과 차별이 없는 세상을 뜻한다.

불교 역시 열반과 해탈, 극락왕생을 통해 고통 없는 삶을 추구한다. 하지만 붓다는 복된 삶에 앞서, 괴로움[苦] 그 자체를 분석했다. 이 때문에 불교가 염세적이라고 오해받기도 하지만, 실상을 외면한 채 맹목적 희망을 강조하는 것은 정직하지 못하다. 괴로움은 엄연한 현실이며, 그것에 대한 진단 없는 처방은 위험하다. 수행자라면 반드시 ‘고(苦)’와 먼저 마주해야 한다.



그렇다면 괴로움이란 무엇인가? 붓다는 태어남, 늙음, 병듦, 죽음이라는 존재의 고통과 불안, 결핍, 불만족 같은 일상의 실존적 고통을 함께 말했다. 인간은 오온(몸·느낌·관념·의지·식별 작용)으로 이루어진 존재이며, 이 구조 자체가 불안정하다고 보았다.

〈디가 니까야〉는 말한다.

“비구들이여, 우리는 이렇게 원한다. ‘참으로 그 태어남, 늙음, 병듦, 죽음이 우리에게 오지 않기를!’ 그리고 ‘참으로 근심, 탄식, 육체적 정신적 고통, 절망이 우리에게 오지 않기를!’ 그러나 이렇게 원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이것이 괴로움이다.”

존재의 생성과 소멸, 불안과 불만족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실존의 한계이며, 괴로움의 본질이다.

그렇다면, 이 괴로움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외모를 가꾸고 생명을 연장하는 것으로, 혹은 쾌락과 소유로 결핍을 채우는 것으로 괴로움이 사라질까? 이 모든 고통을 운명이라 여기고 체념하고 살아야 할까?

불교는 사성제(四聖諦)를 통해 길을 제시한다. 괴로움의 실상을 정확히 보고 받아들여라. 그 원인이 갈애와 무지에 있음을 깨달아라. 그리고 일상에서 팔정도(八正道)를 실천하라. 그러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괴로움을 피하지 마라. 괴로움은 적이 아니라, 내 곁에 찾아온 이웃이자 벗이다. 기꺼이 맞이하라.

〈화순 불암사 주지〉

유홍준 관장 “박물관, K-컬처의 뿌리”

국박 7월 21일 취임식 개최



신임 국립중앙박물관장에 유홍준 명지대 미술사학과 석좌교수〈사진〉가 취임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7월 21일 박물관 소강당에서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취임식에서 유 관장은 박물관이 K-컬처의 근본임을 강조했다. 유 관장은 “시대가 박물관에 요구하는 것도 변화하고 증대해 오늘날에는 급기야 우리에게 K-컬처의 뿌리가 여기에 있음을 국민들에게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고 있다”며 “저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가 강렬히 일어나고 있는 시점에 여러분들과 함께 일하게 된 것을 한편으로는 기쁘게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무거운 사명감을 갖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박물관의 3대 구성요소는 유물, 건물, 사람”이라며 “박물관이 대국민 서비스 기관임을 잊지 말고 항시 친절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중일 기자

화제의 신간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3일 기도

3일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삶의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책!
실천 가능한 기도의 방식과, 수행의 가치를 알기 쉽게 설명한 책!



“기도는 마음을 변화시키고 행복으로 이끄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기도는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수행의 첫걸음입니다.
‘수호신 기도’는 그 시작을 돕기 위해 집필된 책입니다”



수호신 기도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3일 기도
묘장 편저 | 112쪽 | 10,000원

현재 연화사 주지. 국제구호단체 더프라미스 이사장,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이사, 불교신문 논설위원. 아이티 대지진, 동일본 대지진, 태국 대홍수, 네팔 대지진, 포항 지진, 모로코 지진에 재난구호활동과 우크라이나 전쟁난민 지원 활동을 하였다.
저서로 『도표로 읽는 부처님 생애』가 있으며, 나는 절로 초계종사회복지재단 대통령상 수상(2024),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어워즈 대상을 수상(2024)하였다.

민족사 02)732-2403~4 | www.minjoksa.org

“진정한 화합은 참회서 시작…화해의 길로”

특별인터뷰

관음종 종정 영산(靈山) 홍파(泓坡) 스님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해마다 기리는 광복절이지만, 올해 80주년을 맞는 감회는 남다를 수밖에 없다. 일제가 남긴 아픔이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 깊은 상처로 남아 있고, 과거사 청산도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이다. 한일 양국은 공식 수교 후 지난 60년 동안 문화·민간 차원의 교류로 우호를 다져왔지만, 역사 문제만큼은 아직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한일불교 교류에 앞장서 온 관음종 종정 영산 홍파 스님은 ‘강제 징용 희생자 유골 환국’을 양국 역사 문제 해결의 단초로 보고, 화해의 길을 모색해 왔다. 7월 21일 광복절을 앞두고 만난 홍파 스님은 “진정한 상생과 화합은 과거사에 대한 참회와 용서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한일불교 교류의 시작과 확장

홍파 스님이 일본불교와 교류를 시작한 건 1980년대 초반이다. 당시 일본 불교계는 폐쇄적이었고 낯선 이들에 대한 경계심도 컸다. 그럴수록 스님은 일본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려 애썼고, 수차례 일본 사찰의 문을 두드리며 마음을 전했다. 스님의 진심에 일본 불교계도 마음을 열어 자연스레 교류의 물꼬가 트였다. 그 결과 1976년 한일불교교류협의회 준비위원회가 발족했고, 1977년 10월 한일불교교류협의회(현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가 공식 출범했다.

–한일불교 교류가 왜 필요하다고 생각했나?

“한중일 삼국은 대승불교권으로, 역사적으로 1000년 넘는 관계가 이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갈등도 적지 않았지요. 국민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는 불교가 먼저 길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불교는 종교를 넘어 사회문제 해결과 문화적 화합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출범 이후 어떤 변화가 있었나?

“1977년 이전에는 양국이 친선 방문 수준에 그쳤지만, 한일불교교류협의회가 출범하고 1983년부터 본격적으로 학술 세미나와 교류가 시작됐습니다. 과거사 해결을 위한 의미 있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2005년 수덕사에서 열린 제26차 대회에서 일본 대표였던 미야바야시 쇼겐 스님이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참회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2008년에는 일본 우천사에서 양국 합동으로 ‘한국 출신 전몰자 유골 송환 위령재’를 봉행하고 우천사에 안치되어 있던 유골 10위를 조국으로 송환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2009년 여주 신륵사에서 열린 제30차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에서는 과거를 인정하고 참회하는 비석이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조선인 유골 환국 사업’ 종책 선언

홍파 스님은 일본 불교계와의 꾸준한 교류를 통해 일본 사찰에 강제 징용 희생자 유골이 안치된 사례가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스님은 2015년 관음종 창종 50주년을 계기로 ‘조선인 유골 환국 사업’을 종책으로 공식화했다. 한두 해의 노력으로 해결될 일이 아닌 만큼, 종단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사업을 이어가자는 취지였다.

–유골 환국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2017년부터 진언종 평간사, 정토종 광명사, 임제종 건장사, 천태종 원만사 등 일본 주요 종단을 찾아 일제강점기 강제 징용 희생자 유골 환국을 위한 합동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일련종 본문사에선 태평양전쟁 희생자 위령탑을 참배하고 위령재를 올렸습니다. 2018년에는 강제 징용자 816기의 유골과 위패가 봉안된 홋카이도 삿포로시 약왕사를 찾아 ‘홋카이도 무명 희생자 추모비’를 참배하고, 중앙사에서 조동종 스님들과 ‘일제강점기 강제 징용 희생자들을 위한 합동 추모재’를 열기도 했습니다.”



한일불교 교류에 앞장서 온 관음종 종정 영산 홍파 스님은 올해 광복 80주년을 맞아 양국의 화합과 강제 징용 희생자 유골의 환국을 기원했다.



그간 일본 불교계에서 보내온 편지를 보여주고 있는 홍파 스님.



홍파 스님이 올해 5월 조세이탄광 희생자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헌화하는 모습.



2018년 약왕사를 찾아 ‘홋카이도 무명 희생자 추모비’를 참배했다.



올해 5월 열린 일제강점기 조세이탄광 수몰사고 83주기 희생자 위령재.

창종 60년 · 한일수교 60년 맞는 관음종
‘강제 징용 희생자 유골 환국’ 종책 사업으로
인식 확산·유골 봉안 실태 점검 ‘성과’
17년부터 조세이탄광 수몰사고 위령재 봉행
유골 수습 첫발…“고국에 모시는 그날까지”

–사업의 의미와 성과를 평가하자면?

“강제 징용 희생자 유골을 조국으로 모셔 와야 한다는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는 데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다수 언론보도를 통해 인식이 확산됐고 일본 각 종단에서도 유골 보관 실태를 다시 점검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역사 인식에 관해 일본 종단들과 의미 있는 대화를 시작할 수 있었다는 점도 큰 성과라 생각합니다.”

조세이탄광 수몰사고 희생자 위령재

조세이탄광 수몰사고 희생자 위령재는 관음종의 대표적인 조선인 강제 징용 피해자 추모사업이다.

1942년 2월 3일,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의 해저 탄광 ‘조세이(長生)탄광’에서 발생한 갱도 붕괴로 조선인 136명과 일본인 47명 등 총 183명이 수몰됐다. 한일 불교계가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진 건 2015년 히로시마에서 열린 한중일불교우호교류대회였다. 당시 대회에 참관한 히로시마 총영사가 한국불교계에 위령재 봉행을 요청했고, 이듬해인 2016년 1월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현지 첫 위령재를 열었다. 이후 2017년부터는 관음종이 책임을 맡아 현재까지 매년 위령재를 봉행하고 있다.

관음종은 일본 시민들로 구성된 ‘조세이탄광 수몰사고를 역사에 새기는 회(이하 새기는회)’와도 협력해 추모비 조성, 유족 찾기, 유골 발굴 등 다양한 활동을 함께하고 있다. 새기는회는 지난해 9월에는 마침내 수몰된 갱도 입구를 발견하고, 현재는 붕괴된 철관과 목재를 제거하며 유골 수습을 위한 본격적인 현장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그간 일본 정부는 조세이탄광의 수몰 위치가 분명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정부 차원의 조사는 어렵다는 입장이었지만, 최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유골 발굴 작업에 대한 정부 지원 검토를 지시했다.

–활동에 가장 어려운 점은?

“바다 깊은 곳에 묻혀 돌아오지 못한 분들을 생각하면, 그 마지막 순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가슴이 저립니다. 희생자들을 조속히 고국으로 모셔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껏 활동해 왔습니다. 매년 위령재 동참 인원이 늘고 갱도 입구를 발견하는 성과도 있지만, 유골 수습에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시민단체와 종단의 힘만으론 한계가 있어요. 유골 수습을 위해선 일본 정부의 전향적인 지원과 한국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이 꼭 필요합니다.”

–최근 일본 정부가 유골 발굴 지원을 검토 중인데?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이는 새기는회를 비롯한 시민사회와 관음종의 묵묵한 노력의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일을 시작하면서부터 유골이 고국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절대 멈추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낙숫물이 바위를 뚫듯 지금처럼 계속해 나가면 일본 정부도, 한국 정부도 결국 움직일 것이라 믿습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불자들에게 한 말씀

“우리 불자들이 자기 수행에만 집중하기보다 국민에게 희망과 위로를 줄 수 있는 사회적 역할도 해야 합니다.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은 우리 모두의 역사적 과제입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처럼 함께하면 반드시 변화가 올 것입니다. 해방 80년을 맞아 사회적 자비행의 정신이 계속 이어지길 바랍니다.”

아직 광복을 맞지 못한 이들을 기억합니다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 기리는 ‘나눔의집’

설립 후 30년간 불교계 헌신으로 운영

광복절 하루 전인 8월 14일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이다. 김학순(1924~1997) 할머니가 처음으로 피해 사실을 증언한 날로, 2017년 국가기념일로 제정됐다. 광복 80주년을 맞은 올해, 경기도 광주에 자리한 나눔의집에는 여전히 치유되지 않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상처가 조용히 숨 쉬고 있다.

나눔의집은 1995년 국내 유일의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 할머니들의 보호시설로 문을 열었다. 개원 당시 15명의 할머니가 거주했으나, 2025년 7월 현재는 할머니들이 건강 악화로 요양병원에 입원하면서 양로시설은 비어 있는 상태다. 하지만 교육관과 역사관은 여전히 운영되며 피해 참상을 증언하고 있다.

나눔의집의 역사는 1990년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하던 당시, 불교인권위원장이던 월주 스님이 주축이 되어 불교계에서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돌봄 시설 마련에 나선 것. 92년 10월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임시거주지로 처음 문을 연 이후 명륜동과 혜화동을 거쳐, 한 독지가의 기증으로 95년 현재의 자리로 이전했다. 96년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 설립 허가를 받고 제1대 대표이사에 월주 스님이 취임했다.

나눔의집에 거주하는 할머니들은 매주 한글과 그림을 배우며 피해 참상을 글과 그림에 담아 일제의 만행을 전 세계에 알렸다. 또 매주 수요일 서울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리는 수요시위에 참석해 피해를 증언하고 일본의 과거사 참회와 사죄를 촉구했다.

1998년에는 성노예 피해를 알리는 세계 최초의 역사관인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을 개관했다. 역사관 건물은 곽정환 대동주택 회장이 건축해 기증했으며, 역사관 개관에 필요한 추가 비용은 한일 양국에서 민간 모금 운동을 통해 마련됐다.

역사관에는 1930년대부터 1954년 제2차 세계대전 종전까지 일본에 의해 자행된 성노예제 관련 피해자 증언과 자료가 전시되어 있다. 또 할머니들의 그림 및 유품 전시관, 추모공간 등도 조성돼 당시의 실상을 생생히 전하고 있다. 역사의 진실을 알리고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일깨우는 교육의 장인 이곳에는 매년 수많은 학생과 시민이 방문하고 있다.



나눔의집은 1995년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 할머니들의 보호시설로 문을 열었다.

나눔의집은 2020년 운영 부실 의혹이 제기되며 몸살을 앓기도 했지만, 법적 공방과 특별감사 등 오랜 진통 끝에 2022년 정식이사 체제를 구축하며 정상화됐다.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회계 문제를 바로잡고, 행정처분 사항도 모두 이행했다.

올해 2월 새 대표이사에 취임한 세영 스님은 “나눔의집이 대한민국 역사를 기록하고 추모하고 교육하는 장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며 역사관 주말 개관 등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다. 할머니들의 기록물을 정리하고 정원을 새롭게 정비하는 한편, 나눔의집의 법적 지위와 후원금 감소에 따른 운영 방안 등도 논의 중이다.

여수령 기자

원폭 피해자를 위한 ‘합천평화의집’

비핵 세상 이루는 치유와 연대의 공간

“원자폭탄 피해자가 우리나라에도 있다고요?”

일제강점기 말인 1945년 8월 6일과 9일 미국은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했다. 8월 15일 일본은 항복을 선언했고 우리나라는 해방의 기쁨을 맞았다.

하지만 그날 그곳에는 강제 동원으로 일본에 끌려간 당시 ‘조선인’도 있었다. 한국원폭피해자협회에 따르면 원자폭탄으로 피폭된 한국인은 총 10만 명이고, 사망자만도 5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생존자 중 2만여 명이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피폭 후유증을 온몸으로 견디며 정부의 무관심 속에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했다.

2023년 4월 기준, 생존 원폭 피해자는 1800여 명. 더 큰 문제는 원폭 피해가 대물림된다는 점이다.

특히 합천에는 원폭 피해자의 70% 정도가 살고 있어 ‘한국의 히로시마’로 불린다. 합천평화의집(원장 이남재)은 2002년, 국내 원폭 2세와 뜻있는 시민단체가 협력해 설립한 비핵·평화운동 단체다. 경상남도 원폭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을 견인하고, 조례를 근거로 합천군 내 피해자를 위한 심리 치유 서비스와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 원폭 희생자 추모제와 합천 비핵·평화 대회 개최, 평화 나들이 등 원폭 피해자 1·2·3세의 인권과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남재 합천평화의집 원장(한국비핵평화시민연대 회장)은 불교계의 대표적인 일꾼이다. 동국대 인도철학과를 졸업하고 30여 년간 조계종 총무원,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민중불교운동연합, 위드아시아 등 불교단체에서 활동했다. 그러던 중 원폭 피해자와 후손들이 병마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접하고 ‘합천평화의집’ 설립에 앞장서게 됐다. 2012년부터 합천비핵·평화대회를 개최하는 한편,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1인 릴레이 시위까지 펼쳤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2016년 ‘원폭피해자지원특별법’이 제정됐지만 2·3세 피해자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남재 원장은 “오늘날 여전히 피폭당했다는 이유로 질환을 안고 살아가는 2세, 3세가 있다”며 “원폭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이자 미래이고 우리들의 문제”라며 사회적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7월 8일 서울 동국대에서 열린 비핵 평화를 위한 평화의나무 합창 공연.

광복 80주년을 맞아 조계종 화쟁위원회도 원폭 피해자 문제에 주목하고 불교계의 역할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7월 7일 합천원폭피해자복지관에서 개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조계종 사회부장 진경 스님은 “피해 실상이 알려지고 실질적인 정책과 입법이 이뤄질 수 있는 단초를 만들어가는 데 화쟁위원회가 함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진경 스님은 7월 8일 서울 동국대학교에서 열린 비핵 평화를 위한 평화의나무 합창 공연에도 참석해 불교계의 역할을 약속했다.

합천평화의집은 광복 80주년을 맞은 우리에게 말한다. 개발주의와 전쟁을 멈추지 않는 한 인류는 언제든 원폭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여수령 기자

구국 넘어 근대의식 발현

AI로 되살린 스님 독립운동가

② 비구니 스님들과 독립운동

일본제국이 대한제국에 반강제적으로 제공한 차관 1300만원을 국민이 갚자고 한 국채보상운동(1907). '담배 끊기'를 통해 3개월 내 국채 상황을 목표로 한 이 때, 여자는 이 나라 백성이 아니냐며 전국 '부인회'를 중심으로 여성도 당당히 국난극복에 참여할 의사를 밝혔다. 의식의 변화는 세속 여성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비구니 스님들도 같은 마음에서 독립운동에 적극 참여했다. 당시 스님들은 정치와 사회영역에서 배제됐고, 비구니 스님의 경우 차별과 배제는 더 심했다. 그럼에도 국민의 일원으로서 사회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비구니 스님들의 독립운동을 살펴본다. 이번 AI이미지는 암울한 현실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비구니 스님들의 모습을 표현하고자 웃는 모습으로 복원했다.

정리=신중일 · 임은호 기자

국채보상운동과 옥수동 미타사 비구니 스님 40명



1907년 3월 3일 불교연구회 주도로 불교계도 국채보상운동에 동참하기로 결의했다. 승단의 국채보상운동에 먼저 참여한 사람들은 비구 스님이 아니라 비구니 스님들이었다.

1907년 3월 14일자 '대한매일신보' 등에 따르면 40명의 서울 옥수동 미타사 비구니 스님들이 국채보상운동에 동참했다. 당시 서울 비구니 스님들이 잘 단합돼 있고 사회참여에도 적극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비구니 스님들의 국채보상운동은 단순한 구국의식을 넘어 성과 신분의 평등을 향한 근대의식의 발현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제주 봉려관 스님의 항일운동



제주 불교를 중흥시킨 비구니 봉려관 스님(蓬慮觀, 1865~1938)의 활동 시기는 개항 전후부터 일제강점기에 걸쳐 있다. 스님의 항일운동은 군자금 조달뿐만 아니라 항일인사들에게 의식주와 은신처를 제공하는 방식이었다. 초기에는 불사를 가장한 탁발을 통해 군자금을 조달했다. 제주불교가 자리를 잡게 되자 모인 액수가 늘어났고 이렇게 모인 군자금은 육지에까지 전달됐다. 생전 봉려관 스님의 활약상은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었으므로 언론에서 자주 조명됐지만 스님의 입적에 대해서는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던 점은 스님이 항일운동을 했기 때문임을 역으로 증명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임시정부서 활약한 보각 스님

보각(寶覺, 1904~2006) 스님은 이화여전 영문과 재학 당시 유관순(1902~1920)과 기숙사 룸메이트를 지내며 함께 나라 없는 설움을 토로하다 태극기를 만들어 기숙사 친구들에게 독립의 중요성을 일깨우자고 의기투합한 것으로 알려졌다. 태극기를 36개 기숙사 방문에 몰래 붙이기도 했다. 고향 청양에서도 태극기를 만들어 만세운동을 준비하다 발각돼 경찰서로 끌려가 곤욕을 당했다. 중국 임시정부에서 독립운동을 도왔고 해방 후에는 김구 선생을 2년간 보좌했다. 마야부인회를 결성해 재가불자여성의 활동을 촉진시켰으며 정화운동에도 참여해 재가자로서 공헌하다 1958년 출가해 하남에 통일정사를 창건하고 평생을 민족통일을 염원하며 살았다.



독립군자금 모아 준 청룡사 상근 스님

서울 동대문 청룡사 상근(祥根, 1872~1951) 스님은 민족 대표 33인 중 불교계 대표인 한용운, 백용성, 백초월 스님 등 여러 스님을 받들어 독립운동에 숨은 역할을 했다.

스님은 1894년부터 금강산 장안사 영원암, 유점사 반야암 등에서 정진했다. 1918년까지 치열히 정진한 스님은 청룡사로 돌아온 다음 해 3·1운동이 일어나자 독립군 지원 자금을 마련하는 데 매진했다. 봉려관 스님과도 가깝게 지내며 바다를 가로질러 제주와 금강산에서 함께 독립운동에 참여하며 자금을 모으고 운반하는 데 많은 활약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관련 인물들이 모두 입적하면서 상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안타까움을 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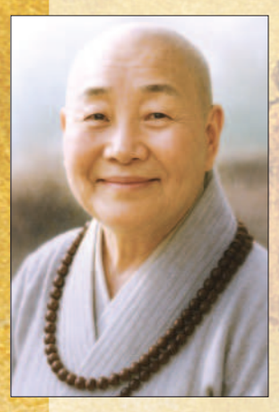
독립운동가 옥바라지 한 옥봉 스님



옥봉(玉峰, 1913~2010) 스님은 저명한 묵죽화가로 1931년 18세때 금강산인 일주 김진우(1883~1950)의 제자가 돼 그림을 배우던 중 스승과 함께 독립운동에 뛰어들었다. 19세 때 일주 선생의 명에 따라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된 안창호 선생의 옥바라지를 하면서 만해 스님을 비롯해 여운형, 홍명희 선생 등의 연락책과 김정호, 서정관 씨 등의 자금 조달책을 맡는 등 독립운동에 적극 가담했다. 연락 임무를 띠고 만주로 가다 남양에서 일본 경찰에 연행돼 1개월간 옥고를 치르기도 했다.

애국지사들을 도와 피와 투쟁으로 얻은 조국 광복이 결국 좌우의 이념 갈등으로 동족상잔의 비극으로 치닫는 것을 보며 인생무상을 느낀 스님은 결국 붓을 놓고 42세에 늦깎이 출가를 결심해 1954년 동학사 미타암에서 삭발 염의했다.

독립운동 참여 가족 잃고 출가한 장일 스님



동화사 내원암 장일(長一, 1916~1997) 스님은 부친이 독립운동가였다. 스님이 2살 때부터 부친은 독립운동 거점 확보를 위해 대구에서 황해도로 피난을 가 많은 수난을 겪었다. 스님은 7세의 어린 나이에 비밀 서류를 전해 주는 '꼬마 스파이' 노릇을 하면서 나라 잃은 아픔을 절실히 느꼈고 조국에 대한 애국심이 싹트기 시작했다. 17~18세에는 오빠들을 따라 독립운동을 돕다가 경찰서에 끌려가 고문을 당하기도 했다. 23세였던 1939년, 오빠들이 독립운동을 위해 모두 러시아로 망명한 후 돌아오지 않자 나라 잃은 백성의 설움을 뼈저리게 느끼고 서산 대사나 사명 대사 같이 나라를 구하겠다는 원대한 뜻을 품고 출가의 길에 올랐다. 스님은 출가 후 오직 참선을 통해 깨치겠다는 일념으로 철저한 기도와 수행을 했고 정화운동에도 크게 기여했다.

*<역사 속 한국비구니> (한국비구니승가연구소 저, 민족사, 2024) 참조

문화로 기리는 불교 독립운동

뮤지컬 '비 · 스 · 독' 비구니 스님 독립운동사
교성곡 '용성' 용성 스님의 삶과 사상 조명
백초월 스님 기리는 공연과 '진관아리랑'



뮤지컬 '비 · 스 · 독'의 한 장면.



교성곡 '용성' 공연 모습.



백초월 스님 추모 합창곡 '진관아리랑' 초연 모습.

광복 8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에 헌신한 스님들의 삶과 정신이 무대 위에서 다시 피어오른다. 춤과 음악, 뮤지컬 등 다양한 장르의 문화콘텐츠를 통해 불교계 독립운동의 역사와 의미를 대중에게 전달하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는 것. 용성 스님의 삶과 정신을 음악으로 승화한 교성곡 '용성', 백초월 스님의 독립운동과 '진관사 태극기'의 의미를 새기는 공연들, 비구니 스님들의 독립운동을 다룬 뮤지컬 '비·스·독' 등이 대표적이다.

백용성 스님 삶과 정신, 음악으로 승화

교성곡 '용성'은 3·1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으로 참여한 독립운동가이자 불교 근대화에 앞장선 선지식 백용성 스님(1864~1940)의 삶을 음악으로 되살린 창작곡이다. 용성 스님은 찬불가를 최초로 작곡한 민족음악가다.

교성곡 '용성'은 조계종 명예원로의원 도문 스님의 원작을 바탕으로 故목정배 교수가 작사하고, 조계종 불교음악원장 박범훈 교수(동국대 한국음악과 석좌교수)가 작곡했다. 2012년 초연 이후 꾸준히 선보이고 있다.

올해 4월에는 조계종 불교음악원과 평택시립국악관현악단이 공동 주최한 '광복 80주년 기념 봉축음악회' 무대에 다시 올려졌다. 탄생부터 유년 시절, 출가와 시련, 3·1운동에서 대각운동까지 이어지는 스님의 파란만장한 삶의 굴절을 국악관현악 반주와 합창, 독창 등으로 전달한다. 스님의 독립운동가로서의 면모와 불교 개혁자로서의 철학을 담아낸 수작이자, 교성곡이라는 장르를 통해 전통과 현대, 종교와 예술이 만나는 완성도 높은 공연으로 평가받고 있다.

춤·국극·합창으로 되새기는 백초월 스님

불교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백초월 스님(1878~1944)의 삶은 춤과 노래, 국극 등 다채로운 문화콘텐츠로 되살아나고 있다.

백초월 스님의 독립운동 거점 사찰인 서울 진관사(주지 법해 스님)는 지난해 2월 '백초월 스님 선양회'를 공식 발족하고 추모공연 '새벽빗 비쵤제'를 무대에 올렸다. 이날 공연에서는 진관사수륙재보존회와 서울경기춤연구회가 헌정무 '나비승무'와 헌정가 '태극기'를 선보였다.

올해 6월에는 백초월 스님의 독립운동 정신을 기리고 '진관사 태극기'에 담긴 애국정신을 예술로 승화한 '2025 백초월길 예술축제 진관아리랑'을 개최했다. 축제에서는 '백초월 스님의 조국과 태극기 사랑'을 주제로 한 여성소리국극과 정명자 살품이춤 이수자의 '진관 살풀이춤'이 펼쳐져 관람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

특히 이날 축제에서는 합창곡 '진관아리랑'이 초연돼 의미를 더했다. 김연갑 아리랑기념사업회 이사장이 작사하고 박범훈 교수가 작곡한 '진관아리랑'은 진관사의 역사와 백초월 스님의 정신을 흥겨운 멜로디로 표현한 합창곡이다. 사찰명이 사용된 최초의 '아리랑'이기도 하다.

뮤지컬로 만나는 비구니 스님 독립운동

올해 2월 처음 막을 올린 뮤지컬 '비·스·독-비구니 스님들의 독립운동 이야기'는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비구니 스님들의 항일운동을 조명한 창작 뮤지컬이다. 전구비구니회(회장 광용 스님) 주최, 한국비구니승가연구소(소장 심원 스님) 주관, 뮤지컬 극단 야성이 제작했다.

1막에서는 국채보상운동에 참여한 옥수동 미타사의 40여 명 비구니 스님, 유관순 열사 친구로 3·1운동에서 활약했던 보각 스님, 독립자금 조달과 연락책을 맡고 안창호 선생의 옥바라지를 했던 옥봉 스님 이야기가 그려진다.

2막에서는 제주불교의 중흥과 독립운동에 힘쓴 봉려관 스님과 상좌 성해 스님, 독립운동가들을 지원한 상근 스님의 행적을 담았다. 다큐멘터리적인 서사와 경쾌한 창작음악, 무대극을 결합한 새로운 형식으로 초연 직후 호평이 이어졌다.

독립운동가들의 희생과 신념을 예술로 기리는 이 같은 '문화 독립운동'은 불교계의 자긍심을 높이는 동시에, 역사를 기억하는 새로운 방식을 제시하는 뜻깊은 행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여수령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7/23~7/29

불교전문서점 조계종출판사 불교전문서점 향전 제공 02)2031-207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원각경	김현준	효림
2	당신은 이미 완벽한 사람입니다	지범	불광출판사
3	선명상 마음의 평화	진우스님 외	조계종출판사
4	광명진언 기도법	일타, 김현준 공저	효림
5	생전예수재(개정판)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종출판사
6	수호신기도	묘장	민족사
7	엄마 아빠 고마워요	양태석 / 안준석	조계종출판사
8	내 마음속 차향기여 해와 달을 품고 있네	한재이목/ 삼이원학	불광출판사
9	동자승 컬러링 100	용정운	조계종출판사
10	통찰의 체험(대원불교학술총서30)	조셉 골드스타인	운주사

불서총판 운주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지안스님의 승만경 강의	지안 강설	운주사
2	요가디피카(아헹가요가시리즈1)육체의한계를넘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3	일상에서의 호흡명상숨(빨리어호흡관법경강의)	래리 로젠버그/미산	한언
4	돈황본육조단경(4본대조/정본역주)	조영미,최연식,김종욱,김천학,박인석 역주	운주사
5	진짜 나를 찾아라!맑고향기롭게30주년기념미공개강연록*양장	법정	샘터사
6	길이아니면 가지 말라:불일암사계	법정/최순희 사진	책읽는섬
7	통찰의 체험:간단하고 직접적인 불교명상 안내서	조셉 골드스타인	운주사
8	부처님의 마지막 발자취(초기불전003)대반열반경	각묵스님 옮김	초기불전연구원
9	낡은옷을 벗어라:법정스님미출간원고 68편수록	법정스님	불교신문사
10	피터싱어 불교와 만나다(대원불교 학술총서29)	피터 싱어,스자오후이	운주사

승가의 근간, 율장의 핵심을 풀다



빨리율장
바라제목차의 계문 해석
마성 지음
팔리문헌연구소 / 7만원

바라제목차 비구계 227개 해설
'빨리율'과 한역 율장 비교 번역
용어 쉽게 풀고 계 제정 배경 설명
"율장의 목적은 정법구주(正法久住)"

여수령 기자 spero0821@hyunbul.com

단체마다 정관이나 회칙이 있듯, 승가에도 출가자들이 지켜야 할 규칙과 승가 운영 방식을 규정한 '율장(律藏)'이 있다. 율장은 출가 사문인 비구·비구니가 지켜야 할 바라제목차(波羅提木叉)와 승가 내부의 의사 결정 방법인 승가갈마(僧伽羯磨), 승가 내부의 다툼을 해결하는 멸쟁법(滅諍法) 등 모든 규정을 모아놓은 '곳간'이라 할 수 있다. 곧 승가는 바라제목차를 근거로 조직되어, 승가갈마를 통해 운영되는 것이다.

이 중 바라제목차는 비구계와 비구니계의 계문을 모은 것으로, 율장에서는 바라제목차를 '마땅히 배워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무리 뛰어난 수행자라 할지라도 율장은 배우지 않으면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한국불교에서는 일부 전문 교육기관을 제외하고는 체계적인 율장 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팔리문헌연구소장 마성 스님은 "한국불교의 종단이 율장에 의해 운영되지 않는 탓도 있겠지만, 다른 나라 불교에 비해 율장에 대한 이해가 상대적으로 뒤떨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또 율장을 공부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가 계와 율에 어긋난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우려했다.

이러한 문제의식으로 마성 스님은 남방 상좌부 전통의 '빨리율장' 가운데 바라제목차의 비구계 227계 전체를 해석했다. 좀 더 엄밀히 말하면 이 책은 '빨리율'을 기본으로, 다른 한역 율장과 '범문계경' 등을 비교해 바라제목차의 계문(戒文)을 번역하고 그 의미를 자세히 풀어 쓴 것이다. 다만, 이번 책에서는 방대한 분량으로 인해 비구니계는 다루지 않았다.



승가는 율장의 바라제목차를 근거로 조직된 수행공동체다. <빨리율장>은 바라제목차 중 비구계 227개를 해석한 책이다. 사진은 올해 3월 범어사에서 봉행된 조계종 제45회 단일계단 구족계 수계산림 모습. 현대불교 자료사진

책은 총 10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 '율장에 대한 이해'는 서론으로 율장이란 무엇이고, 현존하는 율장과 계본, 빨리 율장의 구조와 편제는 어떠한지를 다룬다.

2장 '바라제목차의 의미와 조직'은 율장의 구조와 바라제목차의 전체적인 윤곽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시대에 따라 바라제목차의 범주가 달라지게 된 배경과 '별해탈(別解脫)'로 의역되고 '바라제목차'로 음역되는 과정 등을 살핀다. 또 바라제목차의 여덟 가지 항목의 의미를 설명하고, 각 항목을 어겼을 때의 죄인 오편(五篇)과 칠취(七聚)의 의미를 설명한다.

3장부터 10장까지는 이 책의 핵심인 바라제목차의 계문을 해석한 것이다. '빨리율'에 따르면 바라제목차는 인연담-계문-계문 해석의 순으로 조직되어 있다. 그러나 이 책에서는 계명(戒名)-계문-제계 인연-계문 해석 순으로 서술했다.

마성 스님은 "한국불교에서는 법장부에서 전승한 '사분율'에 의지해 구족계를 받기 때문에, '빨리율'과 '사분승계본'의 계문을 동시에 나열해 서로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며 "다만 '사분승계본'이 없을 때는 다른 율장으로 대체했다"고 밝혔다. 또 율장에는 계의 이름이 없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계문에 적합한 계명을 찾아 제시했다.

방대한 문헌의 율장을 혼자 읽고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 율장이 성립된 고대 인도 문화와 관습은 물론 초기불교 승단 전통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으면 해당 계가 왜 제정됐는지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율장에서만 사용되는 전문 술어의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운 이유도 있다. 때문에 책에서는 고유명사의 의미를 가능한 쉽게 설명하고, 계가 제정된 배경도 자세히 밝히고 있다.

마성 스님은 "율장이 추구하는 궁극의 목적은 '정법이 오래 머물도록[正法久住]'하는 데 있다"며 "만약 비구·비구니들이 사문으로서의 위의(威儀)를 갖추고 학처(學處)를 받아 지녀 배운다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공경을 받을 것이며 미래 세대에까지 붓다의 가르침이 전승될 것"이라고 율장과 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새로 나온 책

참선 공부를 위한 〈벽암록〉 강설



송강 스님의 벽암록 강설 1~3
시우송강 역해
도서출판 도반
각 5만원

신문에 연재했던 '벽암록 맛보기'를 10권의 한지본(韓紙本) 〈벽암록 강설〉로 출간한 바 있는 송강 스님(서울 개화사 주지)이 최근 참선법회에서 강설했던 내용을 보완해 3권의 양장본으로 새롭게 엮었다. 스님은 "참선 공부에서의 설명은 실참을 유도하기 위한 선교방편(善巧方便)"이라며 "완전하게 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의심을 일으키게 하는 데 목적이 있기에, 설명을 간략하게 하고 의심을 남겼다"고 설명했다.

범어사불교전통강원과 중앙승가대학을 졸업한 송강 스님은 BBS불교방송과 BTN불교TV 등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현재 신문 연재와 방송을 통해 불교를 널리 알리고 있다.

나를 깨치는 첫 단계 〈지장경〉



'보살승' 수행으로 성불하라!
지장경
법오 스님 편저
STAIR WAY TO BUDDHA
1만원

〈지장경〉은 〈지장보살본원경(地藏菩薩本願經)〉의 줄임말로 지장보살이 지옥에서 온갖 고통을 받는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세운 서원과 그 실천행을 설한 대승불교 경전이다. 부처님께서 도리천에서 어머니 마야부인을 위해 설법하는 형식으로, 지장기도를 통해 영가천도, 업장소멸, 소원성취, 수행정진 등을 이루길 염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생 구제 프로젝트'란 이름으로 독송본 경전을 출간하고 있는 법오 스님은 "〈지장경〉은 나를 깨치기 위한 첫 번째 단계이자 불법 공부의 기초를 탄탄히 다져주는 경전"이라며 "현대적인 언어와 문장으로 표현하기 위해 고심했다"고 밝혔다.

육상효 감독의 영화 명대사 필사집



하루 한 컷 내 인생 위로하는 영화 대사 필사
육상효 지음
모과나무
1만8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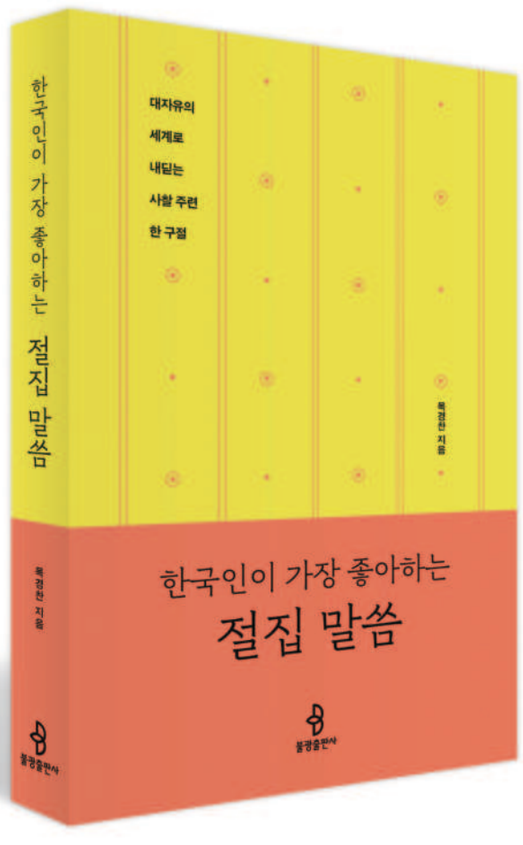
"당신은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게 해요."-영화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중에서

영화 '달마야 서울 가자', '나의 특별한 형제', '3일의 휴가' 등을 연출한 육상효 감독이 '인생 영화'의 명대사를 모은 필사집이다. 감독이 선정한 명대사 90개에 짧은 에세이를 덧붙였다. 사랑, 인생, 가족, 시간, 열정, 인간이라는 6가지 키워드 중 그날의 마음 상태에 따라 어떤 대사를 필사할지 고를 수 있다. 오동진 평론가는 추천사에서 "육상효가 선정한 수많은 영화의 대사들은 해당 영화를 다시 찾아보게 만들고, 그럼으로써 다시 한번 그 영화를, 영화 자체를 사랑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마음을 흔드는 말은 많지만 마음을 붙잡는 말은 드물다!"

어지러운 마음을 맑혀 주는
천년의 지혜,
사찰 '주련柱聯'에 담긴
주옥같은 인생 명언

법당 기둥에 새겨진 한 줄의 지혜, '주련'.
부처님의 가르침과 고승들의
깨달음이 정수처럼 응축된 주련은
오늘날 불안과 갈등으로부터
우리 삶의 균형을 되찾고,
흔들리는 마음을 바로 세우는 기둥이 된다.



오래도록 같은 자리에
놓여 있는 건
오래 두고 봐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

대자유의 세계로 내딛는 사찰 주련 한 구절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절집 말씀
목경찬 지음 I 304쪽 I 18,000원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시리즈
내 삶의 길잡이가 되어 주는 명구 총집합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경전 구절
296쪽 I 이진영 엮음, 무비·원철·정목 감수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선문답
232쪽 I 장웅연 지음, 도법·원철·신규탁 감수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I www.bulkwang.co.kr I 불광미디어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Weekly 선명상 29 탐냄 성냄 내려놓으니



▶한줄 요약
지금 이 순간, 한 걸음 멈추어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은 시작이 될 것입니다. 지금 내가 무엇에 얽매이고 있는지,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를 살펴보며 내 마음의 고요를 되찾아 보십시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



해당 삽화는 진우 스님의 한글 게송을 생성형 AI에 입력해 제작했습니다.

[오늘의 명상]
마음에 욕심 차 있을 때에는
세월 흐르는 소리 들리지 않더니
탐냄 성냄 내려놓으니
새벽이슬 맺히는 소리 희안(喜安)하게 들려오네.

얼마 전 강의에서 충격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불교의 핵심을 간명하고 쉽게 전하려 노력했지만, 나의 진의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깊은 회의감과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명상의 글과 덧붙이는 설명 또한 혹시 공허한 메아리로만 들리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물론 불법(佛法)을 배우고자 하는 불자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첫째, 가르침을 전달하는 방식이 적절치 못했다는 점을 반성합니다. 한 번에 많은 것을 알려 주려는 욕심이 지나쳤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둘째, 불교를 비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큰 장벽으로 느껴졌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선악(善惡)을 분별하지 말고, 시시비비(是是非非)를 떠나라고 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불의(不義)를 마주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자연스럽게 제기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원론적이고 근본적인 해답입니다. 사람은 즐겁고 기쁘며 행복하기 위해 살아갑니다. 하지만 마음의 구조상 한 가지 감정만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즐거움이 있으면 괴로움도 함께 나타납니다. 큰 행복이 있다면 큰 불행이 뒤따릅니다. 이것을 소위 업(業)이라 하며, 인과(因果)라고 부릅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를 차생고피생(此生故彼生), 차멸고피멸(此滅故彼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이 생기면 저것이 생기고, 이것이 멸하면 저것도 멸한다는 뜻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을 이해하려면, 이 인과의 법칙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내 마음에 즐거움이 있다면 괴로움도 동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선악과 정의, 불의가 보인다는 것은 내 마음에 이미 그 두 가지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은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 즉 마음이 만들어 낸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두 마음을 모두 떠나라고 가르치십니다. 끊임없이 윤회(輪廻)하는 고리를 끊고, 인과의 사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현실에서 불의한 상황을 마주한다면, 마음이 가는 대로 행동하십시오. 다만 그 과정에서 감정을 얽지 않고,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아야 합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應無所住 而生其心), 감정이나 집착을 내려놓고 행동하라는 뜻입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 수행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길러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좌선과 명상을 통해 마음의 본성을 깨닫고 탐진치(貪嗔痴)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 도달하면 어려운 상황에서도 고요한 마음으로 지체 없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자유자재(自由自在)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한 걸음 멈추어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 보는 것도 좋은 시작이 될 것입니다. 지금 내가 무엇에 얽매이고 있는지,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를 살펴보며 내 마음의 고요를 되찾아 보십시오.

오늘 하루도 탐진치를 내려놓고, 인과의 흐름 속에서 마음의 고요를 유지해 보십시오. 그 속에서 우리는 본래의 평화를 되찾고 자유로움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명상]
도(道)가 높아지면 마(魔)가 성(盛)하고
좋은 일에도 걸림이 많아지는 법,
성취하고자 하는 일에는 반드시 고비가 생기니
마음을 깨치는 일이야 말해서 무엇 하리요.

도고마성(道高魔盛), 호사다마(好事多魔)라 했습니다. 거울이 맑을수록 티끌이 더 잘 보이고, 마음이 청명할수록 미세한 번뇌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좋은 일에는 반드시 방해가 생겨나고, 큰일을 성취하는 데에는 수많은 장애가 따릅니다.

이러한 장애는 당연한 것이니, 일일이 마음 쓰지 않고 오로지 목표를 향해 정진(精進)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세상은 상대적인 인과관계로 얽혀 있습니다. 희생 없는 성취가 없고, 노력 없는 성공은 없습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 **내 마음에 즐거움이 있다면**
> **괴로움 동반될 수밖에 없어**
> **불교 가르침 잘 이해하려면**
> **인과의 법칙 먼저 깨달아야**
> **선명상 통해 탐진치 내려놓길**

마음을 깨치는 일보다 더 큰일은 없습니다. 욕심이라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인과의 굴레를 벗어나기 어렵고, 윤회의 사슬에서 자유로워질 수 없습니다. 번뇌로 인한 고통을 없애는 길은 마음을 깨치는 것뿐입니다.

마음을 깨친다는 것은 탐심(貪心), 성냄[嗔], 망상(妄想)의 티끌조차 없는 경지입니다. 바로 성불(成佛)의 자리입니다. 마음을 깨치기 위해서는 수억겁에 걸쳐 쌓인 업장(業障)을 모두 멸(滅)해야 합니다. 작은 욕심, 물질, 건강, 목숨, 집착, 미련까지도 내려놓는 무소유(無所有)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를 소유하면 하나의 고통이 따르고, 열 개를 소유하면 열 개의 고통이 따라옵니다. 이는 인과의 법칙입니다. 업의 굴레에서 벗어나려면 결국 모든 소유를 내려놓고 자유로워지는 길밖에 없습니다.

마음을 깨달을수록 삼독심(三毒心)은 더욱 기승을 부립니다.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 끊임없이 마음을 흔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를 성찰하며 경계하고, 기도와 참회를 통해 극복해야 합니다.

낙숫물이 바위를 뚫듯, 한 걸음 한 걸음 꾸준히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성불의 목적지에 닿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고요를 유지하며, 현재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기도와 좌선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고, 욕심과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마음 수행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수행을 돕기 위해 놓음(방하착) 선명상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놓음 명상은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마음의 평화를 찾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오늘도 놓음 명상을 통해 삼독심을 잠재우고, 인과의 흐름 속에서 자유로운 마음을 경험해 보십시오. 한 걸음씩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본래의 평화를 찾고, 성불에 가까워질 것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이일야의 詩, 불교를 만나다 ⑭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 : 한강의 '괜찮아'



▶한줄 요약
우리는 한 번이라도 '왜 그래?'가 아니라 '그래도 괜찮아'라는 시선으로 상대를 바라본 적이 있을까? 한강 시인이 이 시를 통해 우리에게 던지는 근원적인 질문이다.

한강이 전하는 작은 위로

언젠가 KBS 프로그램 '인간극장'에서 산속에서 양봉하는 부부의 모습을 본 적이 있다. 그들은 꿀을 전혀 따지 못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숲속에서 새 우는 소리가 마치 "괜찮다고!" 위로하는 것처럼 들려, 당시의 위기를 잘 넘겼다고 한다. 그때부터였다. 뒷산에 산책하러 갈 때마다 새소리가 정말로 "괜찮다고!" 말하는 것 같았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모두가 힘들어하던 시절 새소리를 녹음해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회 시간에 들려주었다. 아무리 힘들어도 새가 괜찮다고 하니, 다 같이 힘내서 위기를 잘 극복하자는 취지였다. 법회에 참여한 학인들은 위안을 받은 듯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띠었다.

물론 새가 그렇게 말한 것은 아닐 것이다. 사람들은 힘들 때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고 싶어 하는데, 마침 새 우는 소리가 그렇게 들린 것뿐이다. 어찌 보면 나의 마음과 새소리가 묘하게 공명(共鳴)을 일으켜 괜찮다는 위로가 되었는지 모를 일이다. 공명은 함께[共] 우는[鳴] 마음의 소리다. 새가 나의 마음을 알아준다고 여기면 자연스레 위안을 받게 된다. 이처럼 같은 소리라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달리 들린다. 그래서 나온 말이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다. 흔히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말할 때 자주 쓰인다.

한강 작가의 '괜찮아'라는 시를 읽으면서 문득 이 말이 떠올랐다. 작가는 울음을 그치지 않는 아이에게 "왜 울어?"라며 달래 보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런데 문득 생각을 돌려 괜찮다고 말하니, 며칠 후부터 아이가 저녁 울음을 멈췄다고 한다. 이때의 경험을 담아 쓴 시가 바로 '괜찮아'이다. 평범한 일상에서 느낀 삶의 지혜다. 마음을 다르게 먹으니 상황 또한 좋게 변했다는 생각이 들어 일체유심조와 관련해 해석해 보았다.

한강은 누가 뭐라 해도 노벨문학상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작가다. 지난해 이룬 엄청난 쾌거는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뿐만 아니라 위로도 함께 선사했다. 그녀에게 노벨상을 수여하는 이유를 한림원은 이렇게 설명했다.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 삶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강렬한 시적 산문."

역사에 남을 만한 훌륭하고 멋진 문장이다. 쟁쟁한 후보들이 많았지만, 왜 한강이 수상했는지 분명히 보여 주고 있다. 아마 제주 4·3과 광주 5·18의 상처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한강의 수상은 큰 위로와 치유가 되었을 것이다. 어찌 그들뿐이겠는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이다.



해당 삽화는 생성형 AI를 통해 제작했습니다.

시인은 12·3 계엄으로 혼란스러웠던 우리 사회에 깊은 통찰을 주기도 했다. 과거가 현재를 돕고, 죽은 자가 산 자를 돕는다는 말에 많은 이들이 공감했으니 말이다. 그녀의 지적처럼 부산과 마산, 광주에서 죽어간 이들이 오늘의 우리를 구했는지 모를 일이다. 12월 3일 그날 밤 슬리퍼를 신고 반팔 차림으로 여의도에 모인 이들과, 응원봉을 들고 민주공화국 시민의 권리를 외친 MZ세대의 뒤에는 이처럼 든든하고 빛나는 역사가 있었다. 그 힘으로 지금 우리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위기를 극복하고 있다.

오늘 소개하는 한강의 '괜찮아'는 2013년에 출간한 시집 〈서랍을 저녁에 넣어 두었다〉에 실린 작품이다. 앞서 소개한 것처럼 우는 아이를 달래면서 얻은 삶의 지혜를 보여 주고 있다. 살면서 힘들 때마다 읽어 보면 위로가 되는 좋은 시라 할 것이다. 아이를 돌보는 마음으로 함께 읽어 보기로 하자.

"태어나 두 달이 되었을 때 / 아이는 저녁마다 울었다 / 배고파서도 아니고 어디가 / 아파서도 아니고 / 아무 이유도 없이 / 해질녘부터 밤까지 꼬박 세 시간 / 거품 같은 아이가 꺼져 버릴까 봐 / 나는 두 팔로 껴안고 / 집 안을 수없이 돌며 물었다 / 왜 그래. / 왜 그래. / 왜 그래. / 내 눈물이 떨어져 / 아이의 눈물에 섞이기도 했다 / 그러던 어느 날 / 문득 말해봤다 /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 괜찮아. / 괜찮아. / 이제 괜찮아. / 거짓말처럼 / 아이의 울음이 그치진 않았지만 / 누그러진 건 오히려 / 내 울음이었지만, 다만 / 우연의 일치였겠지만 / 며칠 뒤부터 아이는 저녁 울음을 멈췄다 / 서른 넘어야 그렇게 알았다 / 내 안의 당신이 흐느낄 때 /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울부짖는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보듯 / 짜디짠 거품 같은 눈물을 향해 / 괜찮아 / 왜 그래,가 아니라 / 괜찮아. / 이제 괜찮아."

아이 달래며 얻은 삶의 지혜 보여줘
마음 다르게 먹으니 상황 좋게 변해
"괜찮다"는 말 다음 물어도 늦지 않아

'왜 그래'가 아니라 '괜찮아'

이 시는 남성보다 육아의 어려움을 잘 아는 여성이 더 깊이 공감할 것 같다. 한밤중에 아이가 울면 아버지는 울지 말라고 하면서 잠에 들지만, 어머니는 아이가 새벽까지 울어 대도 잠들지 않고 돌본다. 시인 역시 아이가 울음을 그치지 않아 매우 힘들었던 것 같다. 오죽하면 자신의 눈물이 떨어져 아이의 눈물과 섞였겠는가. 시인 엄마가 아이에게 할 수 있는 말은 이것밖에 없었다.

"왜 그래, 왜 그래?"

하지만 아이는 도무지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몸과 마음 모두 지친다. 그러던 어느 날, 시인은 생각을 바꿔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다.

"괜찮아, 괜찮아."

'왜 그래'에서 '괜찮아'로 바꾸자 작은 변화가 일어났다. 며칠이 지나면서 아이가 저녁 울음을 멈춘 것이다. 시인은 우연이라고 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다. 한 생각 달리 하자 새로운 상황이 전개되었으니 말이다. 어쩌면 엄마의 '괜찮아'라는 마음의 소리를 아이가 들은 것은 아니었을까. 그렇게 엄마와 아이의 마음 주파수가 서로 맞아 공명을 일으키고 울음을 그친 것이라 믿고 싶다. 엄마는 왜 우느냐고 묻는 대신 우는 아이를 있는 그대로 마음에 품으면서 울어도 괜찮다고 말한 것이다.

시인의 작은 마음 변화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도만 다를 뿐 우리 모두 누군가에게 괜찮다고 하기보다는 "너 왜 그래?"라고 하면서 산다. 예컨대 부모의 뜻과 달리 노래에 관심 있는 자식에게 아무렇지 않은 듯 이렇게 말하곤 한다. 아이가 받게 될 상처는 생각하지 않은 채.

"너 왜 공부 안 하고 음악만 해. 나중에 뭐가 되려고 그래."

'음악'에 다른 내용만 넣으면 가정에서 많이 듣는 소리다. "왜 그렇게 게임만 해. 왜 그렇게 유튜브에 빠져 있어." 등 온통 "왜 그래?"뿐이다. 이때 필요한 것은 바로 음악과 게임을 하는 아이를 있는 그대로 마음에 품고 '그래도 괜찮아'라고 생각을 바꾸는 일이다. 그러면 시인의 지적처럼 아이가 울음을 그칠지 모르는 일이다.

'달마야 놀자'라는 영화에 나오는 장면이다.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우는 게임에서 조폭들이 연못에 항아리를 무심코 던지는 바람에 스님들을 이기고 절에 남게 된다. 조폭 두목은 말썽만 피우는 자신들을 왜 감싸 주는지 그 이유를 묻자 주지 스님은 아무렇지 않은 듯 무심하게 답한다.

"너희들이 밑 빠진 항아리를 물속에 던진 것처럼 나도 밑 빠진 너희들을 그냥 내 마음속에 던졌을 뿐이야."

이 영화의 전체 내용을 압축하는 명대사다. 부처님이나 성인을 제외하고 완벽한 항아리를 갖춘 사람은 드물다. 깨진 위치와 정도만 다를 뿐 우리는 모두 결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 영화에 등장하는 스님들을 포함해 우리들 대부분은 상대의 깨진 부분을 가리키면서 왜 그렇게 사느냐고 말한다.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데 주지 스님은 험하게 살다가 여기저기 깨진 조폭 항아리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왜 그래?"가 아니라 "그래도 괜찮으니까 쉬었다 가."라고 한 것이다. 그러자 조폭들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난다. 영화이긴 하지만, 그중 한 사람은 출가해서 새로운 길을 걷는다. 생각의 차이가 변화를 이끈 셈이다.

영화 속 조폭이나 시에 등장하는 아이 역시 완전하지 않은 존재다. 특히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는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 다른 포유류와 달리 걷는 데도 몇 년씩 걸린다. 적어도 3년 동안은 엄마 품에서 자라야 한다. 유교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삼년상을 지내는 이유이기도 하다. 시도 때도 없이 울어 대는 아이는 깨진 부분이 많은 항아리와 같다. 왜 그렇게 우느냐고 하는 것은 왜 그렇게 많이 깨졌냐고, 왜 그렇게 사느냐고 묻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때 필요한 것은 바로 "왜 그래?"가 아니라 "그래도 괜찮아"라는 작은 위로다. 처음부터 "왜 그래?"가 아니라 "괜찮다"는 따뜻한 말 다음에 "그때 왜 그랬어?"라고 물어도 늦지 않다.

우리는 한 번이라도 '왜 그래?'가 아니라 '그래도 괜찮아'라는 시선으로 상대를 바라본 적이 있을까? 영화 속 주지 스님과 시인이 우리에게 던지는 근원적인 질문이다. 생각 한번 바꿔 보자. 그러면 어느 드라마 제목처럼 "사이코지만 괜찮아.", 혹은 "다른 사람들과 많이 달라도 괜찮아."라는 말이 먼저 나올 것이다. 혹시 알겠는가. 상대가 정말로 울음을 그칠지. 삶의 변화는 이렇게 찾아온다.

〈전북불교대학 학장〉

불교박람회를 핫하게 만든 맷돌커피
맷돌의 미학 커피의 철학
밀스톤 맷돌 커피 그라인더
Millstone
수동 압착식 원두 분쇄, 고흥석·오석이 빚어낸 원형의 미학과 기능성



- 고흥석 원석 : 약 13.1㎏
- 오 석 원석 : 약 14.1㎏
- 크기 : 헤드 지름 16㎝×받침 지름 26㎝×높이 27㎝
- 수동 회전 압착 분쇄 방식
- 반영구적 내구성 – 최고급 수공예품
- 국내 기술 특허 및 국제 기술 특허 등록

~~정가 1,800,000~~ ⇒ 할인가 1,400,000
특판 보급가
~~정가 2,000,000~~ ⇒ 할인가 1,600,000



핸드드립 애호가와 홈카페 유저를 위한
'한 잔의 철학'을 담은 맷돌 그라인더

패키지 구성품
맷돌 본체, 커피 수납용 컵, 전용 브러시, 맷돌 손잡이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은 www.mahamall.co.kr /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2025년 7월 30일 수요일 | 불기 2569년

접 수 문자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10-4648-8200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541호 | 15 | 전면광고

분수에 알맞은 곳에 살고
일찍이 공덕을 쌓고
스스로 바른 서원을 하는 것,
이것이 더없는 행복이다.



부처님 말씀 읽기 - 《숫타니파타》에서

광 진 불 사

- 위치 : 서울 • 부지 : 300평 • 건평 : 150평 외 • 매가 : 15억 • 산 밑 차량진입, 주차가능
- 위치 : 경남 • 면적 : 700평, 전통사찰 • 법당 : 30평 외 • 매가 : 30억 • 산 밑, 주차가능

※5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상담 받습니다.
※전국 전통 사찰, 암자, 땅, 다량 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합니다.
※사찰관련 컨설팅, 양도, 양수, 전통사찰지정, 신행, 출가,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스님유품정리. 골동품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 찰 안 내

- 포교원 하실분
- 위치 :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 • 매매가격 : 5억5천
- 대지 : 107평(354㎡) / 건평 : 150.2평
- 지하 : 24.4평 / 1층 : 67.4평 / 2층 : 58.3평 / 옥상
- 1층과 지하 전세줌 / 1층 화장실1 2층 법당1 방2 주방 거실 화장실2

010-3042-085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 (양평역세권 5분거리)
- 대지 : 2종근생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 - 1동 / 공양간 30평 요사채 23평 2층 - 1동 / 종무소 · 객방 13평 - 1동
- 용도 : 사찰 · 사찰음식 · 명상센터 · 다원 최상입지
- 가액 : 12억원(답사 후 절충)

010-4461-3825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 달성군 가창면 사찰
- 평수 : 18513㎡(5600평)
- 매매 : 17억

010-4646-2580

포교당(급)안내

- 위치 : 부산시 연제구 좌수영로 토곡사거리 도로 옆
- 31평 규모
- 법당, 주방, 친견실, 화장실, 방1개
- 시설비 : 700만원 (보증금 1500/50)

직통 010-5014-7570

사찰(급)안내

노환으로 급매

- 땅(종교부지) 값만 받고 양도합니다.
- 위치 : 강원도 삼척시
- 대지 : 약 500 평
- 법당, 산신각, 미륵불, 탑 종각 및 범종, 요사채 2동
- 시내와 인접하여 교통 편리
- 집기류 전부 다 줌 • 법회 즉시 가능

좋은 인연 기다리겠습니다.

010-2366-282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사천시 서포면 대동안길 32번지 해동선원
- 신축법당 25평, 요사채 50평
- 산신각 사리전 나한전 용왕당
- 총 290평 및 국유지 720평
- 가액 : 3억 6천 만원(절충가능)

010-3596-0088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창원시 마산
- 대지 : 600평 / 임야 : 3600평
- 건물 : 대웅전55평 공양실35평 종무소10평 요사30평
- 천연 지하석수 1일 200톤 이상
- 가액 : 7억원

010-6764-0034

포교당(급) 안내

- 위치 : 경기 시흥시 정왕동(정왕역 차로5분)
- 주변 : 정왕동아파트 대단지, 대형마트, 대형병원 월곳, 배곧, 아파트 신도시
- 규모 : 4층 전체, 옥상 사용 엘리베이터. (총: 110평) 사용.
- 법당: 삼존불, 신중단, 산신단, 약사여래불, 영단 큰방 3개, 사무실, 창고방, 에어컨법당 2개, 각방마다
- 보증금: 1000, 월세 150(보증금, 월세조정)
- 권리금 일체시설, (법당, 각방, 일체 집기시설) 5000만원 (바로 법회 가능)

※통화 안될때 문자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010-8599-946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동고령ic부근
- 230평 법당18평
- 산신각 용왕당 노천미륵불과 용왕불 3필지
- 가액 : 4억7천
- 절충가능

010-3540-8431

사찰(급)안내

- 밀양 전망이 아름다운 암자
- 246평 (법당, 약사여래, 산신각)
- 요사채 25평(방3개, 화장실2개, 거실, 공양간)
- 태양광 시설 등 비품 일체
- 스님 부재로 급매
- 가액 : 1억 2천만원

010-7572-852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경주시 안강읍
- 대지 90평 건물, 1층 요사채 34평 2층 법당 25평
- 조용하고 기도정진 좋은 곳
- 은행, 병원, 마트 등 가까움
- 가액 : 5억원(절충 가능)

010-2458-6655

부동산 모든문제(사찰)를 해결해 드립니다

못파는 부동산(사찰)을 팔아드립니다. (무료상담)
못사는 부동산(사찰)을 사드립니다. (무료상담)
(사찰 : 5천만, 9천만, 2억, 5억, 9억, 12억, 15억, 30억, 75억 매물보유)
정성 부동산문제해결연구원 원장 행정학박사 정 용

정용 원장 약력

부동산평론가 (전국최초), 부동산 중개경력 40년 / 영남대학교 부설 글로벌평생교육원 부동산경영최고위과정 책임교수 / 대구과학대학교 부동산금융학과 겸임교수(역임), 방송인 / 경일대학교 부동산지적학과 겸임교수 (역임), 영남일보객원기자(역임)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구광역시 9대 지부장, 대구광역시 7대 시의원

대구 동구 제27140-2021-00097호

정용 공인중개사무소 대표 010-2512-7777

사 찰 안 내

- 전국 산중 사찰 중 개곡 있고, 숲이 많고, 터가 넓고, 도로좋은 곳
- 산중사찰 중 토지 넓은 사찰
- 수목장, 납골당 가능한 곳(경북)
- 도심 포교당 1억에서 3억
- 도심 사찰 중 15억 이내
- 사찰함께 운영할분(템플스테이 등)
- 전통사찰 중 문화재보유 사찰 울산, 대구, 경북, 경남, 충남 · 북
- 1억~2억 금액 암자(토굴)
- 2~3년 사찰임대 놓으실분 구함 2~3년 후 임대한 스님 구입확실

053-745-9999, 010-2512-7777

사 찰 안 내

- 위치 : 장호원 감곡kt역 10분거리
- 대지 1100평 대웅전
- 60평 종각, 요사채3동, 휴게실 다도, 산신각
- 신비스런고 유명한 거북바위소원돌, 찜질방, 연못 12m해수관음보살, 대형용, 요양원 토목공사 완공

*상담 가능(월수금은 기도중 입니다)

010-5883-2255

사 찰 안 내

- 위치 : 가야산 아래 백운동 60평
- 1가구 2주택 해당 안되는 공기가 매우청정한 토굴
- 거실, 방2, 화1 군불넣는 잘지어진 황토방1
- 가액 : 6900만원

010-9468-0122

포교당 안내

전월세입자 구함

- 위치 : 김해시 진영읍 진영로160 4층
- 면적 : 4층 45평, 총 90평 전체 사용 가능
- 대웅전 약 30평, 공양간, 종무소
- 요사채 별도 존재, 몸만 오시면 됩니다
- 전세금 및 집기 일체 5000만원(절충)

010-4179-6212

사찰(급)안내

- 위치 :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
- 대지 : 130평
- 법당, 소불당 삼성각 용왕당
- 사시사철 자연수, 상수도 전망 아주좋음
- 매매 또는 전월세 가능

010-5033-1422

포교원 안내

- 위치 : 울산시 남구 2층 (법당 포함 35평)
- 도시가스 사용
- 보증금 1천만원 월세 44만원
- 시설비 : 500만원
- 즉시 법회 가능

010-9416-1046

사찰(급)안내

- 위치 : 충남 아산시 (천안 생활권)
- 법당 30평/공양간 15평 요사채 20평
- 가액 : 2억 8천(융자5천포함)
- 대원사

010-5416-085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합천군 대병면 합천호수로(무학대사 숫가락으로 우물판 자연동굴 옆, 굿당-기도처 최적지)
- 약 80평 사찰
- 법당 요사채 대지420평 임야 210평
- 가액 : 3억원

010-2078-9595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 도원동(대곡아파트 단지, 대곡시장 옆)
- 5층 건물 중 4층, 건평 60평
-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트 완비
- 보증금 1000만원/월세 70만원(현재, 절충)
- 법회시설 완비(바로 법회 가능)
- 찜질방1, 공양간, 친견실1, 종무소1

010-3545-4444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시내
- 대지 : 110평
- 대웅전 삼성각 요사채
- 가액 : 7억 4000만원

010-3868-8219

사 찰 안 내

- 위치 : 청통와촌IC에서 7분거리
- 아주 고요하고 조용한 사찰
- 총 평수 453평, 현대식 건물 3동 1층 요사30평, 14평, 산신각 2평 2층 법당28평
- 건물 대지 종교건물
- 가액 : 3억 5000만원

010-5804-5100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현대불교신문 지면광고시 무료영상 게재

NO.1 사찰 매매 정보 채널

좋은 인연 사찰 안내
사찰 복덕방

www.youtube.com/@사찰복덕방

사찰복덕방

2025년 7월 30일 수요일 | 불기 2569년

접수 문자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게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의 010-4648-8200

가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안내

1541호 | 16 | 전면광고

베를 짜는 북처럼 곧고 편안하게 서서
모든 악한 행위를 싫어하고,
바른 것과 바르지 않은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
현자들은 그를 성인으로 안다.

부처님 말씀 읽기 - 《숫타니파타》에서

부산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 학인모집

1. 부산영산재의 각 전승 교육사 의식 염불, 사물
2. 천수바라 · 오공양작법
3. 다게작법 · 운심게작법

- 특별반 3개월과정모집
- 사) 대한문화 전통불교조계종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부산영산재 (전수장학생 한시적 등록추천)
사무국 총무원 010-5511-7000

범음·범패 학인 모집

- 각단의식 및 예불, 천수바라, 작법
- 사물 법고, 정근북, 송주북
- 각 사찰 행사 합니다
- 진주 금륜사 강주 스님 도강 합장
- 주소 : 진주시 집현면 진산로 1528-7 금륜사

010-7579-8200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 점안, 살풀이, 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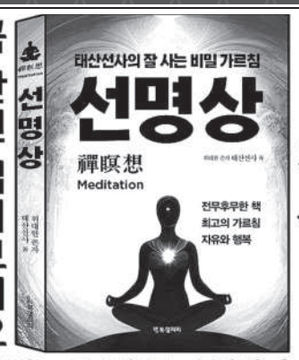
010-2168-2800

(사찰행사)범음범패

49재, 천도재, 점안식
바라, 나비춤, 생전예수재

연암당 덕평스님
010-6219-4757

꼭 한번 읽어보세요



책이름 검색해보세요
010-5105-5000

양도공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개인사암, 단독법인 가능함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0-5412-8040 법광

이조불교 재활용센터

- 대불, 소불, 동불, 탱화, 법당 제작 (수미단, 닷집, 운각)
- 법당 철거, 오래된 불서 고가 매입

*사찰 사고팝니다.

010-9177-7842

지혜 방편! 사주·명리·구성학

1 :1 강의 단기완성!
포교당 스님! 찻집보살님!
안양시. 토굴 · 스님

010-9497-3476

사찰토지보상 전문

JMY토지보상(감정평가)

덮어놓고 보상
삼보정재 손실
원가보상 철퇴!
사찰땅 가치인정

보상상담 도우미
010-2701-9500

불교 용품 경매 알림

품목 : 불상, 불경, 불기
불화용품, 불교관련 용품
매월 넷째주 토요일 오후1시부터
장소 : 전북 남원시 사매면 세동길 8

오리정휴게소 내 010-3717-4032

최고급 암컷흑염소 전문 염소명가

식품안전관리인증 HACCP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썹(HACCP) 인증업체

현대해상 식품배상책임보험 3억원

국내산 암컷흑염소와 30가지의 전통원료로 소화잘되는 진액

흑염소진액 골드





할인행사
2박스 (60포)
240,000원

농업회사 (주)미성팜 택배가능
충주시 주덕읍 충청대로 2236-1 나동
043)845-5596 / 010-2136-9889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 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 본 지면의 생활안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누구나
인생의 기로에서 지표가 되는,
그리고,
누구라도 쉽게 볼 수 있는 삶의 나침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위치 : 창원시 · 경남 고성



상담 : 010-2090-4030

미륵암 '지평대사' (12불 수기) 말기암 환자 1~3개월 내 치유

교도소, 오지 등 전국방문 가능 / 즉시 영가 천도
종교인 상담불가, 불교-무교인 상담환영
지평대사는 법문 대신 설법을 합니다
친견상담비 30분 330만원 / 완치 1억 5000만원부터 시작

010-4804-2309

육임 정확도 효과성 착목도 속도성 보장

익명성 지피(知被:감추는 상대의 비밀 · 고민사 판단됨-생년월일시 불필요함)

검증 30년의 신뢰! 분실 파손 재실행 영구사용!

1. 상대(방문 전화)가 누구든, 언제 어디서든, 무슨 문제이든 실시간으로 미리, 또는 즉시 판단됩니다.
2. 오늘 몇 시, 내일 몇 시, 방문, 내방, 전화이든, 지난 또는 다가올 당시의 연월일시든, 상대 속마음, 용건, 사안의 대소, 가부 호악 진퇴 희비 및 감추는 비밀사까지 미리 또는 즉시 화면에 나타납니다.
3. 상대가(전화포함) 해당 사안에 대한 이익 될 人 인지, 피해줄 人 인지, 손해나게 할 人 인지, 무력 人 (지위고하세력 막론, 해당사안 위주) 인지가 미리 또는 즉시 화면에 나타납니다.
4. 동일한 시간에 여러 사람이 오거나 찾아가거나 전화통화를 하더라도 '다음사람' 버튼만 누르면 자동으로 해당인의 여러 내용이 즉시 나타납니다.

- 왜 왔는가?
- 상대의 신뢰심(진위고집불성등) 여부
- 주요상담성취 안좌방위 및 회의 안건 반대자 여부
- 교섭 전후난이 상대진위 여부
- 소송 승패(구속 불구속) 여부
- 주식 이익종목 선택 및매도 매입 시기
- 상대 충성배신 여부
- 남여 성력(性力) 및 선호 태위 여부
- 주요 공사책임자 선정 및 무사고 개시 일시여부
- 깃발 착복색 선택 당선 승진 취직시 험사 여부
- 생업가정흥쇠여부
- 남녀 독신 고독 생사별자 여부
- 부부 동시 색정 1남2녀 1녀2남 삼각관계 여부
- 사안의 대소규모 여부
- (상대 현재실정)
- (상대구체 사안)
- (상대적확성)
- 상대 계획 도모사 측정 여부
- 전화 친견 상담용
- 면접사 여부
- 모망사 여부
- 구재사 여부



50일간 특별할인가격 90만원(업데이트 완성)
카드 3개월 결제 – 결제 즉시 소지 휴대폰에 실행파일 전송



50일간 특별할인가격 200만원(완결판) 교환 30만원
육임 USB 프로그램 – 인터넷 없이 영구 사용
02-567-3850 / 010-7596-5146
한국육임학회(육임쇼핑)

- 귀신침해 부정 침범 산소탈(묘지속水蛇)여부 및 해소 방편
- 수법(천도 시식기도) 효과 유무
- 효과기도 분류
- 이혼 승패(유리 불리 여부) 운세 명암 지점 여부
- 임대 임차 이해친소 가옥 사옥 이전 길방여부
- 상대 신분(대통령, 장관급, 차관, 고위급, 지방관서장, 사계실력인, 우고인) 여부
- 목적 성취기도 일시 지정
- 금융재 금액 대소여부
- 선출직 성격 실적 사전 판단
- 뇌물 증여 가납 효과 여부
- 질병치유 여부
- 가출 귀가사 여부
- 혼인사(용모 가문 시기)
- 연년세세 1년 월별 신수
- 친화 구해 자녀 여부
- 혼인 부부 성격-궁합 여부 등등
- 우고사 해소되는 방문(전화) 시간 명시
- 무성(無聲:헛소리)에 불과한 방문(전화)시간 명시
- 임신사 여부
- 출산 길일 길시 선택 지정

위 육임 프로그램과 육임Ai와 육임 각 활용서 극대 효능을 위한 저, 효사 개별 직접 방문 전국 순회 일정입니다.
서울지역 월요일 14시 대전지역 화요일 14시 전주지역 수요일 14시 광주지역 목요일 14시 부산지역 금요일 14시 대구지역 토요일 14시 강원지역 일요일 14시



최원섭의
불교, K-드라마로 만나다

⑮ '쓸쓸하고 찬란하神 – 도깨비'(2016)

힘 되어 주는 이, 신적 존재로 그려내

저녁 고갯길을 넘어가는 어떤 사람 앞에 장정이 한 명 나타나 씨름을 하지 않으면 지나갈 수 없다고 했다. 그래서 씨름을 하게 됐는데 도무지 이길 수가 없었다. 고개를 넘기 어려워진 이 사람은 꾀를 내어 "어, 날이 새는구나!"라고 말하고 장정이 움찔하는 틈을 타 얼른 쓰러트렸다. 그렇게 씨름에서 이기고는 장정이 정신을 차리기 전 근처에 있는 나무에 꽁꽁 묶어 두고 서둘러 고갯길을 지나갔다. 다음날 해가 뜨자마자 고갯길 나무 밑으로 가 보았더니 장정은 없고 피 묻은 빗자루만 있었다.

이것이 가장 한국적인 도깨비 이야기다. 도깨비라고 하면 뿔이 있는 모습에 산적처럼 거적을 두르고 방망이를 들고 다니며 "금 나와라, 뚝딱!" 하는 존재로 많이 알려졌지만, 지금 보는 것처럼 실은 덩치 큰 장정의 모습이 일반적이라고 한다. 뿔 달린 도깨비는 일본 영향으로 왜곡됐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드라마 '쓸쓸하고 찬란하神 - 도깨비'에서 롱코트를 입은 훤칠한 인물로 그려지는 도깨비는 민속을 잘 반영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고려의 무신 김신(배우 공유)은 변방의 외적을 물리치고 도성으로 돌아왔지만, 역적으로 몰려 부하들과 함께 목숨을 잃는다. 시신을 수습하지 말라는 왕명으로 검이 꽂힌 채 20년 동안 버려져 있던 자리에 생전에 김신을 모시던 하인이 손자와 함께 찾아와 이제부터는 손자가 모실 것이라며 눈물을 흘린다. 그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음성. "너의 백성의 염원이 널 살리는구나. 허나, 홀로 불멸을 살며 사랑하는 이들의 죽음을 지켜보아라. 오직 도깨비 신부만이 그 검을 뽑을 것이다. 검을 뽑으면 무(無)로 돌아가 평안하리라." 그렇게 김신은 도깨비로 부활하여 938년을 살고 있다.

현대의 어느 날, 교통사고를 당해 곧 숨이 끊어질 산모가 김신의 자비로 살아나고 그때 태어난 지은탁(배우 김고은)은 도깨비 신부의 운명을 가졌다. 그래서 죽은 이들을 볼 수 있고 삼신할머니나 저승사자도 볼 수 있다. 원래는 태어나지 못할 운명이었기 때문에 저승사자의 표현대로라면 '기타 누락자'가 되어 아홉수마다 저승사자를 피해 다녀야 하는 은탁. 엄마의 죽음으로 9살에 마주친 저승사자는 삼신할머니 덕에 피했지만 이제 19살이 된 은탁은 저승사자뿐만 아니라 도깨비까지 만난다.

한번 세상에 태어난 이상 어떤 존재이든지 유한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때문에 우리는 종종 불멸의 존재를 꿈꾸기도 한다. 드라마에서 신격으로 표현되는 도깨비나 저승사자 같은 존재들이 대표적이다.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나 할리우드 영화 '슈퍼맨'처럼 외계에서 온 존재들이 불멸의 존재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뿐인가. 불로장생을 꿈꾸는 종교도 있고, 중국의 어느 왕은 불로불사의 약을 구하려고 이역만리까지 신하를 보냈다고도 한다.



사진 출처=tvN 공식 홈페이지

도깨비 저승사자 등 불멸의 존재 꿈꿔
불교에서 세상 첫 법칙으로 '무상' 꼽아
변화 아는 삶이 변화에 걸리지 않는 삶

과연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도깨비 김신이나 저승사자처럼 현재의 모습 그대로 천 년이고 만 년이고 살아가는 모습을 바랄 테니 결국 한평생 늙지 않겠다는 말일 것이다. 청춘의 고개를 넘고 나면, 나이가 들어가는 것을 '늙는다'라고 표현하지만, 훨씬 어린 나이일 때는 '자란다'는 말을 쓴다. 아기의 상태로는 아무런 일을 할 수 없으니, 온전한 사람 역할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자라야 한다. 그런데 사실은 늙는다는 말이나 자란다는 말이나 본질은 같다.

영원히 살고자 하면 변화하지 않아야 한다. 몸속의 세포 하나하나가 늘 같은 형태를 유지하든지, 아니면 똑같은 모습으로 재생해야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우리의 몸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순간에도 변화하고 있다. 세포들은 찰나마다 멸하고 생하는데, 재생의 속도는 점점 더디어 가니 노화의 속도도 빨라진다. 삶 자체가 변화라는 말이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세상의 법칙 중의 첫 번째를 무상(無常)으로 꼽는다. 무상하다는 말이 워낙 한탄스럽고 애통한 상황에 쓰이는 경우가 많아서 나쁜 어감으로 느껴지기도 하지만 무상이라는 말은 단어 그대로 '항상함이 없다' 즉 변화한다는 말일 뿐이다. 부유하게 살던 사람이 갑자기 힘들어져도 세상 무상한 일이지만 한없이 고생하던 사람이 넉넉하게 살게 되어도 무상한 일이다. 그러니 몸이 늙는다고 한탄한 일은 아니다. 그저 변화일 뿐이다.

그럼에도 천 년 가까이 살아온 경험과 인간관계로 엄청난 부를 누리고 사는 김신을 보며 그것이 바로 영원한 삶의 매력이라고 느낄 수도 있겠다. 하지만 김신은 자신의 재산을 현실에서 관리할 '김 서방'이 끊임없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그 시간 동안 모든 주변 사람들의 죽음을 끊임없이 경험하며 겪는 괴로움이 있다. 끝없는 삶이 얼마나 외롭고 허망했으면 견디다 못해 스스로 칼을 뽑아 '무'로 돌아가려고까지 할까.

김신을 도깨비로 부활시킨 존재가 "홀로 불멸을 살며 사랑하는 이들의 죽음을 지켜보라"고 한 것은 상이 아니라 벌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래서 김신은 가슴에 꽂힌 칼을 뽑아 주어 '무'로 돌아가게 할 도깨비 신부를 긴긴 세월 찾고 있었던 것이다.

이쯤에서 "태어나지 말라, 죽기 괴로우니. 죽지 말라, 태어나기 괴로우니."라는 〈삼국유사〉의 유명한 구절이 떠오른다. 세상에 태어난 이상 노병사(老病死)의 변화를 겪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니 이런 변화를 당연한 것으로 알고 사는 것이 변화에 걸리지 않는 삶이다. 더 나아가 그 변화를 벗어나는 것이 진정으로 영원한 삶을 사는 일이다.

드라마 '쓸쓸하고 찬란하神 - 도깨비'는 힘든 삶을 살고 있을 때 누군가 힘이 되어 주는 이가 있다면 그가 바로 신적인 존재임을 끊임없이 이야기한다. 29세가 된 지은탁이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스스로를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우리의 선의가 바로 그 사람을 영원히 기억하게 하는 일이라고 말한다.

또한 이 드라마는 도깨비와 저승사자에 대한 고정관념을 완전히 바꾸는 큰 역할을 했다.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도깨비나 저승사자를 뿔 달린 괴물이나 검은 도포에 검은 갓을 쓴 존재가 아니라, 큰 검을 차고 밤길을 걸어오는 배우 공유와 중절모에 펠트 코트를 입은 배우 이동욱을 떠올린다.

사족 하나, '도깨비'라는 말을 문헌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세종 때 나온 〈석보상절(釋譜詳節)〉(1447)이 처음이라고 하는데 불교의 천신인 '나찰'이나 '야차'를 번역한 말이라고 한다. 도깨비는 배우 공유로 변신했는데, 벽화에서 만나는 우리의 나찰이나 야차는 언제쯤 친근하고 현대적인 모습으로 표현될까?

〈대행선연구원 연구원〉

십악 업륜 떠나 국토 안온 얻음 설해



법공 스님의
〈지장십륜경〉 강의

㉙ 제3권 무의행품(無依行品, 의지함이 없는 행) 제3의 1

먼저 이 품의 요약을 말씀드리면, 부처님께 올리는 천장대범의 질문에 2종의 무의행법의 악행(惡行)을 나타내 이러한 악행 중 하나만 있어도 선정을 이룰 수가 없으며, 삼승(三乘)을 이룰 수 없다고 합니다.

또한 출가에 대해 십종승상(十種勝想)을 지을 것을 설하며, 파계승도 청정한 외도보다는 낫고, 국왕 대신이라 할지라도 (僧의) 비리(非理)를 침해하지 말 것을 주장하며, 오무간죄(五無間罪), 사근본죄(四根本罪), 방삼보죄(謗三寶罪, 삼보를 비방한 죄) (법과 사람에 대한 2종에 대해) 등의 11종을 범함은 불제자가 아니며, 타무간업(墮無間業, 무간업에 떨어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파리의 질문에, 악행 비구에 대한 속인의 기가(譏呵, 꾸짖음)에 관한 십비법(十非法), 십비인(十非人)을 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장은 말세구제의 본원(本願)에 의해 말세의 십악륜(十惡輪)을 설하고 국왕 대신 등 악 비구를 수호하며, 도리어 정중(淨衆, 청정승가)을 뇌해(惱害)하며, 지계(持戒)의 비구를 훼매(毁罵, 욕하고 꾸짖는)하는 등 타무간업의 비법(非法)을 열거하며 파계나 무계를 막론하고 비구를 욕해(辱害, 욕보이고 해롭게 함)해서는 안 된다고 설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타라(栴陀羅) 등과 같은 찰제리(귀족)·보상(輔相, 재상)·바라문·거사 등 진선(眞善)들과 대조해(상왕나찰象王羅剎 등 가사袈裟를 존중하는 인연을 들어) 파계승을 해함을 꾸짖음을 훈계하고, 찰제리, 전타라 등의 십륜 죄를 들고 있습니다.

또 진선(眞善, 착한)의 국왕·대신· 바라문·거사·장자가 불법과 비구를 보호하는 것은 자연히 십악 업륜을 떠나 국토 안온을 얻는 것을 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천장 대범천의 발문(天藏 大梵天 發問):

그때 모임에 천장(天藏)이라는 대범천이 있었는데, 그는 제 십지에 머물러 보살마하살의 덕을 갖춘 이로 부처님께 예배하고 게송으로 말하였다. "공덕의 창고며 슬기의 바다시여, … 저희는 목마르게 바라나이다. 뛰어난 법의 맛과 최상의 진리의 맛을 모두가 듣기를 바라나이다."

부처님께서는 허락하셨고, 천장은 "예, 세존님"하고 게송으로 여쭈었습니다.

"예리한 슬기로 선정을 닦는 이는 안주해 방일하지 않나니, 최고 진리에 머무르기 위해서입니까? 생사(生死)에 의지하기 위해서입니까?"

"주야(晝夜)로 법의 뜻을 정진해 익히고 외우나니, 번뇌의 바다를 건너기 위해서입니까? 저 나쁜 세계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입니까? 용맹스레 정근해 복 짓는 것은 열반으로 나가기 위해서입니까? 생사 속에 처하면서 나쁜 세계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입니까?"

"총명한 찰제리(귀족)가 십왕륜(十王輪)을 성취함은, 생사 속에 잠기기 위해서입니까? 불과에 오르기 위해서입니까? 잡념의 마음은 조복하기 어려워 온갖 번뇌의 원인이니, 무엇으로 깨끗이 하여 정(定), 복(福), 송(誦)의 업을 닦겠나이까?"

그때 부처님께서는 천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착한이여, 너는 좋은 변재(辯才)로써 그 뜻을 묻는구나. 너는 모든 행에서 원만함과 수많은 부처님 밑에서 삼업을 닦아 바른 법을 흥성케 하고 삼보의 종자를 끊어지지 않게 하였다. 그런데 무량한 중생들을 이롭게 하기 위해 그런 깊은 뜻을 다시 나에게 묻는구나."

무의행대기별법(無依行大記別法):

"천장이여, 큰 기별법(記別法, 부처를 인가하는 예언)이 있는데, 무의행(無依行)이라 한다. 과거 모든 부처님도 유정들을 성숙시키기 위해, 생사의 법을 싫어해 떠나게 하기 위해, 삼승을 닦는 이가 빨리 원만하게 일승(一乘)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 이 무의행이라는 큰 기별법을 설명하시고 거기에 주지(住持)하셨느니라. … 현재 시방 부처님도 … 미래 시방 부처님도 …."

"무의행이라는 큰 기별법을 설명하시고 거기에 안주하셨느니라. 너는 자세히 듣고 잘 명심하여라. 너를 위해 분별 해설하리라."

천장은 "예, 세존님. 듣고자 하나이다."

〈송림사 주지〉



윤인수 원장 연구개발

겨우살이환

재료명: 겨우살이, 느릅나무뿌리껍질, 도라지, 더덕, 모과, 천문동, 맥문동, 비파잎, 삼백초, 뽕나무뿌리껍질, 둥굴레뿌리, 무화과, 탱자, 대추, 산사나무열매, 맥아
비염이 있습니까? 숨이 차십니까? 기침,가래가 힘드십니까? 천식에 힘드십니까?

여 주 환

재료명: 여주, 돼지감자, 바나바잎, 민들레, 복분자, 옥수수수염, 오미자, 구기자, 천문동, 창출, 뽕나무뿌리껍질, 음나무줄기, 독활, 작약, 칡뿌리, 감초, 산사나무열매, 맥아
당뇨 있으신 분 혈당수치관리에 좋습니다. 다이어트가 필요하신 분은 꼭 드세요.

전복껍데기환[석결명 스틱]

재료명: 전복껍데기, 마리골드, 국화, 민들레, 엉겅퀴, 백작약, 다시마, 톳, 산사나무열매, 맥아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당뇨망막병증 등 눈에 문제가 생기면 석결명환으로 해결하세요.
세종대왕께서도 드셨다고 세종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도 애주도 유독시 석결명죽을 드셨다고 방송되었습니다.

폐청소법, 치매·중풍 예방법 등 성인병에는
윤인수 원장의 경혈자극요법을 활용하세요.
기침, 가래, 기관지염, 비염, 폐렴, 기관지폐렴, 폐 화농증, 편도선염, 축농증, 천식, 불면증, 수면장애, 어지럼증, 두통, 이명(귀울림), 구안와사, 조현병, 협심증, 위염, 위경련, 변비, 어깨·관절통증, 발목관절통증, 오십견, 목이 쉬었을때, 전립선 질환, 요실금, 콩팥 위축, 방광염, 신장염, 황달, 간경화, 피부가려움증, 다이어트, 생리불순, 백내장, 각막염, 결막염, 녹내장, 황반변성, 야맹증, 원형탈모증, 삼차신경통(상지, 중지, 하지) 등


골담초환

재료명: 골담초분말, 쇠무릎뿌리, 황칠나무, 두충, 가시오가피, 참당귀, 울금, 덩이뿌리, 쇠비름, 독활뿌리, 개다래열매, 천마뿌리, 율무, 질경이, 음나무줄기, 왕느릅나무껍질, 엉겅퀴, 산사나무열매, 맥아
허리, 다리가 불편하십니까? 오래 걷기 힘드십니까? 계단 오르기 힘드십니까?

산수유환

재료명: 산수유, 호박씨앗, 옥수수수염, 복분자, 사상자, 토사자, 구기자, 오미자, 천궁, 우슬, 복령, 산청목, 질경이, 뽕나무뿌리껍질, 두충, 산사열매, 맥아
소변때문에 밤에 몇번씩 일어나십니까?

어성초환

재료명: 어성초, 적하수오, 자소엽, 측백나무잎, 서목태, 원지, 우슬, 천문동, 마가목열매, 복분자, 솔잎, 뽕나무뿌리껍질, 녹차잎, 창출, 구기자, 산사나무열매, 맥아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십니까?

전화주시면 간략하게 설명드립니다

하지·아이케어센터 | 구입문의 : 02-969-9007 / HP.010-3245-0118
농협 : 301-0234-9633-61 / 예금주 : 윤제하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 루 자 죽 염 125g 45,000원
가 루 자 죽 염 230g 82,000원
알 갱 이 자 죽 염 125g 50,000원
알 갱 이 자 죽 염 230g 90,0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9,000원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20,000원
250g 10,000원

※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 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길381-4 www.msjy.co.kr

이승혜의 그녀, 붓다를 만나다 ⑮ 소혜 왕후의 사홍원과 불서 간행



▶한줄 요약
유교적 학식을 갖추고 도덕을 실천한 소혜 왕후는 불교에 의지했고, 언서를 통해 불교를 옹호하며 공론화했다는 점에서 다른 비빈들과 구별된다.

유신에 맞서 불교 감싼 외호중

〈外護衆〉

의경 세자(懿敬世子)의 빈, 세조(世祖)와 정희 왕후(貞熹王后)의 맏며느리이자 성종(成宗)의 어머니, 그리고 연산군(燕山君)과 중종(中宗)의 친할머니로 기억되는 한 여성이 있다. 이 여성은 동시에 공혜 왕후(恭惠王后), 연산군의 모후인 폐비 윤씨(廢妃 尹氏), 중종의 모후인 정현 왕후(貞顯王后)의 시어머니이기도 했다. 바로 인수 대비(仁粹大妃)로 더 잘 알려진 소혜 왕후(昭惠王后, 1437~1504)다.

부계, 그것도 왕계를 기준으로 짜인 이 촘촘한 관계망 속에 그녀는 누군가의 딸이자 아내, 며느리, 어머니이자 시어머니, 그리고 할머니이다. 조선 왕실의 격동기였던 15세기를 누구보다도 주체적으로 헤쳐 나갔던 소혜 왕후의 대중적 이미지는 그다지 좋지 않다.

소혜 왕후에게는 어떻게든 아들을 왕위에 올리고자 했던 정치적 야망가, 며느리 폐비 윤씨를 죽인 악독한 시어머니이자 그 업보로 연산군이란 폐주(廢主)를 만들어 낸 실패한 양육자라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꼬리표처럼 따라다닌다. 그러나 일곱 왕대를 거치며 장구한 삶을 산 그녀에게는 대중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면모가 있다.

소혜 왕후는 여성을 위한 규훈서인 〈내훈(內訓)〉을 남긴, 우리나라 역사상 이름이 확인되는 최초의 여성 저술가이다. 유교적 교훈서를 저술한 이 여성은 놀랍게도 신실한 마음으로 많은 불사(佛事)을 벌인 대시주(大施主)였으며, 유신들에 맞서 불교 교단을 적극적으로 감싼 외호중(外護衆)이었다. 또 한문 불전의 언해(諺解, 한글 번역)에 참여한 지식인이자, 불서를 지속적으로 펴낸 간행 주체이기도 했다.



소혜 왕후 편, 〈내훈 권2, 3〉, 조선 1611년 간행, 목활자본(훈련도감자), 국립한글박물관 소장. 사진=emuseum



〈능엄경언해 권1〉, 조선 1461년, 을해자본, 개인 소장, 보물. 사진=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불조역대통재〉(전 22권 7책), 조선 1472년, 목판본, 담양 용화사 소장, 보물. 사진=국가유산청

효부(孝婦), 폭빈(暴嬪), 여후(女后)

소혜 왕후는 1437년(세종 10) 한확(韓確)의 막내딸로 태어났다. 그녀는 명나라 황실을 비롯해 조선 왕실과도 사돈 관계를 맺은 매우 특이하고 지위가 높은 명문가에서 성장했다. 소혜 왕후는 1455년(단종 3)에 수양 대군의 맏아들 도원군(桃源君) 장(暲)과 혼인해 군부인(郡夫人)이 되었다.

혼인 직후 시아버지 수양 대군이 왕위 찬탈에 성공하면서 남편은 의경 세자로 책봉되었고, 자신은 세자빈으로 봉해졌다. 세자빈 한씨는 처음에는 정빈(貞嬪)의 작호를 받았으나, 태종비 원경 왕후(元敬王后)도 세자빈 시절 정빈으로 불렸기에, 한씨는 후일 수빈(粹嬪)으로 호칭을 고쳤다.

그러나 세자빈 생활은 채 2년 3개월여에 불과했다. 1457년(세조 3), 의경 세자가 요절하자 시동생인 해양 대군(海陽大君, 후일의 예종)이 세자로 책봉되었고, 21살의 한씨는 어린 세자녀와 함께 출궁했다. 비록 사가(私家)로 물러났으나 수빈 한씨는 궁 밖에서도 세조의 큰 며느리로서의 위상과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였다. 한결같이 시부모를 섬기는 맏며느리를 세조는 늘 효부(孝婦)라 칭찬했다. 한편, 세조 부부는 사소한 과실만 있어도 두 아들 월산군과 자을 산군을 엄히 꾸짖는 흐트러짐 없는 며느리를 '폭빈(暴嬪, 사나운 세자빈)'이란 별명으로 놀렸다.

1469년(예종 1), 예종은 왕위에 오른 지 불과 14개월 만에 승하했다. 예종이 붕어하던 날, 왕실의 가장 큰어른인 정희 왕후는 의경 세자와 수빈 한씨의 둘째 아들 자을산군(훗날의 성종)을 예종의 양자로 들여 대통을 잇게 했다. 신료들이 나이 어린 성종을 위해 정희 왕후에게 수렴청정을 청했다.

정희 왕후는 본인은 문자를 알지 못하지만 수빈 한씨는 문자도 알고 사리(事理)에도 통달했다며 그녀에게 수렴청정을 맡길 뜻을 연거푸 전하기도 했다. 그러나 수빈 한씨의 수렴청정은 원로 재상들의 반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 일화는 정희 왕후가 수렴청정을 양보할 만큼 수빈 한씨를 돈독히 신뢰했으며, 그녀의 정치적 감각과 학문적 교양을 높이 샀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성종의 즉위 이후 수빈 한씨는 13년 만에 궁으로 돌아왔다. 왕위에 오른 성종은 친아버지인 의경 세자의 위호를 높이는 일에 나섰다. 성종이 오랜 시간을 들여 이 작업을 추진하는 동안, 수빈 한씨는 1470년에 '인수 왕비(仁粹王大妃)', 1475년에는 '인수 왕대비(仁粹王大妃)'·'덕종비(德宗妃)'·'회간 왕비(懷簡王妃)'라는 존호를 얻었다. 이 같은 여러 칭호는 그녀가 겪었던 삶의 다양한 단계를 드러낸다.

세조 맏며느리, 연산군 · 중종 친할머니
15세기 누구보다 주체적으로 헤쳐 나가
이름 확인되는 첫 〈내훈〉의 여성 저술가
학식 갖추고 도덕 실천하며 불교에 의지
불서 지속 간행한 불전 언해 참여 지식인

유교적인 학식을 갖추고 도덕을 몸소 실천했던 소혜 왕후는 일찍 세상을 떠난 친정어머니와 남편의 명복을 빌고, 자식들의 무탈을 기원할 때에는 불교에 의지했다.

소혜 왕후는 개인의 차원을 넘어, 유신들에 맞서 불교를 옹호했고, 이를 언서(諺書)를 통해 공론화했다는 점에서 다른 비빈들과 큰 차이가 있다. 1492년(성종 23), 성종이 국가가 승려에게 신분증을 발급해 주는 도첩제(度牒制)를 폐지하자 소혜 왕후와 예종비인 안순 왕후(安順王后)가 이를 반대하는 언서를 내린 것이 그 좋은 예다.

이후로도 소혜 왕후는 최소 두 차례 이상 도첩제 폐지를 반대하는 언문(諺文)을 내렸다. 유신들이 소혜 왕후의 발언을 모후의 정치 간섭이라고 연일 비난했으나, 그녀는 굽히지 않고 계속해서 목소리를 드높였다.

추선(追善)의 마음을 새겨 찍다

세자빈 시절부터 대왕대비 시절에 이르기까지, 소혜 왕후는 60여 년에 가까운 오랜 세월 동안 다양한 형태의 불사를 후원했다. 소혜 왕후가 벌인 불사는 불상과 복장, 불화, 불교 경전의 필사와 간행, 범종의 발원에서 사찰의 중창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그중 귀한 재료를 내어 경전을 베껴 쓰고 장엄하는 사경(寫經)과 불교 경전을 다량으로 인쇄해 간행, 시주하는 인경(印經)은 소혜 왕후의 불사에서 가장 이른 시기부터 확인된다. 또 사경과 인경은 소혜 왕후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선호했던 불사이기도 했다.

세조의 시대는 명실공히 조선 전기 왕실의 지적, 재정적인 역량이 총동원된 불서의 편찬과 간행의 황금기였다. 또한 이 시기에는 아직 창제되지 얼마 지나지 않은 훈민정음을 이용해 한문 불전 언해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세조가 누구인가. 세조야말로 대군 시절인 1446년에 부왕인 세종의 명을 받아 돌아가신 어머니 소헌 왕후(昭憲王后)를 추모하기 위해 〈석보상절(釋譜詳節)〉을 편찬하고 이를 훈민정음으로 번역한 장본인이 아닌가. 세종은 〈석보상절〉을 보고 손수 찬불가인 〈월인천강지곡(月印千江之曲)〉을 훈민정음으로 지었다.

세조는 왕위에 오른 뒤에도 불서 사성(寫成)과 불경 인출을 이어갔다. 1457년(세조 3)에는 의경 세자가 죽자 명복을 빌기 위해 친히 불경을 사성했으며, 많은 불경을 경판으로 찍고, 여러 종류의 불경을 활자로 인출했다고 한다. 또한 1459년에는 〈석보상절〉과 〈월인천강지곡〉을 합하여 〈월인석보〉를 간행했다. 1461년(세조 7)에는 왕명으로 간경도감(刊經都監)을 설치해 불경의 언해, 판각, 인쇄, 간행을 전담하게 했다. 간경도감은 1471년(성종 2)에 폐지될 때까지 11년간 존속했다.

세조의 아낌을 받는 맏며느리였던 소혜 왕후는 누구보다도 가까운 거리에서 세조의 간경 사업을 지켜보고 거기에 직접 참여했다. 1460년 5월, 세조가 친히 언해와 간행을 주도한 〈능엄경언해(楞嚴經諺解)〉는 이 같은 정황을 알려준다. 〈능엄경언해〉 권10의 '어제발언해주(御製跋諺解註)'에는 간행 경위와 언해 과정에 대해 언급돼 있다.

이에 의하면, 1461년(세조 7) 5월에는 회암사(檜巖寺)에서 석가모니의 분신사리(分身舍利) 100여 매가 나타난 데다가, 효령 대군(孝寧大君)의 청도 있어서 세조가 친히 〈능엄경〉을 언해했다.

구체적으로는 세조가 한문에 구결(口訣)을 달면, 혜각존자 신미(慧覺尊者 信眉)가 구결이 현토된 문장을 확인하고, 그 문장을 소리 내어 읽으며 교정하는 역할을 '정빈 한씨(貞嬪 韓氏)'등이 맡았다. 여기 보이는 '정빈 한씨'가 바로 소혜 왕후이다. 세조는 너무나 이른 나이에 청상이 된 영민한 맏며느리에게 법문을 탐구하면서 공덕을 닦을 기회를 일부러 주었던 것은 아닐까. 언해의 마지막 단계에서 확정된 번역문을 어전에서 소리 내어 읽은 사람이 '전언(典言, 내명부 소속의 궁관) 조두대(曹豆大)'란 점도 흥미롭다.

소혜 왕후의 사홍원(四弘願)

소혜 왕후는 간경도감이 폐지된 이듬해인 1472년(성종 3)에는 승하한 세조와 예종의 명복과 정희 왕후, 성종, 공혜 왕후의 장수를 빌고자 〈법화경〉 등 29종의 불경을 인출하게 했다고 한다. 이때 간행된 〈불조역재통재(佛祖歷代通載)〉의 발문에는 소혜 왕후의 사홍원(四弘願)이 인용되어 있다. 그녀는 발원문에서 대승경전을 널리 세상에 펴내 모든 사람이 다 부처의 가르침을 듣게 하고자 한다는 원을 세웠다. 그녀가 36세 되던 해의 일이다. 소혜 왕후는 노년에 이르기까지 각종 불서를 힘써 간행하며 스스로 세운 원을 이뤄 나갔다.

〈동아대 역사문화학부 교수〉





대행 스님

내 상황에 따라 용도에 따라 여여하게 걸림 없이 가는 것이 법이다

지난 호에 이어서

그리고 여러분이 자녀들을 많이 키우는데, 지금은 부부가 모두 나가서 일하는 가정이 많습니다.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미국이나 다른 나라 여러 군데를 다녀 봤지만 부부가 모두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습디다. 집을 비워 놓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애들은 애들대로 와서 자기네들이 꺼내 먹고 자기네들이 그냥 놀러 나가고 자기네들이 또 들어와서 엉망으로 해 놓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나쁜 친구도 사귀게 되고 또는 자기대로 나가서 나쁜 일도 하게 되고, 이렇게 많은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 줬죠. 나가더라도 글씨를 좀 큼직하게 써서 냉장고 앞에 붙여 놓아라. 뭐라고 쓰느냐 하면 "아무개 아무개야, 너희들 사랑해! 여기다 너희들 좋아하는 것 해서 넣어 놓았으니까 꺼내 먹어. 그리고 올 때까지 기다려 줘. 참으로 사랑하는데 우리가 같이 살려니까 어쩔 수 없잖아. 너희들도 협조해 줘." 하고 써서 거기다 뽀뽀도 좀 해서 냉장고에다 붙여 놓으면 애들이 들어와서 그걸 보고 말입니다, 마음에서 감동을 해서 절대로 나가서 나쁜 짓을 안 하게 됩니다. 나쁜 아이들하고 끄달리게 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부모들하고 화목해집니다.

마음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겉으로만, 돈만 주고 음식만 잘해 주면 그 모두가 사랑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닙니다. 진짜 사랑이란 건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돈을 많이 갖다 주는 것보다도 더 귀중한 사랑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 놓으면 모두가 화목해지고 엄마 아빠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 주면서, 엄마가 들어오거나 아빠가 들어오면 "아빠 엄마" 하고 부르고 야단법석이 나고 아주 착실해지죠. 그렇다고 얘기해 주니까 그렇게 한 분들은 다들 되찾았어요. 갈라섰던 자손들하고도, 부모 자식 사이에 갈라지고 부부 사이에 갈라졌던 분들이 다 화목하게 사랑을 하게 됐더라 이겁니다.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미묘한지 여러분이 실험해 보시면 바로 체험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속속들이 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모두가 그러한 까닭에 불교라는 자체가 얼마나 광대하고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우리가 사찰에 들어가면 향을 피우고 초를 켜고 꽃을 공양하고 또 공양물을 공양하고 이럽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물질적으로 해 놓은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공양을 할 때도 '왜 공양이라고 했을까?' 하고 한 번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볼 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건 왜냐하면 일체 만물만생이 같이 한 그릇을 먹고도 되남는 것이 공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공양이라고 합니다. 참 미묘한 공양입니다.

그래서 꽃을 공양할 때도 꽃공양이라고 하죠. 이건 일체 만물만생의 아름다운 마음씨를 말하는 겁니다. 아름다운 마음씨를 바친다 하는 뜻입니다. 이 촛불을 켜는 거는 우리 일체 만물만생이 밝게 돌아가고 있다, 여여하게 그냥 밝게 돌아가는 그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밝은 마음을 말입니다. '밝은 마음을, 부처님과 내 마음과 둘 아닌 공양을 바칩니다.' 하는 겁니다. 부처님이 따로 있고 내가 따로 있다면 얼마나 멀고, 얼마나 잘못하고 잘하고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부처님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부처님 마음이니 바로 부(父)와 자(子)가 둘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을 몇 번째 했습니다만, 내가 예전에 어디를 가다가 보니까 묘지가 두 개가 있는데, 내 자생 부(父)가 하는 소립니다. '이거는 자식의 묘고 이거는 애비의 묘니라. 그런데 애비가 자식한테로 오면 자식으로 하나가 되고 자가 부한테 가면 부로 하나가 되니 그건 무슨 까닭인고?' 하고 묻더라 이겁니다. 난 그때 시절에 너무 갑작스러운 말이라 도대체 감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감을 못 잡을 때에는 거기 앉아서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누가 말려서 못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거를 해결을 못 했으니까 못 일어나는 거죠.

보세요. 일을 할 때는 그냥 자로 하나가 되고, 가만히 있을 때는 부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마음은 체가 없어서 수천수만으로도 모습을 바꿔서 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라는 그 자체가 가만히 있을 때는 부로 하나가 되고 일을 할 때는 자로 하나가 돼서 자와 부가 둘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부처님과 내 마음이 항상 둘이라고 한다면 하나는 높고 하나는 낮은 겁니다. 그러니 항상 창살 없는 감옥에서 노예가 돼서 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그러니 아주 가깝게, 아버지는 아들과 둘이 아니다. 일을 할 때는 한 아들이 돼 버리고 일을 안 할 때는 한 부가 돼 버리니 이 미묘한 법은 바로 말로는 할 수 없는 법이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법당에 가서 칠정례를 하든 팔정례를 하든 백팔 배를 하든 삼천 배를 하든 하시지만 그거는 자기가 여유가 있을 때에 하는 거죠. 마음공부 하는 분들은 자기의 상황에 따라서 해야 합니다. 집에 불도 꺼 놓지 않고 왔는데, 불을 꺼 놓든 안 꺼 놓든 뭐, 집이 타든 말든 하던 백팔 배를 해야 한다는 법은 없어요. 법이 따로 없어요. 내 상황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그렇게 여여하게 걸림 없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당에 가서 절을 할 때도 내가 여유가 있으면 칠정례를 하든지 삼정례를 하든지 하고, 내가 여유가 없고 아주 급박할 때는 삼정례를 일정례로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과거심, 현재심, 미래심이 바로 현재심 하나로 오고, 바로 과거가 현실이고 미래가 현실이니까요. 현실도 바로 공했으며 찰나찰나 고정됨이 없이 돌아갑니다. 지금 고정되게 보는 게 있습니까, 고정되게 듣는 게 있습니까, 고정되게 먹는 게 있습니까? 고정되게 만나는 게 있습니까, 고정되게 가고 오는 게 있습니까, 고정되게 말하는 게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거 할 때 내가 했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여러분의 지금 살림살이입니다. 그대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 뜻이 이해가 잘 안되더라도 잘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내 몸과 내 몸속에 있는 자생 중생들과 같이 둘이 아니요, 법당에 가도 부처님 형상이 내 형상이요, 부처님 마음이 내 마음이요, 부처님 생명이 내 생명이요, 근본 자체가 둘이 아닙니다. 그리고 향 한 개비 켜 놓는 것도 아름답고 밝은 마음으로써 아주 착한 마음을 내는 그 자체가 바로 향입니다. 더함도 덜함도 없는 마음을 내는 그 자체가, 마음을 일으키는 그 자체가 바로 향을 피우는 겁니다. 그래서 향의 양식을 먹고 산다고 아까도 노래를 했죠?

그러니 여러분이 법당에 가서도 항상

☞ 20면으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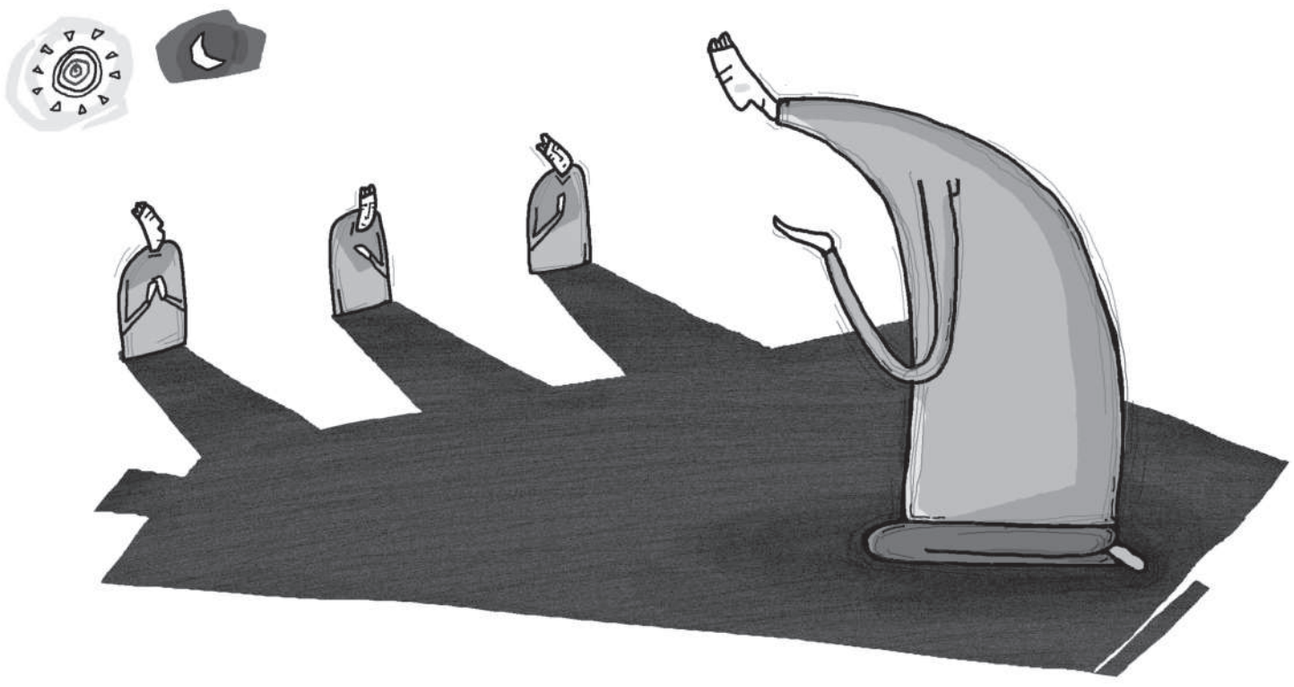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바치는 대행스님의
생활속 불법이야기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삶은 苦고가 아니다(개정판)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스님 법어집 '삶은 苦가 아니다' 오디오북 출시

대행스님의 법어집인 '삶은 고가 아니다'를 오디오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전문 성우의 목소리가 아니라 대행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공부 하는
이들이 수개월간의 정성과 노력을 담아 완성한 이 오디오북을 통해
불교를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오디오북 소개 |

제1장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내가 누구인지 모른대서야 00:03:13
• 누구나 부처 될 자격이 있으니 00:33:47
• 통하는 길은 오직 마음뿐 00:51:17
• 마음의 안테나를 세워라 1:26:20
제2장 누구에게나 똑같이 부여된 능력
• 생명의 에너지와 주인공 01:37:30
• 자신의 뿌리를 굳게 믿고 01:54:07
제3장 다 놓고 얻는 도리
• 놓고 가는 생활선 02:11:58
• 고정관념부터 깨라 03:03:44
• 삶은 고가 아니다 03:36:59
제4장 서로 돕고 사는 세계
• 공생 공용의 이치 04:23:15
• 생활 속의 마음 도리 05:00:41
제5장 가르침의 바른 이해
• 마음 밖에는 부처가 없다 05:43:54
• 불법의 바른 이해 06:05:10
• 실참 수행 06:49:56
제6장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07:23:00

정가 14,000원 → 특판가 12,600원 / 신국판 / 314쪽 (배송비 별도)

『삶은 고苦가 아니다』는 1996년 9월에 처음 발행되어 초판 22쇄라는 기록을 남기고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대행스님 법어집 입니다.
2015년의 3판 개정판에 이어 2022년 4월에 개정 제4판을 내놓으며 읽기에 좀 더 편하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페이지 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도 마음 빼놓고는 없는 것입니다

☞ 19면에서 계속

내 마음과 부처님의 그 뜻을 같이 한마음으로 뭉쳐서 둥글게 놓고 진실하게 참배를 하고 지극하게 초를 켜고, 밝은 마음을 비유하는 거니까 말입니다. 물을 한 그릇 떠 놓더라도, 즉 말하자면 다기를 모셔 놓더라도 그 다기는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지혜, 지혜로운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도 마음 빼놓고는 없습니다.

하여튼 마산의 여러분께서 생활 자체를 그대로 참선으로 알고 가셔야 합니다. 즉 말하자면 행선 입선 와선 좌선, 이것이 한데 합쳐서 그냥 여여하게 생활하는 것이 참선입니다, 참선! 왜냐하면 모든 것이 자기가 하는 게 없이 자기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너무 많아서 어떤 거를 할 때 내가 했다고 할 수 없으니까요.

그전에도 그랬죠? 남편 노릇을 했다가 "아버지!" 하고 들어오면 한순간에 "어!" 그러고 아버지 노릇을 하고, 말도 아버지의 말이 나가고 행도 아버지의 행이 나가고 뜻도 아버지의 뜻이 나간다. 그렇게 하듯 "얘, 아무개야!" 그러면 아들 노릇을 하고 "여보게!" 하면 사위 노릇을 하고 "형님!" 하면 벌써 형님 노릇을 하고, 이렇게 천차만별의 그 마음에 의해 바뀌어서 화해서 나투는 그런 살림살이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 이 생활 자체도 그렇게 나투면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을 보되, 즉 말하자면 자기가 봤다고 해서는 안 되죠. 자기 주인 놈이 다 하는 거죠. 보게 하고 듣게 하고 만나게 하고 가고 오게 하고 이러는 거죠, 다.

누가 몸이 비참하게 아프다 해서 관하라고 가르쳐 줬죠. 그랬는데 직코스로 들어가는 사람은 백발백중이에요. 그러나 줬다 뺏었다 줬다 뺏었다 하는 사람은 그냥 쓰러집니다. 허! 심부름을 시키는데 서류를 줬다 뺏었다 줬다 뺏었다 하면 그 서류 작성이 다 됩니까, 어디? 그와 같이 진짜로 믿고 진짜로 맡길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러서지 않는 마음이라야만이 되겠죠?

하여튼 우리가 제대로 알아서 벗어날 수 있어야죠. 즉 말하자면 관습이나 업식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세세생생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굴레에서 벗어나야, 오신통이라는 이 자체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오신통을 굴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생활을 그냥 굴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신통이라는 것도 이름이죠. 우리가 살림하는 자체가 그대로 오신통입니다. 그러니까 오신통에서 벗어나야 오신통을 자유스럽게 굴릴 수 있다 이 소립니다. 오신통이라고 한다고 해서 통이 어디에 있는 줄 알고 두리번두리번 찾지 마시구요. 허허허….

그러면 한마디만 더 하고 끝을 내겠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요다음 생에, 미래에 모습을 가지고 나옵니다. 미래라고 하지만 다음이 오늘입니다. 도로 오늘이 되는 겁니다. 다음 생이 오늘, 현생이 되는 겁니다. 그런다면 자기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모습이 주어집니다.

방편으로 하나를 비유해서 얘기한다면, 어떤 사람이 얼마나 잘못하고 살았던 무당들이 "국내 밥내도 못 맡는다, 너!" 이러죠? 그렇게, 하여튼 지옥에 갈 일을 했다면 지옥고가 벌어지겠죠. 오간지옥이라는 게 뭡니까? 땅속에서 꿈틀대면서 국내 밥내도 못 맡는 것이 그게 아귀지옥도 되지만 오간지옥에서 허덕이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과거에 있었던 옛날얘기냐 하면 그게 아닙니다. 지금 현실입니다. 현실에서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일 일을 모르고 어저께 일을 모르니까 그렇지, 만약에 안다면 살인 납니다. 사람이 독사같이 살았다면 독사로 모습을 가지고 나올 것입니다. 여러 가지 모습이 많지만 하나로 규정을 지어서 방편으로 해 봅시다. 우리 모습이 그렇게 개 모습으로 나오면 개 대접밖에 못 받을 것이고 뱀으로 나오면 뱀 대접밖에 못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축생으로 태어나면 축생 대접밖에 못 받을 것이고 말입니다.

누가 몸이 비참하게 아프다고 해서 관하라고 가르쳐 줬어요.
그랬는데 직코스로 들어가는 사람은 백발백중이에요.
그러나 줬다 뺏었다 하는 사람은 그냥 쓰러집니다.

지 개로 탄생을 했더랍니다. 지금도 많이들 그렇게 하고 가죠. 개로 탄생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허, 전자에 형제였고 부모 자식지간이었는데 자기를 얼마나 무시하고 그러는지 모르겠더랍니다. 개로 인연이 돼서 새끼로 태어나서 컸는데 보니까 그렇더랍니다. 그래서 개란 놈이 '야! 언제적에 그렇게 모른다 했고 언제 적에 그렇게 너만 살았어?' 하고 막 짖으니까 "이놈의 개가 왜 이렇게 짖어?" 그러곤 그냥 발길로 탁 차더랍니다. 하하하…. 그러니 아무리 '내가 아무개라, 내가 아무개라, 내가 이렇다' 해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가 개 모습을 쓴 거를 전혀 생각지 못하고 자기가 전자에 살던 의식만 가지고 그냥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아무리 짖어도 짖어도, 아무리 이렇고 저렇고 사유를 말을 해도, 그걸 알아듣는다 하더라도 개 모습을 쓰고 나왔으니까 개 대접밖에는 할 수 없지 어떡합니까, 네? 그러면 개로만 비유해서 얘기했는데 천차만별의 모습들이 다 그렇단 말입니다. 왜, 옛날에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자기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모습이 주어지는데, 그 모습을 가지고 말입니다, 거기에서 습이 붙어 가지고 그 모습 벗어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닭이라면 닭의 짓을 하던 습이 있어서, 뱀이라면 뱀의 짓을 하던 습이 있어서, 그 습이 붙어 가지고 그 모습의 무명을 벗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오백 세를…, '오백이다' 하는 거는 아주 세세생생을 말하는 겁니다. 그냥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그 무명을 벗고 턱턱 털고 일어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인간 환생 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인간 환생이 돼 가지고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또 모습을 가지고 나오게 돼 있으니 그저 아래로 위로 아래로 위로 그냥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한 생각을 잘해서 구덩이에서 나오게 해야지 한 생각을 잘못해서 구덩이에 들어가게 한다면 여러분이 여러분을 긁어먹고 그냥 구덩이에 빠뜨리는 것이죠. 빠뜨리고 나서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러냐' 하고 울고불고 아무리 해 봤던들, 버스 지나간 뒤에 아무리 그래 봤던들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몸뚱이 하나를 우주라고 해도 되고 국가라고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서, 또 지원의 스님네들한테 모르는 건 물어서 항상 잘 관해서 체험을 하도록 하세요. 49년 동안 부처님께서 설해 주시고 길을 인도해 주신 그 뜻을 말로는 다 감사하다고 못 합니다. 그러니 부처님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고 또 일체 중생들, 풀 한 포기도 곤충 하나도 스승 아닌 게 없다는 것을 아셔야죠.

곤충이라고 깔보지 마세요. 자기 배 속을 잘 들여다보면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알 것입니다. 자기 육체 속을 들여다보면 자기가 온 곳이 증명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지혜를 좀 더 넓혀서 둘로 보지 않고 전체를 본다면 둘 아닌 도리가 착 나올 것이나, 요 한 그릇 안에서만 본다면 너 나가 아주 뚜렷하게 갈라져 있으니까요, 천차만별로. 그러니까 그렇지 않도록, 지혜로운 마음으로써 관하는 법을 세밀하게 잘 아셔서 내가 급할 때 실천에 옮겨 보세요.

생활하시면서 아프든지 애고가 오든지 어떠한 것이 오든지, 그거를 고(苦)로 생각을 하지 마시고 재료로 알고 관하세요. 예를 들어서 "네가 고를 안다면 고를 없앨 수도 있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고로 알지 마시고 모든 것을 닥치는 대로 '아, 이거는 내가 마음의 관법을 공부하라고, 마음공부를 하라고 이 재료가 나한테 닥쳤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재료를 다 거기다가, 용광로에다 넣고 재생돼 나가는 것을 한번 지켜보고 이렇게 한다면 체험이 될 것입니다. 그런다면 자기 주인공을 '이게 뭣고?' 하고 무의미하게 두리번두리번하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질문자1(남) 사람마다 불법에 드는 인연이 다르지만 저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3년 동안 무척 어려운 생활을 하다가 1년 전부터 불법을 만나게 돼서 제게 닥친 이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안목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다 큰스님의 밝은 가르침 덕분으로 생각하며 언제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보니 사고를 당하거나 또 오랜 지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고통을 당했을 때 생각을 어떻게 지니고 다스려야 궁극적으로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지 좋은 가르침 부탁드리겠습니다.

큰스님 부처님이 나투시는 법을 여러분의 육안으로는 못 보실 겁니다. 불이 들어오고 꺼지는 것만 보지 전력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는 못 보듯이 말입니다. 그와 같이 예를 들어서 천지와, 즉 말하자면 우주 전체 삼라만상이 직결돼 있는 그 마음, 가설이 돼 있는 직결처에다가, 즉 자기 안테나에다가 모든 거를 놓았을 때, 아픈 것도 '너밖에 낫게 할 수 없어.' 하고 거기에다 놨을 때는 말입니다, 부처님 마음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처님이 순간 한 찰나에 약사로 나투어서, 즉 말하자면 낫게 할 수가 있다 이 소립니다. 자기 마음의 그릇이 돼 있음으로써 부처님의 마음이 응신으로 나투어서, 즉 그냥 약사로 화해서 나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속에 같이하는 거죠. 둘이 아니니까요. 그렇게 해서 낫게 될 수 있다는 얘깁니다.

이 뜻을 잘 모르시겠지만 이것은 심성과학이라고 해도 아마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과학적으로도 지금 그 심오한 뜻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할 때에 '너만이 네 몸을 건강하게 이끌고 갈 수 있잖아.' 할 때에 바로 부처님의, 일체제불의 마음은 한 찰나에 드십니다. 이거는 그릇 없는 그릇을 만들어 놓은 사람이라야만이, 즉 깨친 사람이라야만이 찰나찰나 왕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직코스로다가 거기에다가 그냥 관하신다면 그대로 약사로 화하셔서 거기 응해 주십니다.

질문자1(남) 감사합니다.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93년 7월 24일 국내지원 법회 법문의 일부를 정리한 것입니다.

100% 핸드메이드 연꽃 복전함

장인의 손길 복을 담는 그릇



- 오동나무 원목 – 고급스러운 질감, 내구성 뛰어남
- 우레탄 금분 칠 – 오래도록 변색 없이 유지
- 복전함 & 박지문 양각 – 복을 모으고 지키는 의미의 상징
- 비밀 출금 구조 – 외부에서 절대 열 수 없음, 구입자에게만 안내
- 전용 출금 도구 제공 – 사용 편의성과 안전성 제공

청정한 연꽃의 기운과 복을 모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대형 (66cm×56cm×56cm) ⇒ 2,600,000원
중형 (56cm×46cm×46cm) ⇒ 2,300,000원
소형 (45cm 출시예정) ⇒ 1,90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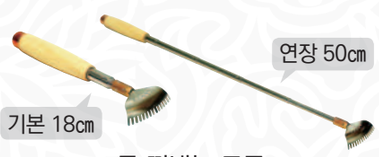
복 전 함 설치사례 부산 관음사







'박지문(博地門)' 글씨 양각 새김



돈 꺼내는 도구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은 www.mahamall.co.kr /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하성미 기자의
心 心 talk talk

㊸ 말하는 법 강조한 부처님, 대화법(1)

사랑만으로는 부족해…대화를 배워야

"전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상담실에서 미희(47·가명)는 울먹이며 말했다. 남편과 수없이 대화를 시도했지만, 언제나 결론은 다툼이었고, 결국 이혼이라는 선택 앞에 서게 되었다.

그녀는 대화를 정말 많이 했다고 했다. 대화를 통해 관계를 바꿔 보고 싶었다고 했다. 하지만 남편은 늘 '무반응'이었고, 바뀌지 않았고, 그녀의 말을 "무시한다"고 느꼈다고 했다.

"제가 원하는 건 정말 간단한 거예요. 힘들면 힘들다고 말해 주고, 미안할 땐 미안하다고 한 마디만 해 주면 되는 건데…. 근데 그걸 안 해요. 그냥 저한테 문제가 있다는 듯이 말하니까 너무 화가 나요."

그녀는 남편을 "무책임한 사람", "감정이 없는 사람", "대화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그런데 상담을 거듭하며 드러난 것은 조금 달랐다.

그녀는 '대화'를 정말 원했지만, 그 대화는 결국 '내가 원하는 답'을 듣기 위한 시도에 가까웠다. 질문이 아니라 판단이었고, 요청이 아니라 명령이었으며 기다림이 아니라 통제였다.

우리는 종종 말을 많이 하면 대화를 한 것이라 착각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말이 감정을 실은 독백이 되거나, 기다림 없이 쏟아내는 통제로 흐를 때가 많다. 질문이 아니라 판단이 되고 요청이 아니라 명령이 되며 기다림이 아니라 압박이 될 때, 상대는 들으려 하지 않는다. 또한 많은 경우, 우리는 말보다 '정답'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내가 원하는 반응이 돌아오지 않으면, 넌 틀렸다"는 메시지를 담아내고 만다. 그런 말은 아무리 공을 들여도 '들을 수 없는 말'이 된다. 진짜 대화는 '상대를 바꾸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태도다. 상대를 교정의 대상으로 여길 때 대화는 벽을 만들고, 관계는 점점 멀어진다.

그래서 대화는 어렵다. 사실 대화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배움의 영역'이다. 내 말을 돌아보고 상대의 말에 담긴 마음을 듣는 연습을 할 때 대화는 결국 관계를 살리는 기술이 되고, 자신을 돌보는 따뜻한 도구가 되어 준다.

관계를 위한 대화를 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평가하거나 판단하는 말, 충고하려는 습관부터 내려놓아야 한다. 그것들은 겉으로 보기엔 '도움'처럼 보일지 몰라도, 상대에게는 비난이나 지적, 혹은 우월함의 표현으로 들리기 쉽다. 예를 들어, "당신은 너무 예민해"라는 말은 단순한 감정을 전달한 것이 아니라 상대를 평가한 말이다.

관계를 위한 대화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을 만드는 말이다. 평가나 판단이 개입된 순간 상대는 '듣는 사람'이 아니라 '방어하는 사람'이 되고, 대화는 이해가 아니라 '논쟁'이 된다.

상대 바꾸려는 말이 대화 벽 만들어
관계 회복 첫걸음 '대화 위한 연습'
판단 아닌 공감, 소통의 벽 넘게 해

충고도 마찬가지다. 아직 공감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던지는 충고는 "너는 틀렸고, 나는 맞다"는 메시지로 전해진다. 그 순간부터 상대는 마음을 닫고 대화는 서로의 거리를 좁히지 못한 채 끝나 버린다.

그래서 관계를 위한 대화는 무엇보다 '들으려는 태도'에서 출발해야 한다. 듣지 않고 평가하는 말, 공감 없이 충고하는 말은, 결국 관계를 위한 말이 아니라 관계를 깨뜨리는 말이 된다.

여기에 더해 비폭력 대화(NVC, Nonviolent Communication)는 좋은 방안이 된다. 미국의 심리학자 마셜 로젠버그(Marshall Rosenberg)가 제안한 이 대화 방식은 상대를 이기거나 설득하기 위한 말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에 닿기 위한 말을 연습하는 방법이다. 비폭력 대화는 네 가지 단계로 이루어진다.

첫째, 관찰하기다. 평가나 해석 없이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말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당신은 요즘 나를 무시해"라는 판단 대신 "이번 주에 우리 둘이 함께 이야기한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라고 표현하는 식이다.

둘째,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기다. 상대를 탓하기보다 내가 느낀 감정을 담담히 말하는 것이다. "당신은 늘 제멋대로야"라는 말 대신 "그래서 나는 좀 서운하고 외로워"라고 내 마음을 전달한다.

셋째, 욕구를 인식하는 것이다. 그 감정 뒤에 숨겨진 내 안의 필요를 바라보는 것이다. "나는 함께 있는 느낌, 연결감을 느끼고 싶었어"처럼 내가 진짜로 바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차리는 과정이다.

마지막으로 넷째, 요청하기다. 명령이나 강요가 아니라 상대를 존중하며 바람을 말하는 방식이다. "지금 말해 보라고!"라는 언어 대신 "오늘 저녁에 잠깐 대화할 수 있을까?"라고 말하는 것이 그 예다.

이 네 단계는 단지 말의 형식을 바꾸는 기술이 아니라, 상대를 향한 태도와 관계의 방향을 바꾸는 연습이다. 경전 〈법구경〉에는 때와 장소에 맞지 않는 말만 하는 비구 랄루다이가 나온다. 그는 장례식장에서 〈보배경〉과 〈행복경〉을 낭송하고, 어디를 가든 처음 가진 의도와는 다른 말을 하곤 했다. 부처님은 "랄루다이는 어리석어 시의적절한 말을 하지 못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은 마치 황소와 다를 바 없다"고 꾸짖으셨다.

대화는 연습을 통한 배움이다. 내가 어떤 말을 자주 쓰는지 돌아보는 것, 상대의 말 속에 감정과 욕구가 숨어 있는지 귀 기울이는 것, 그리고 '내가 옳다'보다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을 기억하는 것. 말은 마음의 다리다. 그 다리를 다시 놓을 수 있다면 관계는 다시 연결될 수 있다.

*현대불교신문 부산주재기자이자 가족상담전문가로 지역 가족센터에서 상담치료를 담당하고 있다.

건강 365

㊹ 온열질환

충분한 물 섭취, 한낮 활동 자제해야

최근 연일 지속되는 폭염으로 온열질환자가 급격히 발생하고 있고, 폭염 기간도 해마다 길어지고 있다. 이에 온열질환에 대한 주의와 즉각적인 대처가 요구된다.

우리 몸의 체온은 36.5도에서 37.5도 사이에서 변동성을 가지는데, 고온 환경에 신체가 노출되면 피부로 가는 혈액량이 증가하고 땀 발산을 통해 열을 떨어뜨린다. 하지만 장시간 고온에 노출되면 다양한 염증 물질들이 체내에 증가하고 혈관 내 손상을 유발한다. 이러한 온열질환은 4세 미만의 어린이, 노인, 심장질환자와 음주, 탈수, 수면 부족 등이 있는 경우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

온열질환의 종류

온열질환에는 비교적 가벼운 증상인 열경련, 열탈진(피로)에서 치명적인 열사병까지 있다. 열경련은 근육경련 현상으로 주로 고온에서 신체활동을 많이 한 후 발생하는데 종아리, 허벅지, 어깨 근육에서 주로 나타난다. 경련이 생기면 해당 부위를 스트레칭 또는 마사지하고 전해질이 포함된 용액을 보충한다. 집에서 물 1000cc에 소금을 찻숟갈로 한 숟갈 넣으면 전해질 용액을 만들 수 있다.

열탈진(피로)은 폭염에서 야외 활동 시 피로감 및 기력 저하, 어지럼증, 두통 및 구토 증상을 호소하는 것이다. 열사병과 다른 점은 대개 땀을 많이 흘리지만 체온은 정상이라는 점이다. 열탈진을 호소하는 경우 서늘한 곳으로 이동시킨 후 옷을 벗기고 휴식을 취하도록 한다.

장시간 고온에 염증 물질 증가
노약자와 음주 · 수면 부족 위험
알코올 및 카페인 음료 피해야

증상이 호전되면 물이나 전해질 음료를 보충하도록 한다.

열사병은 체온이 40도까지 증가하는 것이 특징으로, 몸에 땀이 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의식 저하를 보인다. 기타 발작이나 혼수 증상을 보이기도 하며 합병증으로는 신장 기능 저하가 나타난다.



폭염 속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야외활동을 하기 전 충분히 물을 섭취해야 한다. 사진 출처=픽사베이

증상별 대처법

폭염 속 야외 활동 시 몸이 뜨겁지만 땀이 나지 않고 의식이 저하된 경우는 열사병을 의심해 즉시 응급실로 이송하도록 한다. 이송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얼음을 넣은 찬물 욕탕에 몸을 담근다. 이마저도 어렵다면 미지근한 물이나 찬물을 뿌리면서 부채질하거나 젖은 수건으로 몸(주로 목, 겨드랑이, 사타구니 위주)을 닦는 응급처치를 시행하면서 119에 연락한다.

땀을 많이 흘리지만 몸이 많이 뜨겁지 않으면, 그늘로 옮긴 후 옷을 느슨하게 하고 물이나 전해질 음료를 보충하게 한다. 다리는 머리보다 높게 유지하고, 근육경련 증상이 있으면 해당 부위를 마사지한다.

온열질환 예방법

온열질환의 예방법은 활동 전 충분히 물을 섭취하고 활동 중에도 갈증이 있기 전에 물이나 전해질 음료를 마시도록 한다. 한낮에 활동을 피하고 활동 시 정기적으로 서늘한 곳에서 휴식을 취한다. 꽉 죄는 옷 대신 헐렁한 옷을 입고 가급적 흰색이나 밝은색의 옷을 입도록 한다. 또한 맥주나 커피 등 알코올 및 카페인 음료는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음료들은 순간 갈증 해소 효과가 있지만 이뇨 작용으로 탈수를 유발할 수 있다. 특히 고령자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폭염에 매우 취약해 최대한 야외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



정휘수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가정의학과

"세상에 단 하나뿐인 특별한 이야기, 바로 당신의 삶입니다"

삶은 스쳐 가는 순간들의 연속이지만, 그 안에는 잊혀서는 안 될 소중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법보신문은 스님과 불자들의 수행 여정, 지혜의 말씀, 사찰의 역사와 전통을 한 권의 책으로 담아냅니다.
당신의 삶은 누군가에게 울림이 되고, 또 다른 이에게 길이 됩니다. 기록되지 않은 기억은 사라지지만, 글로 남긴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살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스님과 불자들의 삶은 현대 불교사의 소중하고 생생한 기록입니다.
법보신문은 깊은 존경과 정성으로 당신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그것이 잊히지 않고, 누군가의 마음에 깊이 머물도록. 지금, 당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세요. 당신의 삶이 곧 가장 빛나는 가르침입니다.



법보신문 다르마기록문화연구소

- 스님과 불자를 잘 아는 전문 기획사
- 불교 이해가 깊은 전문 필진 확보
- 기획부터 책자 제작까지 원스톱 시스템
- 종이·전자출판 올인원(all in one) 서비스
- 고객 수요와 주문에 맞춘 제작 시스템

법보신문 다르마기록문화연구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문의 ☎ 070-4707-4965

전법 일기

수험생·부모님 간절한 기도 불보살님 가피로 이어지길

8월은 수능 백일기도 '입재 시즌'이다. 자식을 위한 기도는 참으로 간절하다. 대학 입학시험 경쟁이 이렇게 치열한 나라가 또 있을까. 아이가 대학 갈 무렵에는 종교가 없던 어머니도 종교인이 되는 경우가 많은 듯하다.

얼마 전에도 젊은 어머니가 고3 아이의 수능 기도를 하고 싶다며 방법을 묻고 간 적이 있다. 문득 몇 년 전 일이 떠올랐다. 건강상 문제로 건강보조식품을 먹고 있을 때였다. 절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수행하는 나의 이야기를 들은 건강보조식품 가게 원장님이 어느 날 내게 상의하고 싶은 일이 있다고 말을 꺼냈다. 원장님에게는 딸이 두 명 있는데 큰딸은 고3, 작은딸은 고1이라고 했다. 그런데 고3 딸이 뭔가 자꾸만 불안해한다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때 나는 원장님에게 절에 가서 기초 교리반에 등록하고 부처님 공부를 하며 마음을 편안하게 해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그분은 그렇게 해보겠다며 얼마 후 기본반에 입학했고, 자신의 마음이 편안해지니 딸도 밝아졌다고 했다. 오래전 내가 수능 기도할 때 주지 스님께서 해 주신 말씀이 떠올랐다.

수능 기도할 때는 자녀에 대한 불안한 마음을 없애고, 엄마가 편안해져야 한다. 그러니 자식을 위한 기도라 하지만 사실은 자신을 다스리는 기도다. 기도하는 자가 불안하고 불편하면 그 파장이 자식에게로 고스란히 간다고 하셨던 말씀이 지금도 생생하다.

그러다 8월이 되어 수능 기도를 시작했지만 업무로 인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기도에 참석한다고 했다. 원장님 딸은 그해 수능을 본 뒤 대학 원서를 냈지만,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이었고 결국 가족회의 끝에 재수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하지만 그 원장님은 이후 딸을 위해 시간 날 때마다 석불전에서 기도하고, 또 인연이 닿아 사찰 봉사도 시작했으며, 매주 부처님 전에 차 공양을 올린다고 했다. 그 표정은 매우 밝아보였다. 때로는 건강보조식품 가게 일도 오후로 미루면서 절에서 봉사에 참여하며 신심이 더욱 깊어진 듯 보였다. 그리고 마침내 다음 해 딸이 원하는 대학에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하게 되었다며, 너무니 감사하다는 연락을 해 왔다. 이어 동생도 원하는 대학에 무리없이 입학하게 되었다며, 부처님 가피에 감사하고 기뻐했다.

나 또한 보람되고 함께 기쁨을 느꼈다. 그분은 지금도 여전히 절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신심 깊은 불자로 수행하고 있다. 무엇이든 간절하면 이루어진다.

나는 매년 수능일이 다가올 때마다 사찰에 수능 기도를 올리러 오는 젊은 부모님들을 보며, 그 자녀들이야말로 부모를 수행하게 이끄는 불보살님이라는 생각을 하곤 한다. 그러니 자식이 부처님이요, 보살인 것을. 올해도 일주문 옆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나는 대한민국의 모든 수험생과 부모님들의 간절한 기도가 불보살님들의 가피로 이어지길 기원한다.



조진화 국제포교사



김형중의 깨달음의 노래 ⑱ 진각국사 혜심의 오도송

내 이웃이 본래 부처

불성의 신령스런 빛은 온 누리에 빛나고(靈光無外爍虛空)
무량한 공덕은 바로 이 몸 안에 있네(德過恒沙蘊箇中)
성자와 속인이 본래 하나인데(凡聖本來同一地)
다시 어디에서 깨달음을 찾는단 말인가(更於何處覓圓通)

진각(眞覺) 국사 혜심(慧諶, 1178~1234)은 고려 무신정권 때 보조 국사 지눌의 보조선(普照禪)을 계승해 간화선을 주창하였다. 일찍이 과거시험인 사마시에 합격해 태학에 입학, 유학의 경전과 시학(詩學)을 공부한 수재로 어머니의 죽음으로 인생무상을 느끼고 수선사(송광사)에서 주석하고 있던 지눌 스님을 찾아 불문에 귀의했다.

그는 역대 선사들의 삶의 역사와 선가의 공안(公案) 1125칙과 거기에 붙인 평론[拈]과 찬송[頌]한 방대한 양의 염송 시가를 정리하여 〈선문염송집〉 30권(1226년)을 편찬한 걸출한 불교학자이다. 중국의 송나라 때 선장(禪藏)인 〈전등록〉과 〈벽암록〉에 뒤지지 않는 한국선사상사에서 전무후무한 저술이다.

당시 고려의 어려운 상황에서 방대한 선 서적을 편찬한 것은 '팔만대장경'을 판각한 당시 최고의 실권자인 최우(崔瑀)의 후원이 아니면 불가능한 큰 불사이다. 고려시대 승과시험 교재이자 현재 조계종단에서 승려교육의 교과서로 사용되는 그의 저술이 한국불교에 미친 영향은 절대적이다.

염송 시가 정리 〈선문염송집〉 편찬
조계종단 승려교육 · 승과시험 교재로
지혜 · 자비 광명으로 살면 "불보살 삶"

그는 우리나라 최초의 선시집(禪詩集)인 〈무의자 시집〉을 쓴 시승(詩僧)으로, 그의 선시는 일반 시인에게도 영향을 주었다.

기·승구에서 "불성의 신령스런 빛은 온 누리에 빛나고 무량한 그 공덕은 바로 이 몸 안에 있네"라고 하여, 부처가 되는 원래 씨알인 불성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몸[色蘊]과 정신작용[四蘊: 수상행식]을 이루고 있는 오온(五蘊: 몸·감수작용·상상작용·의지작용·지각작용) 속에서 작용하는 우리 중생의 마음[衆生心]인 것을 밝힌 것이다. 땡감이 홍시가 되듯 어리석은 중생의 마음이 밝아지고 맑아져서 부처의 마음이 되는 것을 설파했다. 부처를 마음 밖에서 찾지 말고, 내 몸과 마음 안에서 구하라는 설법이다.

전·결구에서 "성자와 속인이 본래 하나인데 다시 어디에서 깨달음을 찾는단 말인가"라고 자신의 오도의 경지를 읊었다. 깨닫고 보면 범부와 성자가 똑같은 사람임을 안다. 성자는 알고 실천하는 자이고, 범부는 어둡고 방황하며 윤회한다. 어리석은 마음을 되돌려서 지혜를 밝혀 깨달음을 얻고, 잉어가 정진하여 등용문을 통과해 마침내 용이 되듯 중생이 부처가 된다. 〈화엄경〉에서 "마음과 부처와 중생, 이 셋은 조금도 차별이 없다"고 하였다. 부처가 도솔천 하늘나라에 있는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중생, 즉 사람이 부처라는 뜻이다. 불교는 절대신을 믿는 종교가 아니다.

선가에서 깨달음의 공부는 "중생이 본래 부처임을 믿음"을 전제로 한다. 그러니 부처를 멀리서 찾지 말고 내 마음 안에 있는 보배창고의 문을 열어 찾아서 그것을 잘 쓰고 살면 부자가 된다. 누구나 지혜와 자비의 광명으로 살면 불보살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혜심 선사는 설법하고 있다.

알고 보면 내 곁에서 서로 경쟁하고 미워하는 이웃이 각자가 마음속에 보배구슬을 하나씩 품고 사는 대심(大心) 보살이다.

〈문화평론가〉

기자칼럼

AI로 되살린 독립운동 비구니 스님

올해 광복 80주년을 맞아 일제 폭압에 맞서 독립운동에 나섰던 스님들의 활동을 조명하는 기획기사를 2주에 걸쳐 게재했다. 'AI로 되살린 스님 독립운동가'를 주제로 한 기획은 첫 주 비구 스님들의 독립운동에 이어 이번 주는 비구니 스님들의 이야기가 담겼다. 국채보상운동에 앞장선 옥수동 미타사 비구니 스님 40명, 봉려관·보각·상근·옥봉·장일 스님이 그 주인공이다.

기획을 준비하며 새삼 알게 된 것은 독립유공자로 서훈된 비구니 스님이 없다는 사실이다. 독립운동이 남자들만의 전유물도 아니었을텐데, 우리의 기억 속에 여성독립운동가는 손에 꼽을 정도로 적은 게 현실이니 비구니 스님은 오죽할까.

그러나 일제강점기 독립을 위해 소리없이 헌신하며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던 비구니 스님들이 적지 않다. 그동안 불교계에서 여성의 항일운동은 물론 비구니 스님의 항일 독립 운동에 대해서 충분히 조명하지 못했기에 벌어진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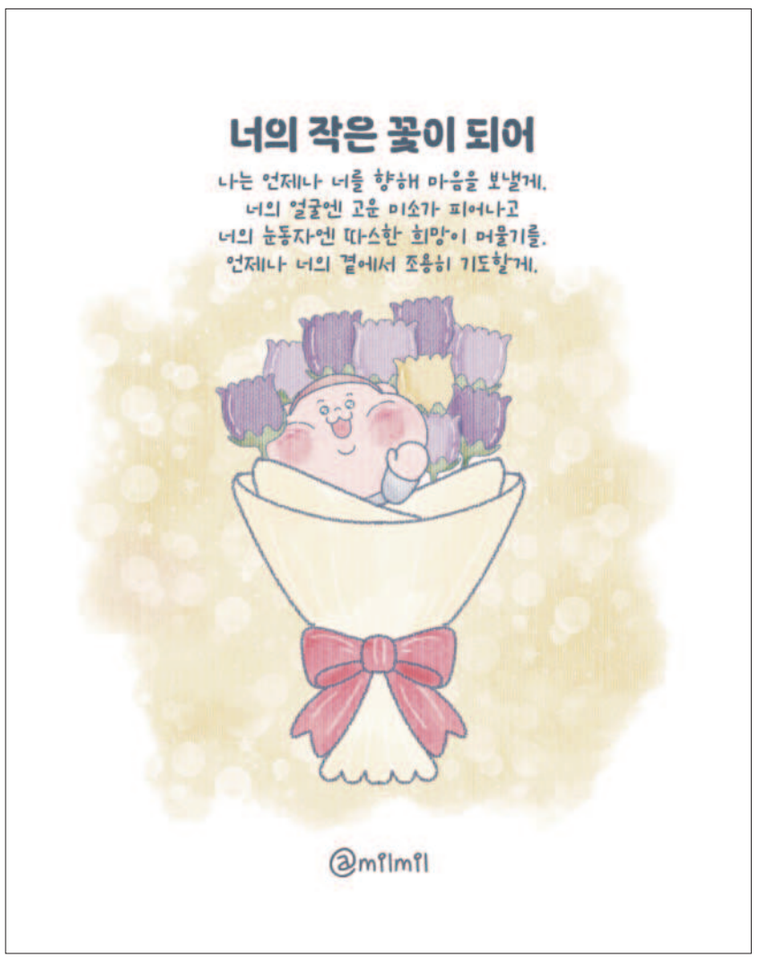
다행히도 최근 한국비구니승가연구소가 〈역사 속 한국비구니〉를 발간하며 비구니 스님들의 활약을 정리했지만 활동에 비해 충분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비구니 스님들의 항일운동은 구술은 있지만 문헌자료가 없어서 묻혀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항일운동은 지하운동이고 비밀결사체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비구니 스님들은 주로 자금을 마련하고 포교를 방편으로 대중에게 항일의식을 일깨워주는 방식으로 참여했기에 더욱 그렇다.

항일운동뿐 아니라 전반적인 비구니 스님들의 활동에 대한 문헌기록은 극히 적다. 그럼에도 우리는 기록의 부재가 결코 활동의 부재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개인의 명예나 사익을 돌보지 않고 오로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려는 진정성과 자비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자료를 찾고 기록으로 남긴다면 근현대 불교사를 풍성하게 만드는 것은 물론이고 세상 사람들의 가슴에 불법의 등불을 밝히는 힘이 될 것이다. 이번 'AI로 되살린 스님 독립운동가' 기획이 그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



임은호 편집국 차장

현밀 스님의 뭉밀이 佛스타툰





大갈등 시대, 종교가 필요하다

현불논단



김응철 교수
중앙승가대

1979년 12월 3일 러시아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구소련은 3만 명의 군대를 파견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다. 이 전쟁의 목적은 한 해 전 좌익장교들이 정부를 전복하고 인민민주당을 설립해 정권을 장악했으나 이슬람 폭동과 반란이 발생하자 이를 진압하기 위함이었다. 10여만 명의 군대를 동원해 10여 년간 이어졌던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1989년 소련군이 완전히 철수하면서 휴전에 들어갔지만 내전으로 비화되면서 1992년 반군세력이 이슬람 공화국을 선포하면서 끝났다.

이 전쟁으로 소련은 경제가 뒷걸음치고, 생산과 분배 시스템이 붕괴되면서 물가 급등과 물자 부족 등 경제위기가 심화됐다. 고르바초프가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 등의 개혁개방 정책을 도입했으나 버티지 못하고 1991년 소련연방은 해체되었으며 러시아가 탄생했다. 이러한 변화의 여파는 동구 공산권 국가들이 독립하여 민주화되고 자본주의를 받아들이는 결과로 나타났다. 그리고 폴란드, 루마니아 등 동구 유럽국가 다수가 나토와 유럽경제 공동체에 가입하면서 세계적인 변화를 촉진했다.

2000년 제3대 러시아 대통령으로 선출된 푸틴은 석유와 천연가스 수출을 바탕으로 경제를 발전시키고 군사력을 키워 2014년 우크라이나 남부 크림반도를 침공해 병합했다. 동부 돈바스 지역 등에서 지속적인 국지전을 일으키면서 영토를 확장하던 러시아는 2022년 2월 기습 특수 군

러시아發 갈등 곳곳으로 확전
미국 관세 정책에 무역전 돌입
대승불교 바탕한 변화 모색을

사작전을 시작했고, 2025년 7월 현재까지도 우-러 전쟁은 지속되고 있다.

러시아는 그동안 시리아와 이란을 통해 중동 지역에 군사적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마스, 레바논의 헤즈볼라, 예멘의 후티, 그리고 53년간 집권한 시리아의 알아사드 정권 등 이란의 지원을 받는 군벌들이 속속 제거되면서 이란의 영향력은 급속이 위축되었다. 여기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올해 6월 이란을 공습하여 핵시설을 폭파하고 관계자들을 제거하면서 이란을 지원하던 러시아의 영향력은 더욱 축소되고 있다.

우-러 전쟁에서 러시아를 내밀하게 지원하던 시진핑 정권의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과 무역전쟁에 돌입하면서 심각한 내상을 입었고 국가적 위기 상황에 내몰렸다.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 등을 축으로 하는 세력과 미국, 이스라엘, 유럽 등의 서구 세력과의 무역 갈등, 군사적 충돌이 더욱 가속화되면서 세계 경제에 심각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안타까운 일은 전쟁과 무역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종교의 역할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러시아 정교회, 이스라엘의 유대교, 중동의 이슬람교 시아파와 수니파, 미국의 개신교, 유럽의 가톨릭, 그리고 아시아의 불교 등 많은 종교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지만, 일부 종교는 전쟁을 종식시키지 못할지언정 오히려 불에 기름을 붓는 역기능만 보여주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불교는 대승보살행을 바탕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다가서야 한다. 이념과 종교, 국경을 뛰어넘어 서로 소통하면서 새로운 변화의 길과 방법을 제시할 때가 되었다. 이 시기에 부처님께서 나투시면 어떤 길을 일러 주실지 심사숙고하는 대승보살이 많아지길 바란다.

미래세대 위해 지역 문화주권 회복해야

세간과 출세간



이상근
(재)문화유산회복재단 이사장

'국민주권 정부'가 시작됐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를 실현하겠다는 새 정부의 의지로 읽힌다.

국민주권 정부는 핵심 공약으로 대한민국을 세계 5대 문화강국으로 만들고 2030년까지 문화시장 300조원과 수출 50조원을 이루겠다고 했다. 최근 불어오는 한국 문화 열풍이 배경이다.

새 정부는 '5대 K-컬처'로 K푸드·뷰티·팝·드라마·웹툰을 꼽았다. 하지만 K-컬처의 근본에는 문화유산이 있다. 문화유산은 한류의 배경이고 창작의 원천이다. 백제 무령왕릉을 잘 지켜 국보가 된 돌짐승(석수) 이야기, LG그룹의 심볼이 된 신라 얼굴무늬 수막새 등 선조들의 상상과 창작의 세계가 오늘날에 맞닿아 있고, DNA는 계승·전파돼 지금의 한류를 만드는 원동력이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실용주의 입장에서 자주 현장을 찾는다. 단순히 여론의 주목을 끌기 위해 시장을 방문하던 전임자의 모습과는 상반된다. 이에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의 국립박물관 야외 전시장을 들러보기를 권한다. 점심식사 후 잠시의 여유만 있으면 될 듯하다.

올해는 광복 80주년이다. 앞으로 20년 후면 광복 100주년이다. 우리는 아직도 일제 40년이 남긴 잔재를 청산하지 못하고 그 두 배의 세월을

國博 유물 대다수 적산 계승
일제 청산 위해 지역 환수를
수도권-지역 격차 해소 도움

보냈다. 과거 불행의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몫이 된 지 오래이다. 국립박물관의 소장품 상당수는 조선총독부 박물관의 것이다. 적산으로 물려받아 오늘날까지 대물림하고 있다. 그중에는 지역을 대표하는 불교 문화유산이 당연하게도 상당수이다. 이를 지역으로 돌려 달라는 수많은 외침이 있었지만 공허한 메아리이다.

우리 안의 약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스스로 윤리적인 국립박물관이 되어야 세계적인 박물관으로 K-헤리티지를 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 프랑스, 영국 등의 박물관은 과거 약탈 등 불법적 수단으로 취득한 소장품을 앞다퉈 원래 자리로 돌려주고 있다. 이를 국가 사이의 이슈로 치부하고 우리 안의 문제를 외면하면 안 된다.

2023년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은 '미래세대에 더욱 가치 있게 전해 주는 것'을 이념으로 한다. 그러면 지금 전국 모든 미래세대가 고르게 유산의 가치를 향유하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한다. 서울 용산의 국립박물관에는 약 45만 점의 유물이 있지만 한 번도 박물관을 방문한 적이 없는 지역 청소년이 많다는 사실을 정부는 직시해야 한다.

이 문제 해결의 출발은 지역에 유산을 돌려주는 일이다. 이를 지체할 이유는 없다. 청소년이 누릴 권리가 훼손되고 있는데 더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몹쓸 짓이다. '국가유산기본법'의 제정 배경에는 지역 활성화가 있다. 지역 대표 브랜드는 공동체의 오랜 정체성에서 연유한다. 국민주권 정부의 문화 정책이 성공하려면 지역의 문화주권 회복이 선행돼야 한다. 뿌리 없는 문화는 잠시 유행할 뿐이다.

社 說

광복 80주년, 불교가 남북 교류 마중물 돼야

올해는 우리 민족이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80년이 되는 해다. 광복은 우리 민족에게 더없는 환희의 순간이었지만, 곧 분단의 시작이기도 했다. 1948년 남북한에 각각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되며 정치·제도적 분단이 이뤄진 후, 우리는 지금까지도 '완전한 광복'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민족이 서로를 향해 총을 겨누는 현실에서 평화와 번영을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불교계는 오래전부터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남북 불교교류와 통일운동에 앞장서 왔다. 특히 광복 70주년이던 2015년은 불교계를 넘어 남북 교류 역사에서도 상징적인 해였다.

그해 5월, 조계종은 세계 평화를 기원하며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세계 간화선 무차대회'를 봉행하고, 그 자리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2015 불교통일선언문'을 발표했다.

선언문에는 공존과 상생, 합심의 논리로 통일을 바라봐야 한다는 실천 지침이 담겼다. 조계종은 "한국불교가 통일선언을 발표하는 것은 부처님의 자비사상을 현실에 구현하기 위함"이며 "남과 북의 진정한 통일은 '땅의 통일'과 함께 '마음의 통일'을 이뤄내는 것"이라고 의미를 밝혔다. 또 "불교도는 굳어진 남북관계를 풀고 민족동질성 회복과 통일의 대업을 이루는 데 앞장서겠다"고 서원했다.

이어 9월에는 남북 불교교류의 상징인 금강산 신계사에서 '낙성 8주년 기념 조국통일기원 남북불교도 합동법회'를 봉행했다.

당시 남북한 상황은 급박했다. 8월 초 DMZ 목함지뢰 폭발 사건으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됐고, 이는 서부전선 포격 사건으로 이어졌다. 다행히 8.25 남북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정세가 안정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하지만 언제 급변할지 모르던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민간 교류의 물꼬를 튼 것은 불교계였다. 경색된 국면에서 치러진 남북불교도 합동법회는 8.25남북공동선언 후 치러진 첫 민간 차원의 남북 공동 행사로, 이후 이산가족상봉 등 민간 교류 재개의 신호탄이 됐다.

10년이 지난 지금, 남북관계는 오히려 후퇴했다. 정치·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개성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폭파됐고 인도적 교류도 끊겼다. 남북 불교교류 역시 2018년 이후 거의 중단된 상태다.

그나마 올해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 평화와 남북 대화 복원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 다만 오랜 정치적 갈등을 일시에 해소하기는 쉽지 않기에 종교계, 그중에서도 남북 교류에 힘써온 불교계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대북 인도적 지원과 문화 교류라는 '방법적 해법'뿐 아니라 이념과 체제의 대립을 넘어설 수 있는 자비사상이라는 '정신적 해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지난 6월 16일 대북 종책특별보좌관에 이규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임명하고 "새 정부가 남북 관계의 전환점을 만드는 데 불교계가 다시 앞장설 수 있도록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불교문화 교류가 단초가 돼 정치적 갈등을 풀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불교계가 남북 민간 교류의 문을 다시 열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기를 기대한다. 분단 80년을 넘어설 수 있는 자비 실천이 절실한 때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스님 대표 겸 편집인 : 한명우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04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충 청 지 사 : 010-8341-0560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강 원 지 사 : 010-7339-8688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종 단 공 고

대한불교대승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 대승종은 1988년 도암선사께서 창종하였으며 (사)한국불교 종단협의회 회원종단으로 총본산은 서울 종남산 흥도사이며 제6세 종정예하 법경 스님과 제14대 총무원장 일봉스님을 중심으로 전국 350여의 사찰과 750여명의 승려및 전법사들이 포교와 수행에 매진하고 있는 대승불교의 대표 종단입니다.

이에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의 대승불교 정신을 계승하고 중생교화에 뜻을 함께 할 도반을 모집합니다.

문의 : 010-5165-0108 교육원장 진산

불기 2569년(2025) 7월 30일

대한불교대승종 교육원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종도 모집 안내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은 1988년 일붕 서경보 스님을 개조로 서울 일붕선원에서 창종된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재단법인으로서 일붕선교종은 국태안민과 남북 평화통일 기원 만등불사, 국군장병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및 지원사업, 종도단합 및 국운 융창기원법회 등 각종 법회와 사회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함께 전할 종도를 모집합니다. 02-991-8175

불기 2569년(2025) 7월 30일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혜일 스님

대한불교삼론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삼론종은 고구려 삼론종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제6세 종정 혜승 스님과 제10대 총무원장 해불 스님을 중심으로 2023년 삼론불교대학을 개교하고 전법 포교에 나설 승단 양성에 역주하고 있으며, 중국 삼론종 발원지 및 사찰들과 결연을 맺고 자비실천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법 포교에 함께 나설 종도를 모집합니다.

불기 2569년(2025) 7월 30일

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장 남륜 스님

사)여래불교조계종

종도 모집 안내

사단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은 시대가 요구하는 올바른 불교 모습을 정립하고자 공익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을 창종하고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불법홍포에 앞장설 전국 종도스님을 모집하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010-6219-4757

불기 2569년(2025) 7월 30일

여래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덕평 스님

AI 2025 현대불교신문 그림 공모전



2025. 08. 04 ~ 08. 29

공모주제 21세기에 부처님이 계신다면?
이 시대에 부처님이 계신다면 어떤 모습이고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자유롭게 상상하여 AI로 그려주세요

공모기간 2025. 08. 04 ~ 2025. 08. 29

참가자격 불교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

참가방법 이메일(hbnewmedia@naver.com)
1인 1작품 + 공모전 지원서(홈페이지 참조)

제출형식 파일형식:jpeg, jpg, png / 해상도: 300dpi, 6000px 이상 / 가로형식(3:2)

수상발표 9.15 / 현대불교신문 사이트 게재

시상내역

대 상	1명	50만원	최우수상	2명	30만원
우수상	3명	20만원	장 려 상	10명	10만원

수상작의 저작권은 현대불교신문에 있으며, 현대불교신문 2026 캘린더 제작에 사용 예정

문의 02-2004-8252 현대불교신문 https://www.hyunbulnews.com/